朝鮮日報
夕刊 十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獨逸國防軍六萬 라인地域完全占據

警備隊正規軍으로改編

【伯林九日發同盟】國防軍總帥폰프리츠將軍의 命令一下 獨逸國防軍精銳約二千은 七日새벽 켈른에 入城하얏는데 이어서 非武裝地帶에 待機하고잇든 國防軍二萬은 一齊히 行動을 開始하야 뒤쎌돌프에서 칼스루ー에 至한 를 貫通한 라인地帶를 完全히 占據하고 先鋒은 멀리 자ー르領域에 드러가서 國境線에서 겨우 二粁를 隔하여잇는 地點을 占據하엿다 國防軍의 進軍은 九日에도 繼續되여 코브렌츠에는 步兵一個聯隊、마인츠에는 步兵一個大隊 投擲彈部隊 一個中隊 칼스루ー에는 步兵一個大隊 그리고 아벤·드리엘 자알부류켄 자알루이스市에도 各一個大隊가 隊伍堂堂히 進出을 完了하고 켈른、만하임等의 라인河 上空에는 空軍部隊가 警備하고잇다。라인非武裝地帶에는 일즉이 特別警備隊 約三萬이 配備되어잇섯는데 正規部隊의 進出과 同時에 警備隊는 卽時 國防軍으로 改編되여 正規部隊와 서로 呼應하야 라인守護에 當하고잇다 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라인非武裝地帶에 進出한 獨逸軍은 改編警備隊를 加하야 無慮四個師 六萬이라 稱하는外에 戰車隊 砲兵隊及 空軍 二個中隊等이 配備되엿다고 傳한다。(寫眞은 히틀러)

獨政府聲明發表

【伯林九日發同盟】獨逸政府는九日午前聲明書를 發表하야 다음의 見解를表明하얏다

一、佛蘭西、蘇聯兩國政府가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야 로카르노條約의 精神을 沒却한以上 獨逸政府가 라인相互保障條約을 破棄한것은 當然하다

一、그러데 佛蘭西政府는 單純

佛外交陣動員하야 獨逸制裁에注力

小協商諸國佛國과共同戰線 英佛兩國도이에合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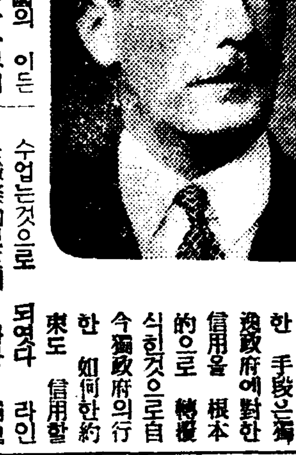
【巴里九日發同盟】獨逸政府의一方的行動에 直面한 佛國政府는 爲先 聯盟理事會에 提訴하는同時에 外交陣을 總動員하여 獨逸政府에對한 制裁實現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다 蘇聯邦政府와 小協商國、白耳義政府等은 끗까지 佛國政府와 共同戰線을 取하며 나치스政權膺懲案에 參加할것은 勿論 그去就가 念慮되여잇든 波蘭政府도 왈소ー駐箚 佛國大使 노엘氏의 要請에對하여 同盟條約의 明文에基하여 佛國과 協力할 意向으로 解釋되다 남은것은 英伊兩國政府인데 佛國政府에서는 從來의 緊密한 連繫關係에 鑑하여 이든外相이 스트레ー자會議의 決議를 尊重하여 적어도 伊太利政府에 對함과同樣으로 嚴格한 態度로 나아갈것을期待하고잇스며 伊太利政府에서는 經濟斷交의 緩和를 條件으로하여 임이 라인共同保障條約尊重을 公約하엿다고 傳하여오는데 政府當局은 講和示談案受諾을 機會로 伊太利政府에對한 制裁案을 緩和하려고 極力斡旋할意向으로보인다

라인軍警合體

【巴里九日發電通】라인란드駐在의 警官約五千名은 九日當地에 進軍한 獨逸正規軍과 合體하기로되엿다

英、一旦有事時에는 佛白兩國을支持

이든外相下院에서演說



【倫敦九日發電通】英國의 이든外相은 九日 午後三時十分부터 同四時五分까지 下院에서 外交演說을하야 最近의 獨逸政府의 로카르노條約 破棄宣言의 對策及 그前後事情을 明確히 하엿는데 演說要旨는 다음과갓다

한 法理的手段에 拘泥하야 獨逸、佛蘭西兩國의 國交調整을 目的으로하는 히틀러總統의 提議的提言을 拒否不顧하는 것은 國際平和擁護의 見地에서 至히 遺憾이다

獨逸政府가取한 手段은 獨逸政府에對한 信用을 根本的으로 轉覆식힌것으로 自今獨政府의行한 如何한約束도 信用할 수업는것으로 되엿다 라인保障條約規定에 따라 獨逸이 佛白에 侵入하는일이잇다면 英國은 佛白을 援助할것을 言明하여둔다 聯盟理事會는 本問題審議를 爲해서 十三日 開會하게 되여잇다 政府는 獨逸의 提案을 全面的으로討議하고 破棄된平和保障을 强化할 手段을 發見하려고 努力하고 잇다 去六日나는 獨逸大使헷쉬氏에 英獨航空協定 再開를 勸奬하엿다 그때 나는 同大使에게 對하야 이제야 西歐의 事態는 改善의 希望을 實行에 옮기고 英佛獨間의 關係改善을 期할것을 說明하고 또한 獨逸政府가 佛蘇相互援助條約을 로카르노條約違反이라고하면 仲裁裁判에 提訴함이 適當한것을 主張하엿스나 結局그翌日에이르러 一方的으로 로카르노條約廢棄를 通告하게이르럿든것은 遺憾이다 나는 獨逸政府의 이行動이 우리政府及與論에 밋칠 影響의 深甚한것을 憂慮하는것이다 그뿐아니라 獨逸이 聯盟復歸의 意가잇슴을 各國政府에 通告한데 말한바이다 이들은 全然無條件의 希望이다 植民地問題、벨사이유條約의 改修等의問題는 獨逸의 聯盟復歸後의 交涉을 기다릴것으로미더진다

다음 볼드윈首相이 聲明하야 過日公表하엿든 軍備充實計畫의 確白書의 趣旨를 說明한것과가티 言明하엿다 戰爭을 이르키는것은 一國으로하나 平和를 確保함에는 五十國을 要하지안흐면 안된다 英國의 取할 方途는 唯一이니 다만 後者가잇슬다름이다 그러나平和를 確保함에는 準備充實의 必要가잇다 過般發表한 白書는 現在의 狀況에서 最少限度의 要求이다 英國政府도 如何한 方面에서 威迫이올는지 이에 豫見되는바는 업다 獨佛間에 敵意와 猜疑心이 存在하는限에 歐羅巴에는 恒久的 平和는 오지아니하다 吾人의 唯一한 希望은 英佛獨三國間의 平和確立에잇다(寫眞은 이든氏)

獨逸라인侵入으로 로카르노會議開催

英佛白伊四國代表巴里來着 十日外務省에서開會

【巴里九日發同盟】白耳義代表 반제ー란드首相은 九日午後七時二十八分 巴里에到着하고 이어 英國代表이든外相은 午後十一時半 北停車場에 到着하엿다 英、白兩國代表를마지하여 로카르노會議는 드디여 十日午前十時半佛國外務省에서 開會되엿는데 政府에서는 플랑당外相 伊國代表로서는 巴里駐箚체르치大使 其他가 出席할터인데 會議에서는 獨逸政府의 安全保障條約廢棄特히 獨逸軍의라인進軍에 對處할 善後策

一、히틀러總統의 平和補償案에 對한措置

一、聯盟理事會의 請事에 對하야 라인保障條約 締約國代表는 隔意업시 意見을 交換할 豫定인데 佛白兩國代表의 意見이 가장强硬하야

一、獨逸軍의 라인란드撤收로非武裝點 現狀回復

一、히틀러總統提案의 全面的拒否

一、獨逸政府에 對한 經濟的制裁案을 主張하고잇다 그런데 英國代表 이든外相은 一面 獨逸政府의 一方的 行動에 對하야 條約의 修正을 要求하면서 히틀러總統의 建設的 提案에 冷靜且客觀的檢討를 加하기를 主張하고 伊太利代表는 複雜한 國際政局의 活動을 巧妙히 利用하야 自國의 立場을 好轉케하려는 見地에서 어데까지 靜觀的態度를 維持하리라고 解釋된다 따라 英佛白伊四國代表의 意見은 容易히 一致되지안흘것으로보이는데 會議의 動向에 依하여 聯盟理事會의 大勢 乃至 歐羅巴政局今後의 歸趨는 大體決定될것으로보인다 英伊兩國代表는 會議終了後 十日午後十一時 巴里發 쥬네브로 向할 豫定이다

獨佛兩軍對峙

國境情勢極緊迫

【메츠九日發同盟】獨逸軍의라인侵入斷行以來國境線을 隔하여 獨佛兩國軍은 指呼의間에 서로對峙하여 情勢極度로 緊迫을 和하고잇는데 九日午後六時 獨逸軍用機一臺가 突然티오빌要塞上空에 出現하엿다는 急報를 接하고 佛國空軍은 卽時 出動하엿는데 獨逸軍用機는 곳獨逸領內에逃入하엿다 메츠要塞司令部當局은 九日深更 獨逸軍用機의 越境을發表하야 獨逸軍用機는 卽時 自國領에 逃入한故로 드되어 制裁치못하엿다고 附言하엿다

許駐日大使着東

【東京電話同盟】日中國交의 新方針을 携行한 新任中國駐日大使許世英氏는 王參事館以下一行九名을 帶同하고 十日午前八時 東京驛에 到着하야 中國大使館員 其他 關係者의 出迎裡에 着任 卽時 大使館에 入하엿다

瑞西政府 嚴正中立堅持

【伯林九日發同盟】瑞西政府는 히틀러總統의 라인共同保障條約破棄에 關하여 一切沈默을 직히고 라인問題에 對하여 嚴正中立을 堅持할것을 强調하고잇다

佛政府動員計畫 東部國境에集結

【巴里八日發同盟】獨逸軍의 라인進軍에 直面하야 佛蘭西政府는 八日緊急國務會議를 開催하고 急遽歸休部隊를 召集하야 佛蘭西參謀本部의 立案인 安全保障計畫」에 基하야 東部國境線一帶의 防備를 强化하기로 決定하얏는데 同時에 陸海空三軍에對하야 動員計畫起草를 命하얏다 三軍은 새로 膨大한 豫算으로써 東部國境線에 構築된 金城鐵壁아지노線一帶에 集結하야 巴里會商及 聯盟理事會의 經過에 徵하야 언제든지 軍事行動을 이르킬수잇도록 待機하고잇는것으로 觀測되다

人事·集會

▲金洛泳氏(前載寧明新學校長)六日殷栗郡殷栗面舞山里鄕第에서 遭內艱

▲張英淳氏(滿蒙日報社京城支局長) 新任人事次來社

獨、國際河川國有를 關係各國에通電

【伯林九日發電通】確實한側에서의 報道에 依하면 獨逸政府는 去七日라인란드非武裝廢止宣言을 關係各國政府에 通達하는同時에 벨사이유條約에依하여 國際河川으로되여잇든、라인、따늅、엘베、오ー델 모ー젤의 諸河川을 獨逸國有로 할宣言도 同時에關係各國에 通告하엿다 此等河川을 國有로하는 理由는 左와如하다

獨逸은 이제全獨逸領에亘하여 完全한 主權을 回復한것임으로 벨사이유條約에依한 獨逸領內諸河川의 國際管理는 벌서承認할수업다 그럼으로 此等河川을 管理키爲하야 制定한 諸法律委員會도 承認치못하겟다

現內閣의政綱政策 十日閣議서協議

政策樹立과追加豫算編成에 政府今後活動이注目

【東京電話電通】未曾有의 非常時에臨하야 組閣된 廣田內閣은 事件以來 二週間만에 成立되여 이에 政情不安도 漸間解消되여 非常時克服時局收拾의 積極政策은 새로운誕生이 約束되엿스나 新內閣의難航狀態로 보아서도 察知되는바와가티 果然 잘이難關을 밀고나갈實力을 가지엿슬가 하는것은 甚히疑問되는바이며 그前途에는 多大의障碍가 伏在하야 잇는것으로보인다 卽軍部側의態度에는 二·二六事件에關하야 例의軍部의統制强化乃至 外交百般에對한 革新的政治의確立에對하야 길히期待하는바가잇다 그럼으로 組閣에當하야서는 寺內大將으로부터 廣田首相에對하야 嚴嚴 强硬한 要求가 거듭되여 現內閣으로서는 組閣直後로부터 重大한 困難에 逢着하엿다 組閣에當하야 陸海軍이 共同하야 提議된 各般에亘한 政策의 根本方針은말할것업고 現內閣의 政綱으로서 發表할 意向에對하야 十日의閣議에서 各閣僚의意見을 充分聽取한뒤에 內閣調査局에서 整備檢討를 遂하야 近日中에 中外에 聲明할것으로 되여잇스나 現下의時局에 비추어 또한 各方面의 要望은 形式的政綱의 羅列을가지고서는 到底히滿足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現內閣이 今後實行을 約束할 政策樹立에對하야 相當히 究明期間을 要하는것으로보인다 一方現內閣으로서는 곳 오는特別議會에臨할 準備도 그것과 倂行的으로 行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으로되고 더욱이 追加豫算의編成에對하야 時局의變化에 따라 根本再建을 必要로하는 特別議會에 提出할 政策案과 國防費를 中心으로 追加豫算의 編成에는 多大한 苦心을 要하는것으로보여지며 未曾有의 難關突破가 約束된 廣田新內閣은

一、國體의明徵

一、自主的積極外交의確立

一、特히 對滿、對中、對蘇政策의樹立

一、倫敦軍縮會議脫退後의 國防方針의確立

一、大陸政策遂行에 따를 陸軍의 整備擴充

一、農村經濟와 國民經濟의安定 特히 負擔均衡

一、財政의 根本的刷新

一、行政整理와 重要産業統制의一步前進

等 實로 各般積極政策의 實行에 逼到되여 잇슴으로 廣田首相을爲하야 寺內 永野兩大將及各閣僚의 今後責任은 極히 重大한同時에 그活躍은 자못期待되여잇다

政綱政策決定에는 軍의意圖를尊重

新陸相閣議에서强調

【東京電話電通】十日의 閣議에서 寺內陸相은 陸軍側으로부터 現內閣에 要求코저하는 內治外交各般에亘한 政策案의 大綱에對하야 이것을 說明하고 政府가 近近 發表하고 現內閣의 政綱政策決定에 當面하야서는 어데까지든지 軍의 意圖하는바를 尊重하야달라는 旨를 强調하얏다

特別議會 五月上旬召集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에 對하야서는 岡田內閣에서는 四月二十日召集하야 三週間의 會期로하기로 決定하야 詔書奏請의 手續을 하기로하얏스나 廣田內閣에서는 各般의 事情을 充分檢討한後 近近 閣議에서 特別議會召集期日及會期를 改正하야 決定한後 詔書奏請의 手續을하기로되엿는데 그召集期日은 手續의 關係上 五月上旬으로되겟스며 會期는 三週間일것으로 觀測되다

內閣書記官長以下更迭發令

【東京電話電通】新內閣成立으로 內閣書記官長以下 如左히 更迭發令되엿다

從四位勳三等 藤沼 庄平
任內閣書記官長(一等) 從四位勳三等 次田大三郎
任法制局長官(一等) 內閣書記官長 白根 竹介
法制局長官 大橋 八郎
依願免本官(各通)

小協商佛國支援

【巴里九日發電通】歐洲諸協商國及 발칸協商國은 九日까지이미 佛蘭西政府에 對하야 獨逸의로카르노條約破棄에 關하야 佛蘭西側을 支援하는旨를 正式으로 通達하야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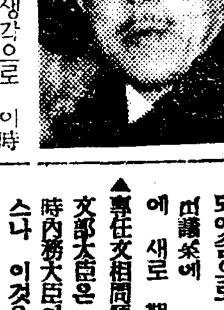
十八人委員會 議事進行停頓

【쥬네브九日發同盟】伊에兩國政府가 和協示談案을 受諾한結果 制裁十八人委員會는 九日에 이르러 議事를 停止하기로 決定하엿다

新政府初閣議後 首相聲明發表

議會期日은議案成立後決定 政綱政策도急速發表

【東京電話電通】廣田首相은 九日 午後十時五十分 閣議終了後 左와 如히 談話를 하엿다 생각지안흔 大命을 拜受하고 다만 自己의 微力함을 遺憾으로생각한다 그러나 閣僚로서 各方面에 經驗잇는 분이 入閣하여 이들이 一同協力하여 躍進的日本의 重大한 時局에 處하여 適切한 方策을 樹立하여 實行하려고 생각한다 日本의 今日事態는 內外로 보아 實로 重大한 時局이라고 생각한다 故로 不敏하나 愼重한 態度로서 萬般施政에 萬遺憾이 업도록하지안흐면 안된다 나의 如斯한 생각은 單純히 政府에서뿐만아니라 國民一般도 亦 가튼 생각으로 이時局에 處하여주기를 切實히 希望한다 또 首相은 右 談話에 繼續하여 記者團의 質問에 對하여 左와 如히 答하엿다



▲特別議會 前內閣에서는 四月廿日 召集할 豫定이엿스나 內閣이 更迭되엿슴으로 法案 其他議會提出議案에 對하여 研究한後에 새로 期日을決定할것이다

▲專任文相問題 文部大臣은 事情에依하야 一時內務大臣이 兼任하기로되엿스나 이것은 가장 適任의人物을 어드려고 생각한까닭으로 可及的 速히 選任하려고 생각하고잇다

▲政綱政策

第三十一周年의 陸軍記念日

諸行事盛大擧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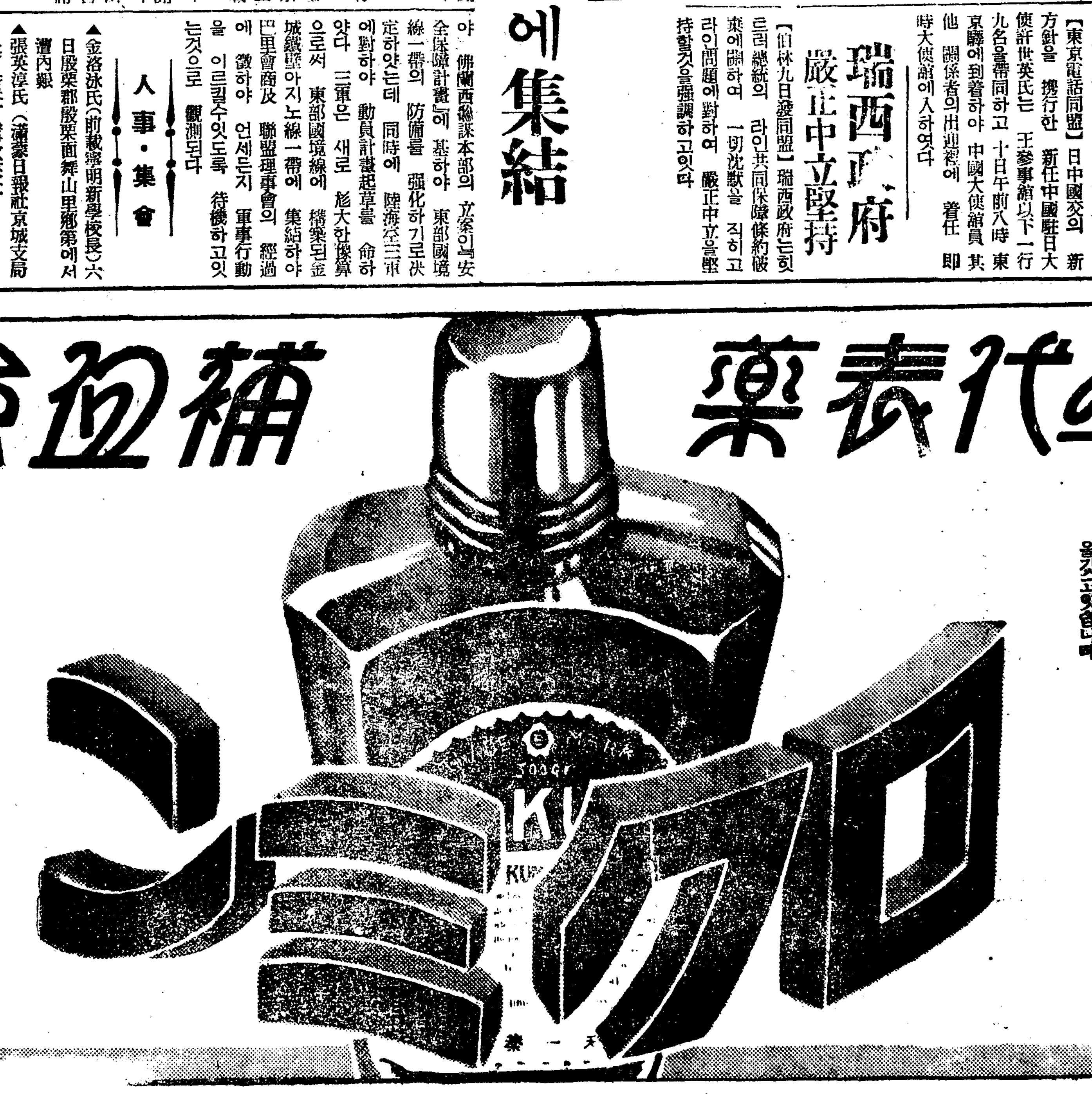
第三十一回 陸軍記念日에 當하야 在龍部隊의 諸行事는 九日의 小演習을 前哨戰으로 今十日 盛大히 擧行되엿다 午前八時半 小磯軍司令官 三宅二十師團長을 비롯하야 朝鮮神宮에 參拜하고 市內를行進하얏다 이러기前에 飛行六聯隊의空軍十數機는 午前九時半 大京城을 空襲하는 練習을 하고 同十時休戰喇叭을 信號로 戰鬪를中止하얏다 市內行進終了後 總督府前에서午前十一時 三宅二十師團長이閱兵하고 午後一時부터 龍山偕行社庭園에서 小磯軍司令官以下 軍部諸將 官民多數列席하야 祝宴을 設하얏다

八面鋒

大風 一過後 廣田新內閣 出現 ◇ 出現은 되엿스나 벌서 財界에는 陰鬱의 빛 東新이 百四十圓臺를 崩壞、後場은 서지 못하다고。◇ 陸軍費 八億圓과 農村復興費만 처도 歲入의 半以上을 占領할지니 赤字公債 發行은 不得已한 일。◇ 이러하야 公債 消化力 問題가 財界의 憂慮處。◇ 獨逸의 라인占據軍은 空軍이 二個中隊、步兵이 二十大隊。◇ 이것을 참을수 잇슬소냐 하고 佛國도 動員을 計畫。◇ 伊에紛爭을 틈탄 獨逸、라인란드占領은 하얏스나、◇ 佛英이 그대로 傍觀할수는 업슬지니 獨佛 乃至 歐洲大戰은 時間上 問題。◇ 嗚呼。天下는 何時定고。

聯盟平和交涉에 에國應諾을通電

【쥬네브九日發電通】巴里駐在에디오피아公使 마아얀氏는 九日聯盟事務局에 對하야 如左히 通電하얏다 에디오피아는 公正且 永續的인 平和交涉에 應할 用意가 잇다 에디오피아 皇帝께서는 敵對行爲의 即時停止를 目的으로 聯盟規約의 精神에 基한 聯盟機構의 範圍에서 即時和交涉을 開始하자는 熱望을 가지고잇다



朝鮮의代表藥 補血强壯新藥

藥에는 藥마다의 各異한 效能을갓고잇서서 其用途가 單一하고 또한 其效能 何에 따라비르소 評價를하게된다한 가지藥으로 萬病通治를 한다는것은 事理에 當然치안는 虛無한 事實일것이요 貴重藥材를 廉價로 提供한다는것은 虛僞일것이며 低劣한 藥材를 高價로 販賣하는것은 欺瞞的 行爲일것이다 誇大한 廣告나 無根한 宣傳에 속을때는 지내여갓다

本「쿠로민」은 自古로上下階級이나 男女老幼할것업시 愛用하신바 補陰補陽劑로 常用하시는바 「六味」를最新化學的操作에依하야 新藥化하얏고 兼하야 新補血强壯强精劑를 配伍製劑하야 治療機能上新舊藥으로 萬全을期한 新藥이올시다 我朝鮮人習性에 가장適合한 藥이요 또한永續性이 豊富하야 生殖性神經衰弱及早老症에 特異한效能을갓고잇습니다

十大醫學博士의 推奬하는바新藥

「至平일中 使用範圍」

△精力減退 △神經衰弱 △肺炎과肋膜 △肺結核 △早老 △老衰 △貧血 △產前產後 △病後恢復期

藥價 五〇〇瓦入 金參圓也 (全國各地藥店에서販賣하옵니다)

發賣元 京城府禮智洞 天一藥房

二千戶土幕民을 今春에强制移轉

市外貞陵里와弘濟外里로

錯雜多端한派生問題

경성부내와 근접지일대에 잇는 소위토막민(土幕民)의 존재는대경성의 발전상 중요한문제의하나로 당국에서는 때때로 그대책을 강구하고 잇는데 지난칠일에도 경성부에서 시내각경찰서장 도당국자들이 모이어 간담회를열엇다 간담회의 요지는 현재 경성부의 조사에 의한토막민, 삼천오백구십륙호에 인구 이만오천팔백구십사명 신년도에 약이천호를 홍제외(弘濟外里)와 정릉리(貞陵里)에 각일천호식이전을 식히자는것이다 축경영단체는 화광교단(和光敎團)과향상회관(向上會館)을 주로하고 부비와도비를 보조하야 부에서무상대부를 마련국유지에 각일천호식 이전식히자는것이엇다 간담회 석상에서는 토막민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론의가 만허서 결국은 경성에 한한 문제가 안이고 전조선의 실농자, 실직자의 문제 라는데 까지 미처서 구경은 국가적 근본대책을 강구치안코는 안되리라는 말까지낫섯스나 우선은 당면한 문제로 약이천호를 오는사월 해빙기에 꼭 이전식히도록, 하리라는것이다 그런데 이전식히는데는 매호에 약십오명내외의 토지만주어서 자력으로 가옥을건축케하는것을 원측 으로하고 어느정도에이르러서는 가옥건축재료를 일부 제공토록하려는 안이잇다 그리하여결국 강제로 현재의주거를 철거식히려는만큼 문제는 복잡하게 분규를이르킬모양이다

名色은土幕이나 實際는情든舊居

生活의根據를부친無形財産 處分代償이極難點

그런데 경계토막민은 가옥이라고는 국유지나 사유지에 허락도업시지은 보잘것업는 주택이라고는하나 그중에는 사오년내지 십수년식장구한 시일을두고 생활의 근거를잡어오든 곳들이라 그들토막민으로서는 다시업는 재산이되여잇는만큼 그들을 일시에 이천호나 시외와먼곳으로 이주식힘에는 여러가지로문제가 이러날모양이다즉

一、그들은 토지소유자의 허락도업서 집을짓고 잇섯다고하나 그동안지주로서는 한말도 업섯든만큼 그중에는 지주와의사이에 평온리에 일종의점유(占有)형태를 짓게되엿고

一、또주택은 가격으로는크게론할것이 못되다하여도 오랜것은 십여년식이나 쓰고잇서주택으로서 당당히 생활의근거를 두게되엿는만큼 사유지나 국유지、부유지를 막론하고그들을 강제 이전식히려함에는 철퇴에대한 상당한 보상도내주어야할것

一、또 그뿐안이고 주택으로서 토막민간에 임대관계(賃貸關係)가 엄연히잇는이상 단순히 토지의소유된 하나만 가지고 강제로 퇴거식힐수도업는것

一、또 현재그들중에는 일정한 직업을 몸가진것도잇스나 그중에는 직공혹은 관청회사방에 종업을 가진것도 잇는데 직업처소는 모다 부근 시내인만큼 이것을 시내에서 멀리 내쫏는다면 직업을 일케하는 결과를 맺게도 될터입으로 이점도 무엇보다 중대하게 고려할것

등 결국문제는 단순치안어 금후 그들강제이전까지에는 대단히 어려운문제가 발생할것이다

無辯護無傍聽 "仁川赤勞"公判

被告一同은事實否認

아주 땅미든로 숨어버린 서대문경찰서(西大門署)사건의 수령 라재유(李載裕)의 지휘를바더가지고 인천(仁川)에서 동양방직공장(東紡工場) 유마정미소(有馬精米所)인천분두(倉庫)로동자들을 선동하야 동맹파업을이르키게하고 동지들끼리 공산주의연구회를 개최하며 인천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려하엿다는

◀仁川新町五四 生魚行商 田甫鉉(三二)
◀開城宮町一四二 職工 朴永先(三〇)
◀仁川幸町一五 韓泰烈
◀仁川新花水里三二〇 韓昌熙(二〇)
◀仁川松峴里七八之六 職工見習 金慶玉(二二)
◀仁川新花水里一之六六 事務員 許友吉(二三)
◀仁川新花水里二二九 職工 南君瓊(二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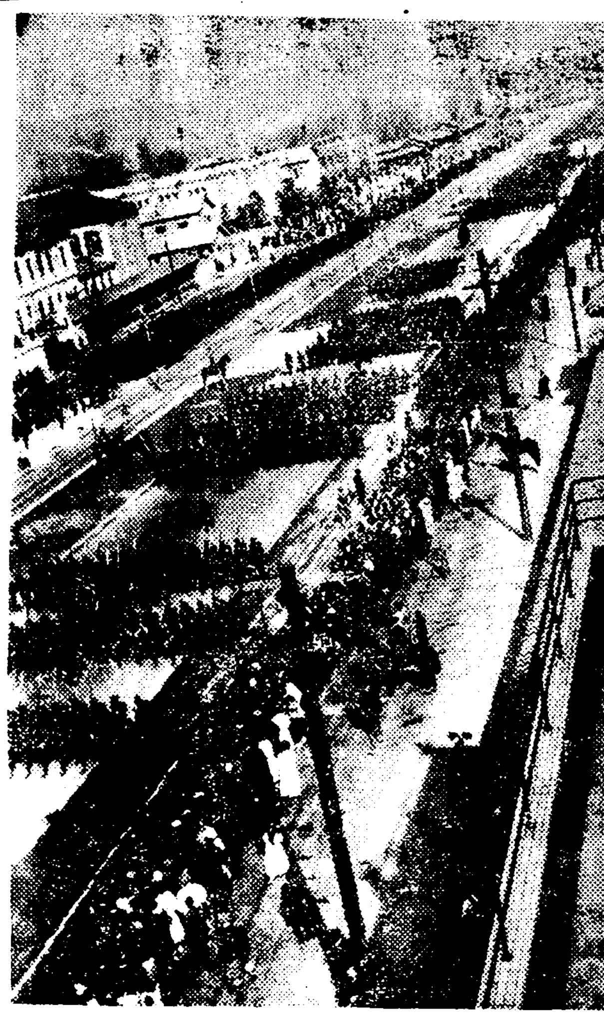
동인등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은 십일 오전열한시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 향천(香川)검사의 담임으로 제일회공판이 열렷다 먼저 전보현 박영선 한창히 세명부터 심리를 시작 하엿는데 박영선은 검사국에서나 예심에서는 전연 사실을 인정한 일이 업고 룡산경찰서(龍山署)에서는 심한 취조에 못견디여 되는대로 대답한것이라고 강경히 부인하고 전보현 한창히량명도 동무끼리 도서관 흥공원에서 자조 맛난일이 잇스나 다만 우정으로 맛난것이오 공산주의 비밀결사를 조직할 의론을 하려고 모엿든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엿다

이사건공판에는 변호인도한명도 업고 피고들의 친척한명도 방청하려온이도 업섯다 피고중 한창히는 신병이 잇기때문에 걸상에 안저서 심리를 비덧다

自稱二、二六事件"멤버" 旅費强要"行動"

野中大尉와는莫逆之間이라고 本町署서引致取調

이、이륙사건(二、二六事件)을루대삼은 사기한이 구일밤본정서(本町署)에 인치되엿다 그는본적을 복강현전천군 금전촌(福岡縣田川郡金田村)에 두고 주소일정치못한 상전학차(桑畑鶴次)(三五)인데 지난팔일 시내영락정(永樂町) 이정목카페―바론주인을 차저 나는 육군관계자인데 이이륙사건(二、二六事件)의주인공야중사랑(野中四郞)과는 친밀한 동무이며금번사건관계자에한사람인데 금번모사명을 가지고 만주지방으로 가는도중 사변당시 반도중상으로 몸이 괴로워 경성(京城)에 나리엿는데 동경에드니 길천(吉川) 전중(田中)등 우익(右翼) 인물들이 당신을 소개함으로 차저온 것이라하야 은근히 다액의 금품을요구함으로 그주인은 애매하게 거절하엿는바 그러면 이사건은국가비상시의 중대한 계획이니절대로 군부 혹은경찰에 알니워서는안된다고 자못 엄중한 함구령(緘口令)을 네리고 도라갓는데 이것을안 본정서에서는즉시 범인의탐사중 구일 황금정(黃金町) 이정목 은송정(銀松亭)에 재차 나타나 전기와가튼 수법(手法)으로 금품을 사취할려는 현장을 인치당한것으로 그는작년십월이래 조만(朝滿) 지방을 방랑한 집업는 방랑자로 여죄가만흐리라하야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라한다



陸軍記念日

십일은 륙군긔렴일(陸軍記念日)은 전시가에 군국적색채로 넘치게하엿다 조선군사령부의 지휘하에 륙상에는 군대와학생등의 분렬식이잇섯고 공중에는 폭격전에 공중분렬식이잇섯다 오전십시경부터 총독부압헤서 군대의분렬식이잇고 이어서 시중행진을하엿는데 전차까지참가하엿다 또비행대는 전투긔와 경폭격긔가 오전십시경, 시중폭격전을하고 한시경에는 공중분렬식을하엿다 또오후한시부터는 해행사(偕行社)에서 긔렴식이잇엇다 (사진은 긔렴식을 행진하는군대)

中等校合格者

京城女高 (一百六十五名)

一崔弼姬 三金永喜 四劉癸相 五曹哲舜 八金德姬 一一曺圭勳 一六宋基淳 一九金仁實 二三高仁淑 二八劉惠卿 三五孟時業 三六尹甲淳 三七白富鉉 三八李福順 三九金信愛 四二李貴明 五一李順吉 五四李貞姬 五五朴淑玉 六五安敎植 六六張琮子 七〇金蕙蓮 七一金敬順 七二崔相德 七三崔金鋼 七四金順伊 七五金小仁 七六李周淳 七七閔琰植 七八玄玉燮 八二鄭淳華 八三崔華星 八四金順明 八五玄英順 八六李貴玉 八七金慈均

八八朴瑞玉 八九朴曙淑 九〇李貞媛 九一李熙媛 九二邊貞琳 九三金銀嬉 九四孟桂鈺 九五南玉童 九七鄭 琳 九八曹季漢 一〇一李和子 一〇二李錦子 一〇三裵仁英 一一一金貞嬅 一二四金榮順 一二七柳英菊 一三〇南甲珍 一三四吳玉順 一三八李懿羅 一三九趙玉姬 一四〇李鳳王 一四一權善澤 一四二徐孝錫 一四三吳鉉順 一四四柳基順 一四五崔蘭植 一四六崔南姬 一四七崔世卿 一五一黃演順 一五二洪貞順 一五四張英姬 一六一韓東王 一六二崔陽順 一六三朴亨基 一六四金媛順 一六五李善熙 一七一姜仁愛 一七七金鍾淑 一九二李起淑 一九五千順子 一九七崔玉姬 一九九高明淨 二〇三韓春熙 二〇四林銘奎 二〇五金仁實 二〇六金同淑 二〇七安熙玉 二〇八金峻熙

二一〇金尙權 二一九朴香秀 二二二李貞振 二二七鄭蕙順 二三四李寧達 二三五韓英錫 二三六李明子 二四一崔明媛 二四二李仙同 二四三金初悅 二四四安貞熙 二四六朱順喜 二四七方英媛 二四八孔梅珠 二五〇金淑賢 二五二李愚貞 二五四尹華鉉 二五八崔鋼順 二六一姜順鳳 二六二李玉姬 二六四金泰順 二六五白榮得 二六六陳明子 二六七玄玉卿 二六八李玉卿 二六九趙淑衡 二七〇李鍾仁 二七一金正子 二七二安時英 二七三金正仁 二七四鄭壬生 二七五申鉉雲 二七七黃圭順 二七八朴貞淑 二七九安眞敬 二八〇李興禮 二八一李玉卿 二八二趙源貞 二八三南甲錫 二八四朴仁緖 二八五李秉婉 二八六尹壬淑 二八八權泰玉 二八九李貞基 二九〇權英洗 二九二崔英順 三〇二張淑昊 三〇三金高三

三〇六金鶴姬 三〇八韓京善 三〇九崔愛卿 三一四閔丙琦 三一五朴淑惠 三一八羅福英 三一九曺順子 三二一李恒順 三二四李啓淑 三二五金和圭 三二六李貞姝 三四一崔貞淑 三四四李泳玉 三四六尹德妊 三四八姜享淑 三五〇殷金蓮 三六五呂福鉉 三六七任華公 三七一鄭夢花 三七四宋仁鳳 三八〇李相姬 三八二朴陽均 三八四金貞子 三八五韓貞順 三八六李泰禮 三八七金顯淑 三八八金 珠 三八九柳珠鉉 三九〇安鎬吉 三九二安英基 三九三金徵濟 三九五柳學淑 三九六尹泳南

松の實キャラメル

京師普通科 (二十七名)

五四一姜振錫 六九九金榮培 七三九金濟昌 五一九金錫駿 七六一元裕奭 五二八申允均 五二六成大永 五三一鮮于燁 五六六張星斗 七八六趙炳華 六七七趙相禎 七三五陳允福 五二一丁殷模 七七五鄭龍根 五〇二南圭郁 五一三朴圭宰 七〇六朴相道 七七七朴炳稔 六八六李永秀 五四五李觀海 五一七李敞衡 六六三李鍾煥 七七八李敏春 七二六李秉緖 六六七李丙球 六三八李手玉 五三一李容範

今日明治町의異變

爆發的朗笑 殺人的憂鬱

暴落! 暴落! 暴落!

杜門焦燥十四日만에開場된 株式街에大激震!

이월이십륙일에 동경사변(東京事變)이 돌발하자전국의 모든취인소(取引所)는장을 세우지못하고 불안과 공포에싸여어떠케될것인가를 몰라하다가 사건이일단락되어 바란군이 귀순함에딸어 기미 면사、생사、사탕、(期米、綿絲生絲砂糖)등 상품(商品)취인소는 삼월이일에 비교적평온하게 다시 문을열엇스나 주식(株式)취인소만은 후게내각(後繼內閣)이누구에게로될가 신내각의 대장대신(大藏大臣)이누가될가 재정경제정책(財政經濟政策)이어떠케변할것인가 모든것을 알수업는 때문에 의연히 굿게 문을 닷고 신내각이 성립되기만 기대리고 그동안에 매매약정(賣買約定)하얏든것을 중요한 주식에 대하야 반수를 해약(解約)=이것을 解合이라함) 하고잇섯다 그런데 광전외상(廣田外相)이 총리대신으로 마장권은총재(馬場勸銀總裁)가 대장대신으로 결정됨을 듯고 고교재정(高橋財政)을 대체로 계승(繼承)하고 약간의 적극책을 쓰게되리라고보아 이것을 호감(好感)하고 칠일에는 문을 열 작정이엇스나 군부(軍部)의 반대로 내각이 얼는 성립되지 못함을 딸어 주식취인소는 초조히 불안중에잇다가 구일 군부와 타협되어 내각이 성립됨을 보고 십일에 전국주식취인소가 일제히 굿게닷첫던 문을 열엇다。이날 이십륙일에 문을닷은지 열나흘만에 문을 연주식취인소는 살풍경을 연출하엿다

경성황금정에잇는 조선취인소증권부(朝鮮取引所證券部)는 정각인오전아홉시 이십분부터 립회(立會) 되엇는데 광전내각이 성립은 되엇스나 군부의타협 조건을 보면 방대(尨大)한 군사비(軍事費)를중인한것을 전제로한것이만큼 이후 악성(惡性)인플레의염여가 농후하고 증세(增稅)가단행될것을 비관하야 동경대판으로부터 들어오는 전화가 주력주(主力株)인동신、대신、종신(東新、大新、鍾新)등주식의 대폭락을 전하자 장내는 살기를띄이어 사던사람은 큰손을보고 내던지고 팔엇던사람은 의외의 큰리를보아 대 혼전(混戰)으로「야리、가이」소리와아우성소리 손벽을서로두드리는소리로 살풍경이엇다。

루기주(投機株)의 대표인 동신주(東新株)는 문닷기전 시세가 일백륙십원 칠십전이엇든데 일백사십사원 구십전에 십오원 팔십전이 폭락되어 시작된후에도 작구떠러저서 백사십원이깨어지고 백사십칠원에 까지 문닷기전시세에 비하야실로 이십삼원칠십전의 폭락이오 조신주(朝新株)는 이십칠원삼십전、대신주(大新株) 칠십팔원오십전 (鍾新株) 백사십오원 칠십전 일산주(日産株) 륙십팔원사십전으로 일제히폭락되어 이것을문닷기전 시세에비하면 조신이십일원사십전 일산오원구십전이 각각떠러젓다 이리하야적고크게 손본 사람들의 얼골빗은 새파랏케질니고탄식소리가 시장안에 차서잇섯고 대혼란리에 오후일시전장(前場)을맛치고 후장(後場)은장부정리로 휴회(休會)하얏다

거리의暴漢은 아무래도自動車

昨年中道內交通事故千餘件中 六割이自動車所爲

경긔도보안과에서 발표한 통계를보면 작년일년동안에 경긔도내에서 발생된 교통사고(交通事故)총수는 일천칠십칠건으로소화구년중의 총수일천구십구건에 비교하면 이십이건이 줄엇스나 소화팔년의 팔백오십삼건 소화칠년의 구백칠십삼건에 비교하면 상당히만히 증가되엿다 교통사고를 제일만히 일으키는것은 자동차로 사고총수의 반륙백칠건에 달하야 제일위를점령하고 전차의 일백륙십삼건、자전거의 일백륙십삼건이 그다음가며 긔차、인력거、우마차、「구루마」날 말미암은 사고는차못젓다 그리고 사고발생시각으로보면 오후네시부터 오후여섯시까지사이의 일백칠십구건이제일만흐며 오후두시부터오후네시까지의 일백륙십이건、오후령시로부터오후두시까지의 일백사십칠건이 다음가며 오전두시부터 오전네시까지 오전네시부터 오전여섯시까지는 각각열건식이다

일년열두달중 사고가 제일만히발생되는달은 벗꼿피는 사월이 제일만허 일백십삼건이나되며 십이월이 제일적어 륙십오건밧게안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변령으로보면 열살부터 스무살까지가 제일만허이백 칠건이며 오십세이상 륙십세미만은 륙십삼건으로 가장적다

수자가 보혀주는바와가티 교통사고는점점 느려가는 현상임으로 도보안과에서는 관내각경찰서와 련락하야 적극적으로사고방지책을강구할예정이라고한다

天氣豫報

槪況 大陸에 잇는 高氣壓은 南下하야 黃河揚子江間에서七三미리를 보이고 그곳으로부터 氣壓은 朝鮮地方에들어옴을 따라漸次로 나저잇다 滿洲와 朝鮮은 大體로 天氣가 良好하다

豫報 京城 地方今夕은 개이고 明日은 조금흐리며 京畿 全南도갓다

昨日 最高 一度
昨日 最低 零下七度九
今朝 最低 零下九度四
正午 零度四

運動競技

올림픽視察團募集

日本YMCA에서는 日獨YMCA親善을爲하야第十一回올림픽大會視察團을組織하고大會視察을마친後에는 伯林、巴里、倫敦各YMCA를訪問하기로되엿는데 一般規定은 다음과갓다

◇參加定員=卄五名◇一人費=一千八百圓◇申請期日=三月末日(但 定員될때에는期限內에도 申請拒絶)◇路程=往路는 七月十五日東京出發 西伯利亞經由 歸路는 海路十月十二日 神戶到着◇申請場所=東京神田區美土代町YMCA體育部

伯林大會開催中 減食日制度中止

【伯林發同盟】獨逸政府에서는國民의勤儉節約生活을 促進키爲하야 一個月中 一日을減食日로制定하고 當日에는 全國民의晝食은 바다시 한접시로 限定하야 거기서나오는 剩餘金을救貧資源에 充當하고잇든바 今夏로迫頭한 올림픽大會를 마지하야 獨逸로雲集할 外國人의便宜를돕보아 大會會期中에는 減食日을 中止하는法令을 宣布하엿다

스키敎師出場禁止解決

【伯林七日發電通】지난二月十四日『가르미쉬·파르텐키르헨』에서 열린 國際스키―聯盟第十四回 總會席上에서 問題되엿든올림픽大會에 스키―敎師出場에關한 反對決議는 國際올림픽委員會側의 拒絶的回答으로 因하야 그前途가 憂慮中이든바 그後兩者間의 圓滿한交涉이잇서겨우敎師出場禁止를決定하고解決하엿다

樺太廳官營採取 眞品 補精强壯劑 海狗腎 請求次第說明書進呈 釜山府草梁町三二二ノ三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二一九一番·振替釜山七九二二番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本校眼科敎授 本院眼科科長 擔任 檢眼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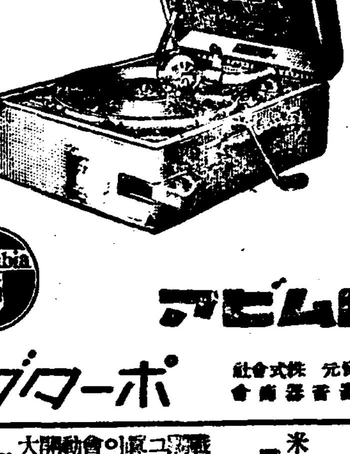
筆生 遠近男女自宅에서할수잇는副業 ... 大阪住吉區天王寺町 隆文館

恩給 長期據置廉價立替 他에比較치안케最有利 信用으로 照會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男女老少누구나 容易한 職業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募 大阪天王寺區堂ヶ芝町 福榮本舖

傑作盤을網羅한 三月新譜 (二月廿日發賣) 追憶의幻影 專屬 蔡奎燁吹込 콜럼비아·레코―드

이當當한音量! 本格的포―타플로서斯界를壓倒하고잇는 傑作器! 第二〇三號 第二〇四號 ¥35. ●演奏에는『콜럼비아針』을! ●高音低音其他六種엇 コロムビア ポータブル 製造發賣元 日本蓄音器商會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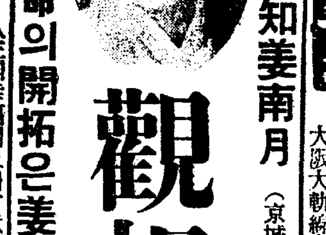
寧邊崇德學校生徒募集 ◇男子部 第一學年約五十名 ◇女子部 第一學年約五十名 ◇出願期日 三月二十八日限 ◇試驗期日 三月三十一日 平北 寧邊 城內

普明農民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十五名 ▲出願 三月二十九日 ▲試驗 四月五日 ▲詳細要二錢切手 平南 龍岡郡 多美面

普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一、第一學年約百名 一、試驗期日 三月十六、七兩日(十六日學術十七日口試) 一、出願期日 三月十五日까지 (京城府惠化洞一番地詳細要同本校)

明倫學院生徒募集 ▼本科約三十名 ▼中學卒業者에限함 ▼出願期限 四月五日 ▼研究科若干名 漢學優秀者에限함 詳細는書問 (京城崇三洞五三本院)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團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萬人共知姜南月 (京城昌信洞)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工業은면 人生의幸福이오니有意諸氏는二錢切手添送하시 ◆洗濯石鹼製法◆增酒法◆鍍金法◆化粧品製法에關한規定書無料送呈함 京城府長沙洞一九 泰昌工業所

花劇場 三月十一日부터特別大公開!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大劍戟篇 怪傑데아보로 米國콜럼비아社超特作無聲版!! 戰爭活劇 永遠의幸福 現代悲劇 刑を踏む女 監督 小澤得二氏 主演 琴糸路 麻浦桃花洞 電龍 三三番

第一劇場 三月十一日부터三日間大公開 新春本格的大名篇當當히上映 每日三回興行 正午、三時半、七時半 大衆料金 階上 二十五錢 階下 十五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豪華船 太西洋을橫斷하는豪華船、船上에서일어난戀愛合戰! 殺人投機의海洋大活劇篇! P·C·L社全發聲 矢倉茂雄 監督 絹の泥靴 竹久千惠子 千葉早智子 主演 푸류스도릿크特作無聲版 決死의奮戰 鍾路四丁目 電光

浪花館 三月十一日より三月十七日まで 上映時間表 ひるの部 夜の部 疾風 森の石松 私の兄さん ▲私の兄さん 林長二郞、田中絹代 下加茂サウンド版 ▲疾風森の石松 大內弘、花岡菊子、堀江淸子 ▲與太者と若夫婦 蒲田トーキー 磯野秋雄、野村浩將作品 正三郞、坂本武、飯田蝶子 洋劃專門

訃告

崔昌學大人從二品以宿患本月九日(陰二月十六日)午前九時於鄕里平北龜城邑內自宅別世玆以訃告

發靷 三月十五日午後一時
永訣式 三月十五日午後一時二十分自宅廣場
葬地 平北龜城郡龜城面院興洞先塋

昭和十一年三月九日

嗣子 孫 曾孫 姪 甥 親族總代 友人總代 護喪

崔昌學殿嚴父葬儀御用達社員 現地(龜城)出張 株式會社 京城葬儀社 電本(2)一五六七 四二四二番

胃腸・榮養

わかもと
와가모도

結核の治癒

榮養劑의効果

結核、消耗性疾患에 衰弱恢復의目的으로써 使用되는榮養劑는、아미노酸、카르슘、鐵、等의單一榮養素를主成分으로한것、혹은肝油와가티、삐타민을主로한것等이잇다。勿論各各相當한効果는 認定하는바지만、元來人體에必要한榮養分은、모ー다日常食物中에含有되야잇슴으로써、胃腸이强壯되야 偏食하지안는분에對하여서는、特히榮養劑를攝取할必要는업는것이다。

그러치만 結核과가튼消耗性疾患에잇서서는、例外업시胃腸衰弱을끼게됨으로써、消化機能을疲勞케안코 吸收될수잇는榮養劑를 服用하는것이조타。

死亡四日前呼吸困難의狀態에잇는것을撮影한肺結核의렌트겐像

그런데이런대에는 衰弱한胃腸機能에 活力을給與하야 消化吸收能力의 强化를圖하는것이 急務이다。

結核症狀의消退

最近治療界에잇서、從來의榮養劑에代行되는活性헤ー께菌劑『와가모도』가推奬되고잇는것은、此間의消息을 말하는것이며、即『와가모도』가一面에이서 그組成中에 아미노酸、구리코ー겐、카르、삐타민等의 貴重한 榮養素를包含하야、優秀한榮養劑가되는特色을發揮하고잇는反面에、强力한細胞原形質賦活力을갓고잇스며、衰弱한胃腸壁을覺醒식히며、消化吸收機能을 强化식혀 日常食物中에서 自力으로써、健康을維持하며 衰弱을恢復식힘에 充足한 榮養成分을攝取하는힘을주는榮養促進劑임으로써이다。

『와가모도』의 投與에依하야、胃腸의 重壓感이 除去되며、爽快한空腸感을 깨닷게되는것은 實驗者가 모다同意하는바이다。이것은『와가모도』의 細胞原形質賦活力에依하야 覺醒强化된消化機能이、旺盛活潑한活動을 開始한證據가되는것이며、蒼白한顏色은 紅潮하며、削瘦된肉體도肥胖하야、發熱、盜汗、咳嗽等도 漸次로消退되는것은、榮養促進力에依한體力抵抗力의增加가、結核病原을 壓倒식히게된結果인것이다

頭腦の明快

瑞西軍隊의實驗

바우만及슈완덴博士

(前略) 余等은百九十三人의瑞西國兵士에對하야、教練前後의『血球沈降速度』를헤ー께菌劑를給與한者와 給與치안흔者의二群에分하야 測定하엿다。그結果헤ー께菌劑를給與치안흔群이 教練後의疲勞가進하고『血球沈降速度』가 顯著하게 增大한것을보앗다。

『血球沈降速度』가一〇耗以上이되게하는데에는 一日五瓦의헤ー께菌劑를 給與한때에는『血球沈降速度』五耗以下가되는것이알여젓다。이以前의 研究에對照하야、夏季는五瓦 冬季는一〇瓦의 헤ー께菌劑를 服用식힘에따라、教練에依한 過勞의害을除去식힐수잇다고하는結論을어덧다。(後略)

過勞防止와能率增進

前揭의文獻은『白球沈降速度』의點보다도、헤ー께菌劑가、過勞防止、能率增進에効果잇다하는것을 實證한것인바、베루린大學코라츠오氏、리스氏、바요氏等은、筋肉及肝臟內의 구리코ー겐量을測定하야、헤ー께菌劑의服用이肉體의運動量을增加하며 運動에依하야생기는 疲勞의緩和에著効가잇다고하는것을 報告하엿다。

最近 日本에잇서서도軍隊、工場、學校、스포ー츠맨等사이에 過勞로부터오는健康破壞者增加되고잇는 現狀에鑑하야、活性헤ー께菌劑『와가모도』의 常用에依하야 그害를防止하며、諸種의疾患特히核結防止의實을나타내고잇는事實을、흔히들게되는것은 가장欣快한일이다。

慢性肺炎에依하야有害細胞를生한血液(七百倍擴大)

學校、스포ー츠關係醫師等에 特히 注意를要하는것은『와가모도』의常用이肉體를運動의最良條件에로引導하며、記錄을向上식힌다고하는點이며、前年로스안젤스에서열인 世界올림픽大會、우엔겐에서열인 萬國學生스키ー大會等에出場한 우리選手가 本劑를携行常用하야、飛躍的好記錄을나타낸事實은、아직도世人의記憶에 남어잇슬것이다。

疲勞の輕減

腦障碍治療의根本要件

肉體의虛弱者는 救出되지만、頭腦의虛弱者는 救出되지못한다고하는 迷蒙한 俗諺로써뿐만아니라、治療界에잇서서도오래存在하고잇다。

頭腦도 또한 肉體의一部로써、組織細胞의 新陳代謝에依하야、生活을持續함으로써、다른部分과 同樣의 榮養과 休養을要하는것은 말할것도업는것이고 肉體의榮養에關하야는 細心한注意를다하는사람도、頭腦에對하야서는 比較的無關心하다、腦神經衰弱과가튼 頭腦의機能障碍는、肉體의機能障碍와同樣腦皮質의細胞組織의疲勞 혹은 衰退에基因하는것임으로써、이細胞에適當한榮養과 休養을給與하며、그機能의再建强化를圖하는것이治療의 根本要件인바、從來의療法은 오직鎭靜劑、催眠劑等을 使用하야、一時的으로 症狀을緩和식히는處置에 不過하엿섯다。

受驗工夫의能率增進

活性헤ー께菌劑『와가모도』가 肉體의 組織細胞에 活力을주어、衰弱된機能을 甦生식히는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을 갓고잇는것은、頭腦의組織細胞에對하야서는 同樣이며、本劑가腦神經衰弱을 輕快식히며、虛弱頭腦를改善强化식히는効果를 發揮식히는것은 當然한일이다。

더욱『와가모도』가、含有한優秀한 有機無機의榮養素、삐타민等은、頭腦의 組織細胞에 榮養을供給하야 新陳代謝를 旺盛케함으로써、細胞原形質賦活作用과함께、疲勞恢復을 速하게하며、旺盛活潑한 活動力을주게된다。精神勤勞者、特히 受驗期에臨한 學生에게 服用식히면、短時間의 工夫로써 高度한 効果를엇게되는것이다。

結核熱과解熱劑

結核에依한發熱現象은 患者가 가장焦慮하는바이고、熱이업스면 疾患까지도 治癒되는것으로알며、때로는 解熱劑의投與를要求한다、따라醫師도 그에따라 더욱解熱劑의濫用 에치우치게되는바、結核의發熱은、結核菌이 體內에이서서 產出하는 毒素와、體蛋白의分解에依하야 생기는 有毒物質이 溫中樞를 刺戟식히는結果가됨으로써、結核菌 그自體의勢力이 挫絶되지안는限엔 疾患이 治癒되지안흘것은勿論、解熱의目的도 充分히達케 안되는것이다。

解熱劑의作用은 溫中樞를 痲痺식혀 溫의生產을抑制식힘으로써、同時에他의中樞에도 痲痺的活動을식힘으로써 **新陳代謝를阻害** 식혀、食慾不振이나 胃腸障碍를惹起식히기쉽다。또한 溫의排泄를促進식히는 解熱劑는 안치피린、사루치ー루酸劑와가튼、體內物質의分解를 旺盛케함으로、連用할際는 體蛋白과가튼衰弱을 增惡케할뿐아니라、오히려 溫의生產을增하는 反作用도잇다。

이런때에 解熱劑의副作用을 緩和하며、그効果를充分하게 發揮식히는데에는、各種의解熱劑를 混用함과同時에、活性헤ー께菌劑『와가모도』를併用하야 處方하는것이 **最良의方法으로써** 醫療界에常用되고잇다、『와가모도』의効果는 臨床的으로實證됨으로써、그詳細한機轉은 아직도充分하게闡明되지못하엿다、헤ー께菌의갓고잇는細胞原形質賦活力이 痲痺的藥劑에對하야、消化機能을 覺醒식혀 細胞에活力을賦與하며、分解的解熱劑에對하야서는、榮養促進、消耗成分補給에依하야、衰弱을防止하는것이다。特히『와가모도』의溶菌、殺菌力이 直接結核菌의勢力을挫絶식히며、發熱의原因을 除去식히는 作用도、充分히認識식혀야될것이다。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粉末九〇瓦
錠劑三〇〇錠　一圓六十錢

全國藥店에서販賣하는바 直接發賣元에다送藥을請하실분은藥價만送金하시면곳一個라도付送하여드림니다。

東京市芝公園大門際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一〇〇番
電話芝代表一七一一番

第2回當籤發表

御待하시든第二回抽籤은、第一回抽籤番二月十五日까지到着한二十萬枚로써締切、二月二十日執行한左記의분들이 當選되엿다、그後의到着分은第三回抽籤에繰入하오니 다음發表를기다려주시오。

一等

(ね組三〇六八四) 函館市榮町四〇 中尾政吉殿
(よ組六三三五四) 東京市江戶川區東小松川一ノ一六五 郷土宇八郎殿
(ぬ組一六六八九) 愛媛縣溫泉郡高濱港 大塚せん殿
(ぬ組八二四五三) 神戶市須磨區下山手通九丁目五〇 中須賀國義殿

二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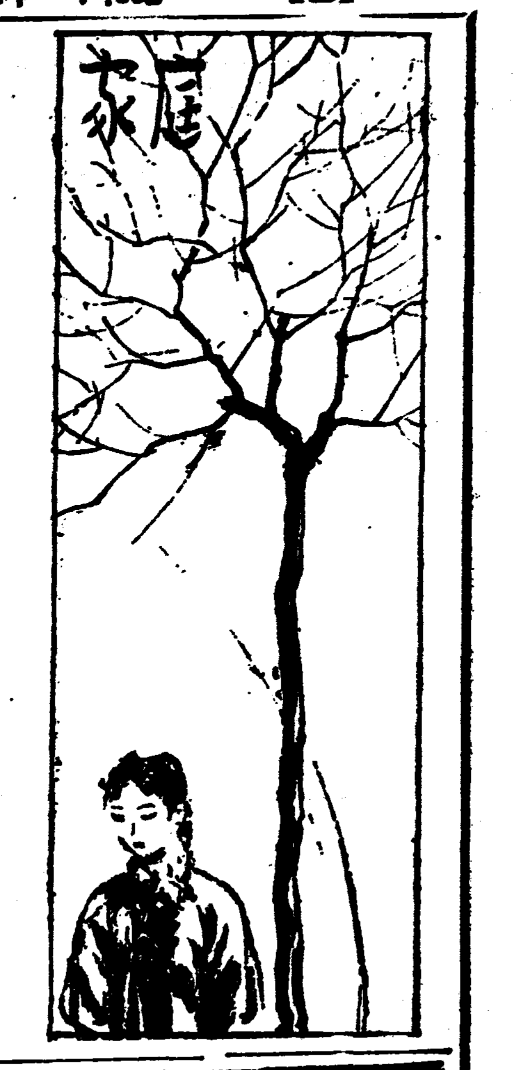
(い組八一五五一五) 名古屋市西區中通町北一ノ二二 羽淵谷一殿
(は組九六三〇三) 岐阜市錦田町二丁目 篠田岩造殿
(と組八三八二九) 京都府福知山町 福知山郵便局支部 中川幸助殿
(ち組五三九〇〇) 函館市鶴岡町十九 中田常太郎殿
(ぬ組六一三三八) 山形縣舊岡町 石井廣殿
(ぬ組三一四〇九) 兵庫縣山崎町 三木豊治殿
(れ組八九九九四) 大阪府四條畷府立高等海員學校 川北正一殿
(そ組一六一五一) 北海道深川町新市街 和田住太郎殿

三等

▲東京・大久保直治殿(は五五九七八) 有田清殿(た一二五〇一) 前田孝一殿(ち一八三〇) 服部一夫殿(り九三三三三) 西川一男殿(に三一八五) ▲島根・小林君代殿(を三一六) ▲群馬・武榮喜久次殿(ろ一八四二一八) ▲北海道・佐々木つな殿(ろ九八九〇二) 松井忠雄殿(よ九三五八七) 西尾和夫殿(へ三三九五〇) 川西よし子殿(を八五〇〇) ▲京都・高橋ふく殿(り一五四一九) 北村榮三殿(ほ一九八〇三) ▲長崎・野中健吉殿(ち一七四三三) 片岡正人殿(り八四三三九) ▲福岡・尾形ラク殿(い七五九二) ▲富山・岡本重良殿(へ七六三七二) ▲大阪・井上常太郎殿(へ二〇〇九三) 吉川訂殿(れ八四七八一) 多田殿(わ四九〇二四) 岩田勇殿(い一七六六五) 中野豐三郎殿(た六八八一七) 濱田一殿(へ六六七三五) ▲福井・阪東幸太郎殿(わ六〇一五) ▲樺太・佐々木要作殿(た九〇九五六) ▲秋田・佐藤くに殿(た一一三四八) 牛井茂明殿(ろ三四三三七) ▲福島・寺門誠殿(を二〇〇三六) ▲鹿兒島・山口キミ子殿(と八九九一五) ▲岐阜・早崎岩郎殿(た四六四五一) ▲奈良・久保田金次郎殿(へ一八〇〇〇) ▲愛媛・濱中榮一殿(ぬ一三一九八) ▲宮城・阿部資吉殿(か七一五八五) ▲青森・加藤武雄殿(へ九七九五四) ▲八幡・上林稔一殿(ろ五八九二) ▲名古屋・永田英一殿(か七六八九三) ▲三條・中澤晋一郎殿(ほ七五三一八) ▲兵庫・小西喜代治殿(か三七八六一) 森山精雄殿(に二七六五一) ▲朝鮮・高瀬峰永殿(よ一二二七四)

四等

四千名은氏名發表를略함賞品發送으로代行함



『홀몬』업는날엔 청춘이가버린다

그러나요새흔한 젊어진다는약 물로 초로알지는말일

城大醫學部皮膚科硏究室 鄭桂陽氏談

요세 현대적생활을 한다고하는사람치고 『홀몬』이란말을 입에담지안는사람은 업슬것입니다 이가티 『홀몬』은 이시대의 가장총애받는 여신이되고말엇습니다。

『홀몬』이 위대한직책을다하고잇다는것을 확실히알게 되것은 최근의일입니다。우리몸은 신경에의하야 지배되어잇는반면 『홀몬』이라는 일종의화학적 물질에 의하야 조절되여잇는것입니다。

이『홀몬』이란여신의 작란으로인하야 우리몸은 온전한 생활을 계속하고잇게됩니다。다가티 『홀몬』이라고하야도 여러가지 종류가잇스나 요새사람들이 말하며 총애하고잇는것은 소위 성『홀몬』이겟습니다。고환으로부터 나오는『남성홀몬』란소로부터나오는『여성홀몬』이 이것입니다。

성홀몬에의하야 남녀두성은 구별되는것입니다 그 가장 뚜렷한례를 우리들은 사춘기(思春期)에잇는 남녀에게서 특히 이러한 나이에잇는녀자에게서 더욱분명히 볼수잇습니다。십륙칠세가되면 이성이 그리워집니다 무슨특별한 용망으로서가 안이요 자신도 알수업는심리로 이성이 그리워집니다。그러나 진작서로대면하야 만나면 얼골이 붉어지고 이러타할말한마디 건니우지못하고 몸을 진정할수업고가슴은 공연히 설레게됩니다 더욱이 요새가티 봄이 바야흐로 차자오렬때 산들부는바람에 날리는 치마줄기로 나려흐르는 자기몸을 자기스스로 부끄러워하게됩니다。산들부는바람에 나무입새만 흔들녀도 가슴이설레고 때가끔 가벼운한숨조차수이게됩니다。참으로 천진난만한는 소녀시대는 임이가고 가늘히 섬세에눈뜨고 가벼운 우울상태에빠지게됩니다。

이리하야 문학서류 특히 연애소설 혹은 남녀의순정소설들을 탐독하게되는것입니다。문학소녀가 생기게되는것입니다。녀자는 자기혼자 속깁히 엇던막연한대상을 가삼에안고 잇게되며남자는 입때까지 방안에서 자기동생들과만 놀줄알든것이 밧그로 자조나단이게됩니다。갑작히 자기몸을 단장하기시작합니다。특히 여지에잇서서 십자가지며 오래시를 유난히 주의하게됩니다。체경압헤、서는수가 자

섬리와 태도가 이가치 변함뿐만안이라 육체상에도 뚜렷한변화가오게됩니다。제일먼저 어린애가튼 목소리가 변해집니다 어린에 가까운 목소리로 변합니다。

얼골에 그리고 몸전체에 기름이붓고 윤택을 띄우게됩니다 특히 여자는 첫이 붓고 커지며 몸전체에 지방이 붓허 처녀다운 보드러운 곡선미를 보여주게됩니다。몸전체가 둥거러운 맛을 보여줍니다。가장 뚜렷한 증거는 월경이 오는것거입니다 월경을 하기시작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여자로서 완전한 한개가 되는것입니다。정신상으로나 혹은 육체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변화가우리에게 가장총애를 밧고잇는『홀몬』이라는 여신의 선물이랍니다 성『홀몬』이 우리몸을 몰하자 우리몸은 갑작히 크나큰 변화를밧게되는것입니다 한개의 완전한사람이되라는 전재인것입니다。

가치이서보는눈 ⑥

"거트로는부그러워해도 속으로는연연해"

❷ 사춘긔녀성이 남성을대할때

七、갑상선(甲狀腺)몸줄기(頸部)압헤 갑상선이라고 하는것이잇는데 그것이커집니다。

八、정신적변화중에 제일 현저한것은 이성에대하야 부끄러운생각이 생기지만은 속으로는 연연한생각이 생겨서 얼골에 분갓든것을 발니서 화장을 하게됩니다。

요컨대 녀성은 사춘긔에 도달함으로써 생리학적으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녀성에 특유한발달을 하는것입니다。

그와가티 녀자에게 특유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는원인은 도대처 어대잇는고하면 녀자생식기의 하나인란소(卵巢)에서 나오는 일종의『홀몬』작용에 잇는것이니 이란소라고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위에잇는가를 가히 짐작할수가잇겟습니다。

다음에는 남자의 사춘긔에오는 여러가지 특유한 점을 써보면 제일 생식긔가 급작히 발달하며 후두(喉頭)혹은 목젓이 커짐에따러서 말소리가 변하야지며 골격(骨骼)이 남자에특유한 웅대한 발육을하게되고 또 이성을 사모하게됩니다。

그와가티 남자가 사춘긔에 도달하야 남자에 특유한발달을 일우게되는후로부터는 길게그상태가 계속하게되는것입니다。늙어지면 다소 정욕이 감퇴되야 이성을사모하는정도가 적어지는것이지만은 녀성에게 보는바와가티 월경이 업서지는시긔에 상당한 시긔는 남성에잇서서는 불수업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남자는 녀자와달너서 사춘긔이후에는 종신토록 생식할능력이잇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칠십노인이 아들을 낫는례가적지아니합니다

남자의 사춘긔의 변화도 역시 홀몬의 작용에의하는것이니 얼마나 신긔한현상입니까

동물에잇서서도 사람의 사춘긔와가튼시긔를 볼수가잇스니 닭과 사슴과가티 암놈과 숫놈의 구별이명백한동물에잇서서는 소위사춘긔가되면 숫닭은 머리위와 턱아래에 큰베슬이생기고 특이한소리로울게되며 사슴가트면 숫놈에게만 뿔이나게됩니다。만일 생기때에 남성에특이한『홀몬』이 나오는긔관을 수술에의하야 떼여버리면 다음과가튼 변화가일어납니다。즉 숫닭에잇서서는 베슬도 크게나지아니하고 울음도 울지안케될뿐아니라 닭을 보와도 본숭만숭하게됩니다 또 사슴가트면 뿔이돗지안코 단히 비겁하야지며 암놈을보와도 아무런 흥미도 일으키지아니하게됩니다。

녀성동물로 말하드래도 란소를 완전히 떼여버리면 그후에 현저한변화가 오는것이니 녀성으로서의 발육을하지못하고 모-든점에잇서서 중성적(中性)경향을 보이게됩니다

이러한 진긔한현상을 리용하야 대단히 흥미가잇는 동물실험이잇스니 그것은 녀성동물을 남성과가치 맨들수잇스며 또그와반대로 남성동물을 녀성과갓치맨들수가잇다는것입니다。즉 어린녀성동물의 란소를수술에의하야 완전히 떼여버린후에 갓튼종류의 남성동물의 홀몬(睾丸)을 부쳐주면 그동물이 남성동물과갓치됩니다 그리고 그반대로 남성동물을수술하면 역시 여성과가티맨들수잇는것입니다。

만일 사람에 잇서서도 그『홀몬』긔관을 수술에의하야 떼여버리면 그후 엇더한변화가 생기느냐하면 이상 동물실험이야기와 비슷한현상이나타나게됩니다

어린때에 수술을하면 육체적 혹은정신적발육이 가장 조치못하고 사춘긔의 변령에 도달하야도 특유한변화가 오지안코근육이 연약하고 지방분이 만하서 힘이업고 목소리가 변하지아니하야 항상 어린아희목소리를 하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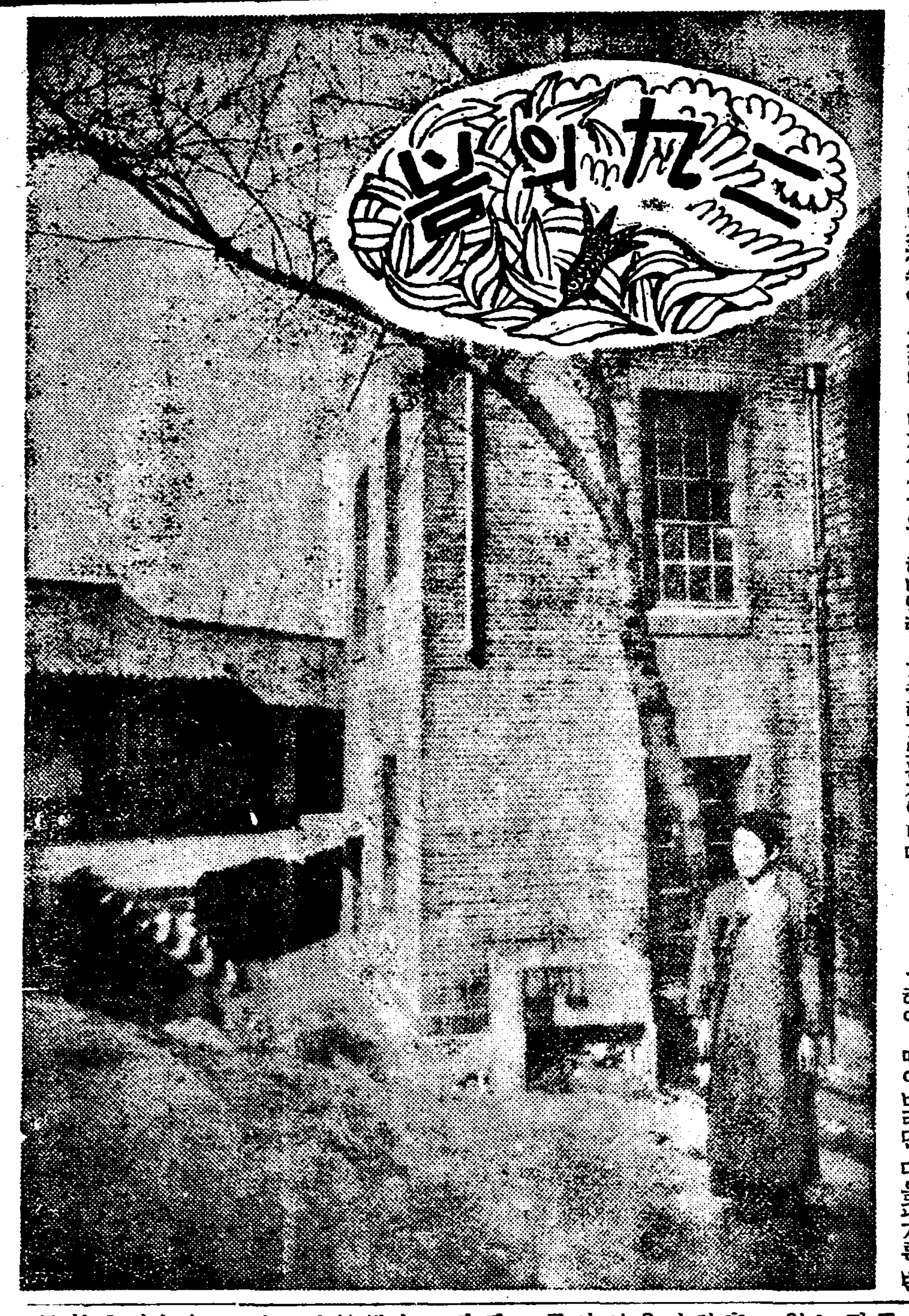
성욕가튼것은 물론업고 녀자가트면 월경이 나오지안케됩니다。

사춘긔를 지낸이후에 그러한 수술을하면 지방분이 만허지고 생식긔가 퇴화되며 남자가트면 수염이빠지고 녀자가트면 월경이 업서집니다。

그리고 성욕도 또한 감퇴됩니다。

우리조선과 지나의 궁내에서는 옛날 후궁(後宮)에 출입하는 남자의야심을 예방하기위하야 환관(宦官)이라는 중성인간(中性人間)을 맨들어서 쓴 사실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끗)

(城大産婦人科 金晟鎭)



우리차리지

노오란 개나리야。
바알간 진달래야。
어서가지에 물이오르고。
봉오리를 매지려무나。
너이가 압장서야 다른꼿도 따라피지。
바람끼는 잇서도 부드럽다。
해ㅅ볏은 얼마나 따듯하냐。여기는 양지쪽
새가와서 지저귀고잇구나。

(글쓴사람 양진우)

童話 천도복숭아 ● 崔蝶夢

입춘(立春)하루전날 서울장안은 사람의바다를 일울만치 거리마다 사람의왕래가 만헛습니다。그것은 남풍이부러서 날이 따뜻한데다가 또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풍속으로 입춘전날에는 서울장안 장사치들이 수레에다가 가지각색으로 장사를 떠라 여러가지로 장하게 아름답게 이상하게 귀엽게 자기재조껏 꾸며가지고 서울장안을 이거리저 헤매를 지여단기므로 그것을 구경하러 나온사람들입니다。그리고 엽구리에 절편칼을찬관리들은 양옥길에 느러서서 큰길로 사람들이 못나오게 막고잇섯습니다。그리고 네거리모퉁이 사람들이 만히 물켜섯는곳에는 여러가지 흉내장사이들작나각장사가 큰소리로 손님들을 불느고잇섯습니다。

그때 육조압 넓은네거리 한모퉁이에는 늙은이한분이 어른아이할것업시 열겹스므겹 짝! 둘너서서 무엇을자미잇게 구경을하고 잇섯습니다。그구경꾼중에는 붉고 푸른옷을입고 엽구리에 짤분칼을찬 벼슬둔분 관리들도 명분석기여 잇섯습니다 빵-둘나선사람 한복판에는허리가 꾸부정한 노인과 귀염성스럽게생긴 다방머리 아이가잇섯습니다。그노인은 노인으로서는 퍽 크고도 똑똑한 말소리로

『여러분! 저이득재조를 보신일이 계십닛가? 봄과여름의풀과나무를 가을과겨울에 산채가저올수가잇고 깁흔바다에사는물고기라도 지금당장 가저올수가잇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불너보십시요』하고 얼골에웃음을 띄우면서 여러사람을 빙-돌아보앗습니다。

그때여러사람중에 붉은옷입은 관리한사람이 압으로 썩-나서드니

『여보 그러면 갑이은복사한개를 빗주』하고 말햇습니다

『복사요? 아주산놈에 눈든독지안코 나무에 싹도 트지안흔이치운 겨울에 복사를 엇더케어더옵닛가?』

『여보 그게 무슨말이오。악가 당신이 말하기를 봄과여름의 풀과 나무를 가을과 겨울에 산채로 가저올수잇다고 큰소리로 떠들지 안엇소늬하고 눈을 딱! 부르뜨면서 호령을 하엿습니다

『그러치만 치운겨울에 복사를 어더케……』말도 맛치지 못하고 엇절줄을 몰랏습니다。

『이놈 너 복사를 아니뵈여주는날에는 사람을 속인죄로 붓들어다가 옥에 가둘터이다』하고 혼늅 내주고 잇습니다。

『지금 복사가 잇는곳은 일변열두달 봄분이라 풀과나무가시들고 맙는지안는 신선이사는곳 서왕모(西王母)의집 뜰이면 잇슬것이다。하날로올나가서 훔처오려보겟이다』하고 아들을 다방머리를 보앗습니다。

『아버지! 하날을 엇더케 올나갑니까?』

『응! 사다리를 놋는재조가잇지』하드니 큰궤짝속에서 길이가 백길(百丈)이넘는 가느다란 동아줄을끄내서 그끗에다가 고리를매드니 그동아줄을 하날로 향해서 던젓습니다。그랫드니 동아줄은 하날에서 누가자바올리는듯이 술-술! 다올라가서땅에는 두어자박게 떠러저잇지안엇습니다。

『얘! 나는 늙어서 올나갈수업스니 네가올나가서 들키지안케 잘따오너라。들키면 네목아지는 떠러지는날이다』하고 동아줄을 주엇습니다。

봄양장두가지

『헐리우드』금년도 류행의상입니다 외쪽——검은빗속크레입』이주재료가되고 거기에 흰점이잇는 『타페타』를배합한것입니다

오른쪽『네비, 블루』의『스카-트』에 희바탕에 푸른줄이진경쾌한옷이니 봄옷이라기보다 여름옷에가차운봄옷입니다

다발성관절염

問 저는이십세인 여자인데이년전부터 좌편어개에 담이모여서 성종되엿든것을 약을써서그것을 헤처더니 그후로팔과다리가 저리고쑤시고 무릅이빠지난것가치압흐니 병명과치료법을 너주시요 (鐵川 一讀者)

答 다발성관절염인듯합니다。각각 그원인에따라서 치료법이다르오니 위선습포나하시고 의사의진찰을 밧으십시요 (大學病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敎員講習

培花女高同窓會 主催

培花女子高等普通學校同窓會에서는 三月十日午後七時부터 敎員講習會를 市內宗橋에 開催한다는데 同窓生은 만히 參席해주기를 바란다고——

암(癌)이란어던병

사십줄에 든분들은 특히주의해야합니다 (三)

城大病院松井外科 文仁柱

위암(胃癌)

우리는 위암으로인하야 이세상을떠난 사람을 하로에도 멧사람식이나 보게됩니다。이병이 말기가되면 먹을것도먹지못하고 먹기만 하면 피를 석거다 토해버리게되니 그환자의 고통은 말할것도업거니와 그가족된자로써는 참아볼수업는지경이되고맙니다。그리고 위암의초기는 그러케 배가압흔것도아니요 단지 식욕이업다던지 먹는것이 잘소화(消化)가되지안는다던지 간혹가다가 먹는것을 토해버리다던지합니다。그럼으로 사십세이상의 사람으로써 늘 위가약하다던지 소화불량증이잇다던지하야 대수럽게생각지안는이가 만으나 그중의얼마는 위암이잇스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럼으로 속이불편한이는 간혹가다가 의사의 진찰을 바다보는것이 조치안을가요。

자궁암(子宮癌)

자궁이란 누구나 다 알고잇는여성의생식긔의하나입니다。이곳에 여자의폐경긔(閉經期)를전후하야 암이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이것도 초기에는압흔것도아니요 단지 아래배에 불쾌감(不快感)이잇고 자궁(子宮)으로 더러운냄새가나는 물과피가석기어 조금식 흐르게됩니다。자궁출혈(出血)으로 월경이라고 생각하겟스나 월경과달나 불규측적으로 게속하게됩니다。그럼으로폐경긔를 지난여자로써 다시 자궁출혈이 시작되며 월경과달나 그출혈이 불규측적일때에는 자궁암이나안일가 의심하여야할것입니다。흔히 여자들사이에 자궁암이되면 다시 살아나지못하고이반다시 죽는다고생각하는이들 만이봅니다。그럿습니다。자궁암이진행하야 말기가되면 아모런 수단과방법으로도 그를곳칠수가업습니다。그러나 이병을 초기에진단하야 자궁을 떼여버린다면 반다시 완치될것입니다 만일 자궁출혈이 청춘으로 시작되는초기에 부끄러워 부인과의사의 진찰밧기를 실혀하다든지 혹은 반드후에라도 자궁을 떼여버리면 몸에해롭다고생각하야 수술을 밧기실혀한다면 그는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것입니다。폐경기를 지난후이면 자궁이란소용업는물건이것입니다

月波先生 【十五】

宋影 作 / 金熊超 畫

며칠되다 역시 청명한대낫엇다

동리에사는 걸성이란 젊은사람이 뛰여왓다

『선생님 야단 낫습니다』

월파선생은 무심히

『아니 왜?』

『저어- 외통 형사들이 떼를지여서 나와서 야단들입니다 저건너봉길이 영만이 또 이아래 홍석이 형칠이 모두들 붓잽혀갓습니다 그리고 저어 건너 학교선생도 붓드러갓다나봐요』

『뭐? 저넘어학교선생!』

『네 그 연설꾼이 박선생말에요 참 저는 몽길이 큰집으로 동지를 축하러가겟습니다 그럼 전 갑니다』

걸성이는 눈이 둥그래저서 그대로 다름질쳐간다

월파선생은 두눈을 가만히감엇다

김순사의얼골 김참봉의얼골 박선생의얼골들은 각가지로 번갈너나타나고잇섯다

『애들아 오늘 일직이나들 가거라』

아조 힘업시 아이들을 보냇다

글읽는소리의 마듸마듸는 그의 가슴을 어이는듯이나십헛다

그는 거는방문통이의노린 집행이를 집어들고 뒤ㅅ동산으로 올나갓다

처여름날새라 울창한과운이 확확지친다

뚜렷나는 호동이 진동한다 천천히 고개를숙인대로 언제든지 올나서잇는 곳까지올나갓다。

바람은 휘휘하고 동남에서 불어온다

하얀구려나믓 하얀머리칼은 은실가티 헛납니다 선생은 집행이든손으로 뒤허리를 괴이고서 두눈은 이형의눈가림 끔짝도 안이하고 건너편마을 수선한 학교집에 모혀섯다

그외에는 모두가 부동이다 나무로깍거세운듯햇다

다만 바람이 불는대로 하얀터럭만이 푸스스흔들리고잇다

대조리어귀 버드나무선 길옥길에는 길다란 일행이잇다

자세히는 보히지는아니하나 양복쟁이몃사람의 행렬이다

그들이 가는편은 주재소로가는길이다

학교압헤는 아이들소리가 와글와글거린다

역시 자서히들니지는 안이하나 울고불고하는아우성소리다

아즉까지 농이봄 아즈랑이는 나무곳레서 아른거린다 파릇파릇한 모판에는 회끗회끗한농부가 보인다 논둑사이길에는 빨안치마입은 소녀들이 점점이움직인다

역시 이들의 얼골도 자서히는 안이보이나 반드시 이이상한 행렬을 바라보고들 입을버리고들엇슬것이다

이 행렬은 차차 산모롱길로 행해서 멀어진다 월파선생의눈동자끗튼 이행렬을 따라간다

머리칼도 여전히 헛날닌다그러나 역시 나무로 깍가세인사람가티 끔짝도안이햇다

×

얼마뒤에 이 행렬은 산모롱뒤로 살어저버렷다

뒤 밋처서 그 산모롱뒤에서는 빈소두머리가 유연히 나타낫다

까치 두마리가 짝호는듯이 서로부터서 깍깍거리면서 월파선생의 머리위로지나간다

그때에야 월파선생은 깜짝놀낫다

뒤에집혓든 집행이를 햄들녀서 땅바닥을치엇다

휘-하고 한숨을 쉬엿다

두눈에는 눈물이 글성글성하여젓다

『아버지』

별안간 숙희의목소리가 등뒤에서낫다

『아니 너 왜 올낫늬?』

실룽이엇다 그리고 숙희의 얼골을 차여다보앗다

울혹한 색깜안 두눈동자는 물무구슬모양가티 되엿다 조금동그란 두볼은 새빨앗케상긔가되여잇섯다

두 부녀는 아모소리업시 한참이나 서로 처다보앗다

『아버지 박선생이 왜 잽혀갓서요』

『옴 몰으겟다』

평생에처음으로 물어보는 처녀딸의 말대답을 뭐라고 할수가 업섯다

따라서 왜? 규중처녀로서 외간남자의소식을 물어보니? 하는 아버지로서의 할말도안이나왓다

숙희도 엄숙한아버지의압에서 그가튼소리가 언제나오는줄도몰으게 나와다

숙희의품속에는 박선생이 지여보낸 오언(五言)고시 귀가잇섯다

반드시 박선생의 품속에도숙희처녀의 오언도 품겨잇슬것이다

박선생과 숙희사이로 언제부터 이가튼 오언이왓다갓다하는것은 월파선생이 악이속에서는 알엄이 아니다 작자는 독자와 더부러 따로히 이 처녀의이약이를 주고밧기로 여긔서 잠간 약속하여둔다

×

몃달이 지낸뒤의 가을날이다

월파선생은 또 이동산위에 올나서서 여전히 나무때가사람모양으로 백수만 헛날리고섯다

대촌리학교는 쓸쓸하기 짝이업다

시드러저가는 벌판과 뭇시도아올니다

언덕아래 새로지여진 공립보통학교에는 적진수만 학생들이 펄펄 뛰여놀고잇다

시중의숙도 여름부터 문을다덧다

월파선생은 학도들에게 『왜소용 대』 가르킨는대신에 이제는 이 동산위에 올나서서 새파란가을 하울로 바라보고 문닷든학교와 새로연 학교도 번갈너 바라보고잇다

몃달전의 살어진 일행의 가든 꼬부랑 두러길에도 소조한 가을빗에 잠겻다

월파선생의 백수도 갈대꼿가티 쓸쓸하여 보혓다

그뒤부터는 월파선생은 벙어리가 되여서 지내갓다

만유인력이나 학례리아니 대학지도니 인의례지니 하든 신구가 겸전한 그의 웅변은 자취를 감처버리엿다

동리사람들은 그저

『선생도 늙으니까 할수가업는 하여를 버리엿다 그러나 감다한 눈물어린 눈으로 서로 치여다보는 두부녀만이 서로를 가끔속을 비치이고 지냄뿐이다 그러나 박선생의 소식은 언제나 오나?

농민강좌의 젊은때들은 다들 어데에가 파무쳣나?

二月一日 ——끗——

女性의最高道德! 最大의자랑!!

良妻로부터 賢母되는길은?

—第一『安產』問題의解決로부터—

寶玉가튼健康兒를나코십다는것은 妊娠이라는것을알게된瞬間부터생기는人間의母性愛의本能的要求이다。健壯한愛兒를安產하여야되겟다는것은 母親이되려하는女性에게는바라고바라도끗이업는希望일것이다。

날마다닷게지는 胎兒의發育으로가차운將來의깁붐이 가슴에용소슴치게되드라도 달수가차면서부터 어머님은自己自身에자저지는疾病的異常으로 苦痛의한숨을쉬는일은업습니가? 妊娠에따러단이는諸種의疾患—惡阻、脫毛、齒痛、滲出性疾患、等等母體의疲弊! 이것이胎兒에支障이업고말것인가 그러고自己自身에도 아무탈이업슬까?하는不安은 當然히몸이무거운 女性의마음을 괴롭게하고 焦燥하게할것이다。

大體엇더케 하면조흘가?

그러나 압흐로걱정하기前에그것이일어난原因을 알어내는것이다

조금生覺하면아실바와가티 胎兒는健全히發育하려고 母體에서주는모든營養分을攝取하야 쑥쑥成長하려고한다 참그야말로無心히成長하야가는것이다。

그럼으로 母親이먹은모든것에서 胎兒가念慮업시 養分을빼서감으로因하야母體自身의養分缺乏에빠지게되는일이잇다고하면 그야말로兩者다(母體도胎兒도)가티危險할우려가잇다。母性으로서그런迂遠한일이잇서서될것입닛가?

그러면 貴重한母體의健康을大樹와가티 鞏固히하고 胎兒를健康하고도 優良兒로서 安產식히는것에는 如何한良策이잇는가?

이것을 生覺하기前에生理的現象인妊娠及授乳에 如何한營養素가 特殊한關係를가진것인가를醫學的根據에 立脚하야서 말슴하여드리겟다。大阪醫科大學敎授片瀨博士는 左와如히 말슴한다

『婦人이 妊娠한즉 胎兒가子宮內에서 漸漸成長한다 그리하야

胎兒의骨骼이 形成되는

骨質의 八割은 카루슘의化合體이다。그러면 胎兒의骨骼의카루슘은 어데서오는가-말할것도업시 母體가食物에서 攝取한카루슘이 血液을 따라胎盤을通過하야서 胎兒의骨骼에 沈着하는것이다。따라서母體로부터 胎兒에 供給하는카루슘은 量으로말할수가업는데따라 即胎兒의成長함에따러서 多量을要하게된다。더구나 吾人의日常食物中에는 貴重한카루슘量은 比較的 적고이와反對의 作用을가진 마구네슘이만흠으로 그러치안트라도 카루슘缺乏을 늣기고 잇는 母體는 妊娠하야 달수가차면서부터 漸漸減少하게되즉 胎兒의發育에影響을밋치게되야 母體의 카루슘이缺乏된대로두면 胎兒의發育에顯著한障害를 招來하게된다。

더구나(이카루슘의缺乏은여러가지傳染病에對한 抵抗力을弱케하야、肺結核을誘起식히고、또는從來輕微하던 病勢를增惡케한다)일로써보면

産前産後에 保健의열쇠는

실로 카루슘自體가쥐고잇다해도過言은 안일것이다。

胎兒에對하여서나、母體에對하여서나카루슘이 얼마나必要不可缺한營養이며、그常用的攝取가安產의絶對條件을잡고잇는事實을容易히首肯할것이다。

카루슘의服用은母體의카루슘缺乏에基因되는 諸種의障害物인惡阻、脫毛等을防止하며惡阻를輕減하고 又는防止함뿐아니라、分娩時에 子宮의收縮을自由롭게하고 또分娩後에 出血과 惡露를 輕減케하며、乳量까지豊富케하고、乳質을佳良케하는等여러가지貢獻을가지고잇다。

이런確證은 內外許多한文獻에 露하야서大瑞明瞭한事實로써、짓벨든、자잇스、말지노스키ー片瀨博士의實驗은 一層카루슘의妊婦保護、胎兒發育의卓拔偉大한性能을立證하고남엇다。

『安產을爲하야』와다카루슘錠 (ワダカルシユーム錠)

은 엇더한 時代에 重大한使命을띠고登揚한카루슘劑界의 先驅者이다。

本舖가카루슘의偉效를數種의方法으로서世上에宣傳한以來、世人의注視의標的이되도록車카루슘時代를建設하게된것은참으로理由가잇는일이다。

往往히一般的榮養效果를高調하기爲하야 安產을標榜하는滋養劑도잇기는잇스나그中에서

毅然하게 빗나는存在

를보이는「安產을爲하야」와다가루슘錠(ワダカルシユーム錠)은 이權博士의推奬(博士自身이自體에 試驗한 實例가잇다)을입고또카루슘의補給한 世界的硏究者片瀨博士의 親히하신鑑査(本品이商品이되기까지에 內容의品價를鑑賞하야 一瓶마다鑑査票를 附치서內容確保證으로써市場에提供하고잇는)를通過하고잇는事實에 依하야서이우에더累言할必要가업다고生覺한다。

無代進呈

詳細한事項을아시고저하시는분은左記住所로申込하야주시면『安產키爲하야』라고題目한小冊子와其他文獻을無料로進呈합니다

大阪道修町 和田卯助商店

全國藥店에서販賣함

安產키爲하야

와다카루슘

ワダカルシユーム錠

學藝

創作의方法論에抗하야

藝術的眞實과 方法의非論理性

② 李甲基

이제 우리가 文學史라는것을 回顧해볼때 藝術家의 世界觀과그 藝術的方法의 聯關에로 還元되은 이所謂文學上의『眞實』의 具體性에 關하야 文學에 뜻한사람들이 數百年을두고 생각하여오것을 알수잇스며 綿綿한文學史의 흐름그것이 結局이問題의 具體的 樣相을 **捕**捉하려는苦悶과 惡戰의 그것으로 생각되다 그리하야 때로는 이微妙한 問題의 全體表象을偉大한 天才的直觀에 依하야 卓越한 解決에로 轉成하려는 努力도 수만이잇섯다

그러나 이들의 努力과 業蹟의 蓄積을 우리가 적으나마客觀的으로 觀察하려고 힘쓴다면 엇더한 時期와 史的段階를 勿論하고 抽象的限에서 非常히 善良하엿든 이들의意圖가 具體的인 實踐에서는 期待한과가튼 偉大한 結果를어덧다고는 볼수업슬것이다 爲先文學上의『眞實』이란『個性과普遍性』의 完全한 調和에잇다고하는 古典主義者의 命題를 두고서 文學史를보아도 嚴密하게 判斷한다면 이두個의 어느한편이 意識的으로 또는無意識的으로 作爲的으로 혹은自然的으로 他方을 犧牲식힐마큼 强調되고 高揚되여왓든것을 우리는 한번是認하지아니할수잇슬가?

이것은 結局 文學에 잇서서 問題의 具體的方向을 決定함이 얼마나 어렵다는것을 뜻하는것이며他方으로 人間의 文化的인 諸問題가 그것이 具體的 實踐의 方向인데 限하야 그 解決이 歷史的宿命과 黨派的性格을 **超**越할수 업다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닐가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眞實』이란것이 文學上의問題 即 그個人의 具體的樣相에 對한 見解의 對立은 實로 文學流派를 創設하게된 根本的要素의 하나로 볼수잇스며 그 多樣한 見解는 實로 文學의 時的性格을 決定하엿다.

要컨대 文學에잇서서『眞實』이라것의 具體的인 性格과 그樣識을 決定함에 누구에게나 自明한 結論이 當然히나타나지는 아니한다 그곳에는 반다시 만흔 反對意見의對立을 볼수잇다 누구나『文學은 現實의眞實을 그려야 한다』는 要請에 따르는點에는 異議가 업슬것이나 實踐的으로그 要請에 適合하는데서는 반다시 甲論乙駁이 나타날것은 한個疑心할수업는 社會學的事實이다―그리고 今後의文學의過程에서도 이問題의 具體的解決에 對한要請은 우리들의 모든文學的行動이 이것을 正確하게 捕捉하려는 目標를가지는限에서 끄치업시 外界의變化를 가추어 再吟味할것이며 決코 完全히成功할수업는 解決을 反覆要求하게될것이다.『名作은 變하나 입은 依然이곳에開放된다』고 哲學上의『審判의問題』가 가진苦惱를 評한『비엘반트』의評語는 實로文學上에잇서서『眞實』의問題에도 適切히該當될것이다

더욱이 史的事實을通하야보면 文學的潮流의 變遷을 轉換期의 燃焦의가운데서 이問題의 具體的解決에對한要求는 當時代의文學的環境의特性에 依하야 혹은『批評의危機』라느니 혹은『文學의破産』이니하는 數多한 現像的外貌를가추어 歷史의前面에뚜렷이 나타나잇으며 一層더높으게 부르지저왓든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 적으나마 이제 우리들의압에『眞實』이란것에 對한論議가 文學上의政治主義의淸算이니 또는 藝術에對한이데오로기―의復權이니의否定이라는等의 具體性을 가지고 새롭게 深刻한自己省察을要請하는마큼 現在의이땅의文學은 確實히 한個의危機에 處하엿다고도 볼수업스며 白鐵氏가 이른바『反省期』라고도할수잇는 苦悶期의 路線에서 彷徨하고잇다고도할수잇다

그러면 이러한危機文學에잇서서 文學上의『眞實』은엇더케 解決되여야할가?

이러한 具體的인 方向을 決定하기에는 이들의對立된 모든 意見에서 한개의 統一되見解를 發見하는데잇다 勿論이것은 **現**在우리들의 文學的危機의 基本的特徵과 그時代的性格에서 大部分 左右될것이나 如何든 混亂된 諸見解의 對立의 合理的解消가 追求되여야할것이다 諸見解의 對立의解消라것은 結局 具體的인때에對한 文學의 根本的方向의 統一的決定을 뜻하는것이니 이것이 비로소·우리들이 가진바 現在의『스토롬·운·드랑』의 激浪을 밀치고 文學復興의 彼岸으로나아갈수잇는 한個의 根本的인方途이안일까

漢詩

春雪―押風

桐崗考選

選外佳作之九

寶安 高泳信

瑞雲霏微習習風·
豐徵三白笑田公·
來時和雨千村暗·
着處成花萬樹籠·
梁苑曾聞授簡客·
灞橋幾度訪梅翁·
江山如畫詩情好
羔酒無妨暖帳中

『크셀크세스』大王 自作記錄發見

【시카고大學同盟郵信】二千四百年前 波斯의『크셀크세스』大王이宗教叛亂을鎭定한 記錄을刻한石碑七個가『시카고』大學學術探檢家의손에依해서 發掘되여 正史上에一新史實을더하기에이르럿다 右石碑는波斯의古都『펠세포리스』附近 지금은地中에埋沒되여버린 古宮殿中央大政廳의礎石으로서 노혀잇는石族의石造箱中에 감추어잇는것이다。歷史에따르면『크셀크세스』大王은『다리우스』大王과 함끠拜火教의熱心한 歸依者이엿다 이때문에 前時代로부터의邪宗教에 大壓迫을加한모양인데 此等邪教徒가『다리우스』王의死에伴하야『크셀크세스』新王即位의 機會를타서 叛亂을이르킨것이라고 推斷된다。石碑의記錄은『크셀크세스』大王自體의것으로時代는即位의 紀元前四八五年과希臘軍에 大敗한『사라미스』海戰의 紀元前四八○年의間에起草된것인데 大王即位後의最初의 最大事件이라고한다。記錄은 最初에 國內統治의 各州名稱을 列記하야左와如히 述하여잇다。

『余의 即位에 當하야 上記의 諸州를 統治햇스나 內數州는 叛亂을 이르켯다。余는『조로아스타―』教의 大神『아풀마스다』의神助를 바더그意思에따라 이것을 鎭定하고以前에 異教다이봐―스의 諸神을 禮拜하엿다。此等諸州도『조로아스타―』教에 歸依식혓다。』

時調 畵帖 (其十八)

山村에밤이드니 먼데스개 지저온다。
柴扉를 열고보니 하늘이 차고 달이로다。
저개야 空山잠든달을 지저무삼하리오。
(千[illegible]畵)

茶半漫筆 ⑤

月【漢籍雜考】

萬海

淮南子에 月者는 太陰之精이라하고 又曰 日月은 天之使也니 積陰之寒氣久者는 爲水하고 水氣之精者는 爲月이라 하얏다 釋名에 月은 闕也니 滿則缺 晦則又이라하고 又曰 朔은 蘇也니 月死復蘇生也오 弦은 月半之名也니 其形이 一旁曲하고 一旁은 直하야 若張弓弦也오 望은 月滿之名也니 日月遙相望者也라 하얏다。

[illegible]에 哉生明 哉生魄이라는것이 잇으니 그것은 朔後에는 月明生而魄死하고 望後에는 月明死而魄生이라하얏다。

月桂라는말이 傳하는대 酉陽雜俎에는 月桂高百丈인대 下有一人이 常斫之호대 樹創隨合이라하얏고 淮南子에는 月中有物婆娑者는 乃山河影也오 其空處는 海水影이라하얏고 天寶遺事에 唐明皇이 遊月宮 見天府榜曰 廣寒淸虛之府 見素娥十餘人 皓衣乘白鸞 舞於桂樹之下라고하얏다 그리하야 月桂에 對한 詩도 적지아니하다。

掛空如水鑑 寫此山河影 이것은 蘇東坡의 詩어니와 桂子月中落 天香雲外飄라는 宋之文의詩도잇고 婆娑獨占廣寒長 大地山河風露凉 天上有根蟾窟 人間見影不聞香 素娥接引來花下 玉兎分陰戀樹傍 寄語吳剛休折盡 一枝留待狀元郞 이것은 舒芬의詩로 月桂詩로 膾炙되는것이다 詩中의 吳剛은 姓名이니 酉陽雜俎에 吳剛이라는 사람이 잇다 月中桂樹를 베인다는말이 잇는까닭이다

月中에 玉兎와 蟾蜍가 잇다는말은 五經通義에 月中에 兎와蟾蜍가 잇는것은 月은陰이오 蜍는陽이니 陰陽이 相依함이라하얏고 酉陽雜俎에 長慶中에 어떤사람 一人이 中秋月을 구경할새 林中에 光線이잇서서 과가티 天上에 達하지 을따라보매 月中에 金闕이잇다하고 張衡靈憲에 月宗之精 積而成獸象兎하니 陰類라하고 又云羿가 西王母에게 不死藥을 어더 其妻嫦娥가 竊之以奔月 中의蟾蜍가 되얏다하니 姮娥竊藥出人間 藏在蟾宮不放還 이라는古詩가 그뜻이며 李周翰은 玄兎者 月也 中有兎蟾故 名[illegible]

新劇樹立과『觀衆本位』問題

② 李石薰

그리고나는『春香傳도新劇이냐?』하는엉뚱한 質問을 던지내, 萬一柳君이 이質問에 對答한다면 어떠對答을할까?―다시말하면이 엉뚱한質問을 어떠케科理할까? 하는것을, 큰興味로써 期待하고 잇섯던것이다。

그래더니, 柳君은우에서도말한 바와가티、『劇藝術』第三號『劇界寸針』理에서、나의批評에對하야『惡德評論의 時評的轉落』이라고 加하엿고、『幼稚하다』고 **誹謗**하여曰『觀衆本位로 하자는것은 結局觀衆에게 親切하자는것』이며『우리는 過去나 現在나 未來나 사람이나 動物이나를 莫論하고 近代劇의形式으로 表現한것을 新劇이라한다고 무슨큰 敎示나 하드시 호통을 때엇다。

이答辯은 一見頭腦明晰한 名答인드키 보이지만은 事實에잇서서는 다음과가티 愚答임을 免치 못하는것이다。

◇

柳君이 劇研究會員인 所謂『東京留學』(『劇藝術』第二號)에서도 새라와 만히늣긴바 잇섯든듯 새삼스럽게『現在朝鮮觀衆은 新劇과는 距離를두고 잇는대』이것은 왜그런고하면『이때까지의 飜譯劇의 飜譯과演出과上演은 너무나 그態度가不親切하엿다(觀衆에게―筆者)。即 飜譯劇上演은 觀衆의 理解를 求하느니 보다 오히려 劇場人自身의 教養에資하려 하엿기때문』이라하고、『나는 이때까지의 **觀衆**이 咀嚼할수업고、그것(飜譯劇)와가티 不平이만엇는데도 不拘하고、그것(飜譯劇)을 그처럼咀嚼할수업는 그대로胃腸弱한 우리觀衆의 목구멍에다 쑤시어넣은 우리演劇人(위선筆者自身부터―柳君自身을 말함, 李)이 여간나뻣든 것이 아니엇다』고 그럴듯이 告白한것이엇다。

그러나 이것은一見柳君의 正直한告白인드키 보이지만요、事實은自己네의罪過를『不親切』이라는 曖昧한말로 가볍은것으로 糊塗하려는 어여쁜 僞善에 不過한것이니、即 飜譯劇(新劇이라고할수잇다)라 觀衆과의 距離問題를『不親切』이란 不片意의 角度에서가아니라 다음과가튼 重大한理由에 立脚하야 批評되어야할 問題이기때문이다。 이러하여서만 비로소、이問題는 正當히 解明될것이다。個條別로 들어보면

一、外國劇本의 서투른 朝鮮語譯
二、演技能力의 低劣
三、演出能力의 幼稚
四、練習不足
五、舞臺裝置其他舞臺的條件의不備

等을 처들수잇스니 從來**上演**되는飜譯劇本中 어느 것이던지 하나만집어들고 檢討해보아도 알수잇는터로 그深大한苦心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到底히 滿足할수업는서투른것이다。다시말하면 從來飜譯劇本을 提供하는사람들의 朝鮮말化의 文學的能力이 아직도 高度의것이 못된다는 말이다。

柳君은 이와가티 서투른 飜譯劇本을 가지고曰『原作에 너무忠實하엿다』라고한다。忠實하엿는지 아니하엿는지는 큰問題가아니다。 도대체 劇本의基本을 이루는言語가 朝鮮말이 되엿는것이 問題인것이다。考下一流인테리들이 듯고도 얼는理解할수업는말을『飜譯劇(新劇)』의臺詞로두고잇는데야 觀衆이 어떠케 안들엇단이냐?

(二) 로말하건대 오늘까지의 新劇團體의 멤버―는 모두가劇을 조아하는『素人』들의 集團인것은 누구나 다아는 現實的事實로서 果然 俳優로의 A·B·C나마 充分히 修得한者가 新劇人諸君中에 단 한사람이라도잇는가? 그것은커녕 겨우『素人』의 域을 버서날만한 程度의 素質이나마가진者가 果然 몃사람이나잇는가? 아무리 好意로보아도 現在의新劇團體가운데로부터 단 다섯사람의 **有意**한 演技者를 고르기도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한다。新劇團體에서 가장切實히늣기는것은 무엇보다도 이點이아닐가?

戲曲 春香傳 (三)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卞學道 著장청退場하자 大廳구석、廊下等에 숨을 죽이고 서던官屬들 서로모여 수군거린다。舞臺뒤에서는 刑罰맛는 春香의외마듸소리 間間히 들린다)

吏房 고춘향이란 년이 웨그리케고집을 셀까?아모리 그리한들 닭의색기 봉이되며 각관기생 렬녀되랴?

執事 그리기에 말이지。사스도본부 들으며는 저런 매도 아니맛고 좌허나 조흔 깨판이량 돈쓸데 돈 쓰고 쌀쓸데 쌀쓰고 남원 사십팔면이 저의집찬파일것을 망할년 수절수절 하다가 꼴 조타。

戶房 춘향의 고집도 고집이어니와 사스도의 고집도 여간이 아니로세。

執事 아니어。이번에 사또께서 남원으로 오신것은 전혀 춘향이 때문이라네。춘향이의 인물이 일색이란 소문이 하경향에 유명키로 변사스도는 밀양서흥(密陽瑞興)을 마다하고 간신히 자원하야 남원부사를 제수하엿다데。

戶房 그 어듸서 들은 소린가?

執事 내가 어듸서 어더들엇다네。

吏房 그러면 더큰일낫는걸。

(刑吏 걱정스러운드시 登場)

刑吏 어참 큰일낫다。

一同 어찌 되엇는가?

刑吏 그년 참 독하기도하이。아모리 주리를 틀고 아모리 때려도 그저 그년은 십장가를 외오면서 일호변절 못한다는것이어。그년의두다리에살점이 뚝뚝 떠러저서 피투성이가 되엇는대도 조금도항복을 아니하네。

一同 에이 망할년가트니라고!

執事 아니 이러다가는 우리들까지 무슨변을 당할는지 모르겟는걸。

吏房 그러면 그년을 여기에끄을고 와보는게엇떨까?우리끼리 한번 달내보게스리―

戶房 그래 보세그려。

刑吏 내가가서 그년을 끄을고 오지。

(刑房退場。)

(卞學道上房에서 나온다。春香 그뒤에따러다)

卞學道 춘향이란년 어찌 되엇는고? 내분부대로 하엿나?

戶房 아주 낭패가되도록 울려두엇소이다。

吏房 지금 다시 현신합니다。

卞學道 맹랑한년! 인제 정신이 좀 돌아왓겟지。 빨리 끄으려 드리라。

(春香이 軍奴使令들한테 끄을려 드러온다。 란장으로 마저서 거이 죽게되엇다。 머리는 흐터지고 옷은보잘것업시 찌저지고 군데군데 피투성이다 얼굴에는피어린 상처 서지를 못함으로 使令들이부축하야나온다)

刑吏 춘향 대령하엿소、

卞學道 여보아라 춘향아 한번 더듬올녀다 대답하여라 이번 수청거향할러이냐? 안할터이냐?

刑吏 이년 외마듸로 대답하라 할터냐? 안할터이냐?

春香 (겨우정신을채려대답한다) 못합니다。

(一同어이업다는드시서로얼굴을 만보다。)

卞學道 (외통터러내여)에키!독사가튼년! 저년을 그냥두엇다가는 장래 크게 일거리겟다。여보아라、저년을 큰칼 씨우고 항쇄족쇄하야 하옥하라!

使令들 (一齊히) 예―이

(使令들달려나가 큰칼가저와서春香한테씨우기 시작한다 누구의입에서인지 다음과가튼詞가連發한다)

〇〇 그년 참 독한년이다。

×× 저년은 그저 죽여야지。

〇〇 에이 고초가튼년!

(春香의 목에씨운 칼머리에인봉하고 거멀못으로 꽉수쇄하야 獄司丁은 春香을 끄리退場하니 春香은 한거름에 업더지고、두거름에 쓰러진다。官屬들 어이업시 退場하는春香의뒤人影만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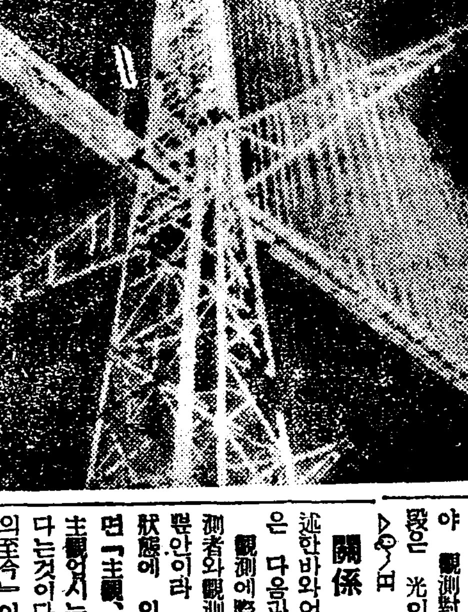
―幕―

漢詩募集

題 春雲―押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壯大한假設橋

이宏壯한 懸吊式大鐵橋、그中央塔은 놉히三二五『피―트』라고 한는데 이것은 米國『와싱톤』州의『컬럼비아』河에 架設되여잇는것인데 이壯大한 鐵橋란 結局은 大『콩크리―트』·『댐』建設을 위해서『콩크리―트』材料를 運搬하는『벨트』를 架한假橋에 지나지못하는것이다。『댐』工事가 얼마나 大規模的인가는 이것으로 보더래도짐작할수 잇는것이다。

危機의自然科學

그超克의길은무엇인가?

⑦ 金成圭

다만·物質이 辨證法的으로 理解되여가는것을 意味한다。新物理學의發展은 物質이 對立物의 統一의 法則下에 잇다는것을 證明하고잇는것이다

『不確定性原理』에잇서서의 不確定性의 窮極原因은 粒子·波動의二重性을가진 **物質** 이 이제비로소 位置·運動量이라는 날으도不適合한 槪念에依하야는 無限히正確한 數値를 求할수업고 따라서 確定의限界가 잇다는것이다。그것은 即 現在의 硏究手段과 方法으로서는 電子의位置와 速度가 無條件的으로 正確하게 規定되지 못한다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原則的으로 認識不可能이라는 것이아니오 人類의思考方法과 槪念의 變革을 要請하는 것이다。

×

다음에 吾人은 測定에關한 觀念論的歪曲을 批判하야둘 必要가 잇슬가한다。問題는 哲學史上二千年동안을두고 人類가 그解決에對하야 苦悶하던 客觀對主觀의問題에돌아갈것이다。

顯微鏡에依한 思考實驗에際하야 觀測對象은 電子요 觀測手段은 光이고 實驗結果는 $\Delta P \cdot \Delta q \sim h$ **關係** 를 갓는다는것은 旣述한바와어니와 여기서 論者들은 다음과가튼 附會를한다。

觀測에際하야 觀測對象은 觀測者와觀測手段의 影響을 밧을뿐안이라 前者는 後者와 混入狀態에 잇다는것이다。即換言하면『主觀、客觀의交錯』狀態―主觀이던지 客觀은 存在할수업다는것이다。觀測에잇서서『此處의至今』이라는 槪念은 觀測者의行爲를 떠나서는 存在할수업다는것이다。(日本에잇서서 石原純、田邊元等의 學者들이 이러見解를가지고잇한다。)

그러나 吾人이 注意할것은 觀測手段(光)이 觀測對象(電子)과가티 觀測者를떠나서 客觀的으로 實在하는·物質이라는것이다。 勿論 主觀『觀測한』이라는것은 主觀과 客觀과의 交互作用일것이다(觀測者觀測手段 觀測對象間의 交互作用)。觀測하는 主觀인 人間은 一定의 樣式으로 組織되여잇는物質』이라는 意味에 잇서서 一의 客觀物이오 同時에 그것이 能動的으로 **測定** 의 行爲를 한다는意味에잇서서 主觀인것이다 即 觀測者는 主觀的모멘트와 客觀的모멘트의 辨證法的統一物인 것이다。同一한關係는 觀測手段에서도 볼수잇다。觀測手段은 一定의 客觀的物質인 同時에 그것이 觀測者에 依하야 觀測對象에 一定한 機能을 하게되다는 意味에잇서서 主觀的인모멘트를 內包하고잇음은 事實이나 그러타고 觀測手段의 客觀的인모멘트를 無視하고 그의 主觀的모멘트만을 誇張하야 客觀을 主觀의 派生物로 認定함은 觀念論者의 常套手段에 不過하다。

『此處의至今』이 觀測者의 行爲에만 依存하야잇다는 議論도말이안이된다。웨―그런고하면 主觀的모멘트와 客觀的모멘트와의 統一로서의 測定行爲에 잇서서 主觀的모멘트만을 誇張하고 絶對化하며 觀測者로부터 獨立하야 客觀的時空內의 一點으로서存在하는『此處의至今』을忘却함은 이亦是 意識的、無意識的임을 不拘하고 一個의欺瞞인 때문이다。

四

氣體의運動學的理論이 分子·原子說을 確認하얏다함은 旣述한바어니와 氣體의壓縮에關한 有名한『보일』『마리옷트』의法則을 暫間 생각하야보기로하자。溫度를一定하게하면 氣體에加하는壓力과 氣體의體積은 反比例의關係를 갓는다는것이다。($PV=R$ R는常數)物質의分子運動說의發展은 이法則이表明하고잇는 單純한關係가 그實에잇서 原子或은分子의相互間 및 氣體를닷고잇는 容器의壁과의 無數한衝突의結果임을 闡明하엿다 이理論은 各個個의 分子·原子가 如何히 容器의壁과 衝突하얏는가를 無視하고 全體的結論만을 問題로하얏는것이다。

新刊紹介

▲朝光 三月號 京城府太平通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二十錢 送料本社負擔

一朝鮮耶穌教書會發行 定價五十錢送料四錢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第三六號 新京朝日通日本領事館構內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發行 振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半島時報 第二十九號 平壤府將別里三二 半島時報社發行 定價一部五錢

▲中央 三月號 京城府堅志洞一一 朝鮮中央日報社發行 振替京城五五七八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朝鮮鐵道協會會誌 二月號 京城府古市町一四의一三 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一〇三七番 定價五十錢

讀者交友室

▲기―타(스파나六五號)쓰던것과칼카시敎科書合하야 四十圓에 放賣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本家에와서보시지요 世界名歌集(米國版)二圓짜리에겟습니다 大學病院내진료받지집 京城苑南洞一二〇의一 金東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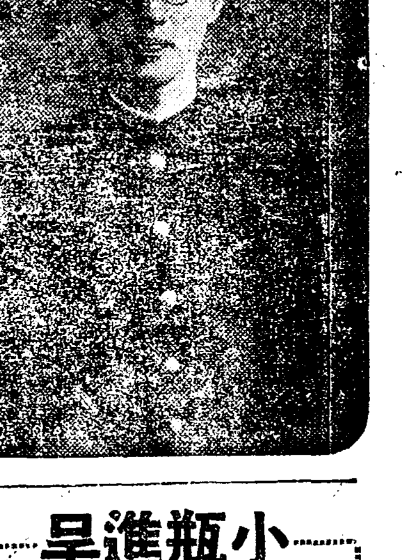
▲本人은今年三十二歲의 獨身靑年입니다 方今어떤事業을 經營中 將次는有望할것이오나 아즉은 貧身之族맞게안됩니다 新舊式을勿論하고 三十歲內外의職業女性이나 或은蓄分間 自力으로 生活할수잇는 女性과 結婚을願합니다 本人의所生은 아무것도업스나 前夫의所生이잇서도조켓습니다

▲求貸家 月貸或은傳貰로 房二間 廚房一間 大廳一間을 잇는南向家 한채를求합니다 京城光化門局私書函四四號(少數는이거는 謝禮도 하겟습니다)

▲새로實施하게되는 京城市의 住宅法或은住宅案規定에關하야 (一) 何年何月何日부터實施하는것 (二) 그內容의諸規定 (三) 그適用의形式이 强制的인가勸獎的인가의如何 (四) 其他住宅案에關하야市民으로서 아려야할事項 市內仁寺洞一一九ノ一 龜山亨居士 金相更

憂鬱한氣分이낫고 試驗難關을突破한깁붐

神奈川縣 伊藤一郎



小生은某大學의受驗當時過度한工夫를한關係인지、神經衰弱에걸려서每日氣分이안나고、우울한날을보내고잇섯습니다。이와가든狀態로서는到底히天下의難關인入學試驗을突破할수가업다고 自己의實力에疑問을 가지게까지된結果某醫師에 相議하얏든바、君과가치弱한몸에는 滋養强壯劑의 養命酒가 極히조흠으로 愛用하여보라고 甚히 勸함으로 곳 求하야 愛飮하엿습니다、그리하얏더니곳效果는 나타나서 斷然明朗한氣分이나고 元肽대로 頭腦는明快해지고 滋味나게 工夫가되야서 드듸여 某大學의受驗戰線을突破할수가잇섯습니다。그리하야只今에는愉快하게 工夫를하고잇습니다。이것도全혀 養命酒의恩澤이라고每日感謝하며 養命酒는完全히나의 마스콧트요 元氣를길너주는 戀人입니다。이戀人의庇護下에 刻苦勉勵하고 잇습니다。
(十年十二月三十一日受附 寫眞은 本人)

小瓶進呈
貴重한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하야 먹기조타는것을 紹介하기爲하야 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을 無代로送呈하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 葉書를보내주시요

頭腦가明快하야서 滋味잇게工夫가된다

아무리 마음을 조리드라도 心身이 다疲勞되야서조금만 그대로잇스면 곳 졸입고 아무리 하여도 몸이 느릿하고 머리가 몽롱하야서 무엇이 무엇인지를몰으게 되야 대단 困難하엿더니 滋養强壯劑인 養命酒를 먹고 비로소 몽롱한 머리가 明朗하게 개이고 氣分은 썩 조코 疲勞한 줄을 몰으고 根氣가 계속되야서 자미잇게 工夫가 되는것이 무엇보다도깁붑니다

滋養强壯劑로……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根氣薄弱한사람
◆胃腸衰弱한분
◆不眠숨갑븐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倦怠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貧血冷病잇는분
◆産前産後의婦人
◆病後恢復期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鹽澤家傳 養命酒
製法日米專賣特許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二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品切될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鹽澤家傳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시고사시옵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各學校入學試驗問題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國語科 其一

一、左の文を讀んで左の問に答へなさい。

僧は名を禪海といつてもと越後の人、諸國の靈場を拜み巡つた末、たまたま此の難處を通つて幾多のあはれな物語を耳にし、どうにか仕方はないものかと深く心をなやました。さていろいろと思案したあげく、遂に心を決して、たとへ何十年かからばかかれ、我が命のある限り、一身をささげて此の岩山を掘拔き萬人の爲に安全な路を通つてやらうと、神佛に堅くちかつて此の仕事に着手したのであった。之を見た村人たちは、彼を氣違扱ひにして相手にもせず唯物笑の種にしてゐた。

(問) 1. ナゼ深ク心ヲナヤマシタノデスカ。
2. 我ガ命トハ誰ノ命デスカ
3. 此ノ仕事トハ何ヲサシマスカ。
4. 之トハ何カ。
5. 彼トハ誰カ。

二、左の語句を解釋なさい。
1. 防備をさをさ怠なし。(
2. 不滅の光を放つてゐる。(
3. 再會を期して別れた。(
4. 人をろうらくするのであらう。(
5. 前非を悔ゆ。(
6. 好機至れり。(
7. 小春日和。(
8. 筆勢非凡。(

三、左の語句に讀假名をつけなさい。
( )水際 ( )燃料 ( )重畳 ( )徒に ( )野邊 ( )平等 ( )境內 ( )當惑の體 ( )彼岸 ( )對坐 ( )臨終 ( )僧の道 ( )早速。( )思召。( )都大路。

四、左の文中の片假名を漢字に直せ。

私のツトめ居り候家はゴフクミセにてなかなか忙しく御座候參りしタウザは何事もわからず、唯氣をもむのみにて、我ながらナケケなく存じ候ひしが何事もニンタイが第一とのかねてのゴケウクンに從ひ一心に働き候ため、追追店のヤウスもわかり、お客樣の扱方にもなれて、仕事にキヨウミをオボゆるやう相成り申候マイバンウリアゲダカの勘定を致す時など、仲間のうちにて計算は私が一番タツシヤなりとて、何時もほめられ申候。これも全く先生方のおかげと深くカンシヤ致居り候。此の上はいよいよ仕事にハゲみ、一日も早く、一人前のシヤウニンとなりて、親に安心致させたしと存じ居り候。

作文題
『私がこの學校に入學を希望したわけ』

國語科(其二)

一、左の文を讀んで左の問に答へなさい。

雲門大師が門前の流れで菜を洗つてゐた時、思はずその葉を一枚流した。大師はあわてて一生懸命にこれを追ひよけ、やうやうのことで拾ひ上げた。これを見た或人が
『菜の葉一枚位に それ程までに御苦勞なさるのは、どういふわけでございますか』
と尋ねた。大師は
『一莖の 大なるも、一葉の小なるも 等しくこれ天與であつて人を養はんが爲である。小なりとて之をすてて、顧みないのは天恩を忘れ 人道にそむく所以ではないか。百粒の米も一粒より生じ 一滴の水もよく長江の大をなす』
と敎へられた

(問) 1 雲門大師ハ何處デ何ヲシテヰマシタカ。
2 あわててトハナゼアハテタノデスカ。
3 『これ』ハ何カ。
4 『これ』ハ何カ。
5 小サナモノデモステルトナゼ惡イノデスカ。

二、左の語句を解釋なさい。
1 心田開發。(
2 一望千里。(
3 天聽に達す。(
4 冥福を祈つた。(
5 鬼の目にも涙。(
6 一視同仁の聖旨。(
7 一木一草、そゞろに游子の涙をさそふ。(
8 筆舌で盡くすことが出來ない。(

三、巧の語句に讀假名をつけなさい。
( )雜木林。( )氣配。( )數。( )身代り。( )便宜。( )軒端の風鈴。( )運搬。( )暇乞。( )滑稽。( )脫字を補ふ。( )春雨。( )植木。( )灌木。

四、左の文中の片假名を漢字に直せ。

拜復。眞心こもるゴキモンジヤウ並びに品品をいたゞきまして誠にアリガタうございました。昨夜おそく、江岸のケイカイから歸つて來て、こほつたバウカンイをぬぎもあへず、クリカヘし拜見いたしました。散ならぬ者に、かくまでお心をおかけ下さいまして、たゞカンシヤの外ありません。さて、當駐在所は鴨綠江の上流約三百キロ、人煙マレな奧地にあり、ホンシヨまでは十八キロ餘、リンセツの駐在所へも七八キロあります。ハンモキが過ぎたと思ふ間もなくケウピヤウキがオトヅれて、鴨綠江はいたる所自由に渡れるのでコクキヤウケイビ陣は日增にキンチヤウを加へて來ました。

娛樂

"男人加入無用" 樂劇團『娘娘座』

羅仙嬌先鋒세워四月中에첫公演

아직은 어리지만 가리면 寶塚이나 東寶少女歌劇團—이런 理想과 抱負를가지고 出生한것이 娘娘座。流行歌로서 舊面이 된 羅仙嬌孃을 비롯하야 權瑞秋 朴玉蟬, 權寶秋, 金小波, 馬賢淑 趙英淑孃은 지난一年間 神戶에가서 工夫하고 도라오는길로 이『娘娘座』라는 樂劇團을 세운것이다。團員은 모두다 妙齡少女뿐, 男子부는 女子도 加入안식히는 무서운 男人禁制이니 여기에 벌서 한층 異彩가잇다。

一行은 前記諸孃外에 柳春玉 尹善愛, 李仙林, 金明善諸孃과또 누구누구해서 압흐로는 얼마나 될지 未知數。

第一回公演은 오는四月中 京城에서 열작정인데 스마―트하게차린 斷髮娘娘들이 方今彰義門外에서 合宿을 해가며 公演準備에 눈코를 잘못든다고。

☆曆☆ 三月十一日(水) 二月建辛卯小(十八日) 壬辰·木·箕·除
●陰曆六日(舊十三日)
●春分二十一日(舊二十八日)

라듸오

十日(火曜)

◇午後六時 童謠 中央保育學院生徒 指揮 洪盛裕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趙大順
◇同七時三〇分 講演『中等學校를떠나는이들에게』晋成高普校長 金敬弘
◇八時 (東) 吹奏樂
一、行進曲『忠誠』…軍樂隊作
二、序曲『輕騎兵』…스페作
三、圓舞曲『滿洲의曠野』…戶山學校軍樂隊作
四、交響曲『新世界로부터』…도볼작作 —第二樂章라르고—
五、行進曲『平和』…軍隊樂作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同八時三〇分 伽倻琴竝唱 一、短歌『瀟湘八景』 二、唱劇調『春香歌中』…綺石틈이가는데 朴八卦 鼓手 韓成俊
◇同九時五分 (東)獨唱 內田榮一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 (東)趣味講座
◇同八時 (東)吹奏樂
◇同八時三〇分 (東)浪花節
◇同九時一〇分 (東)獨唱

十一日(水曜)

◇午後〇時〇五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달거리 張香蘭 孫瓊蘭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入學期와兒童의健康〃李聖鳳
◇同五時三〇分 培材高普新入生發表
◇同六時 童話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藝術〃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講演〃專門學校를떠나는이들에게〃兪億兼
◇同八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中擧 三、弄 四、界樂 五、篇 文明仙 金蘭珠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放浪의水夫 二、그대여잘잇거라 三、못이즐追憶 四、埠頭의그림자 五、님그리운언덕 六、꿈노래 李銀波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演談 勸不隨貧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 어머니講習
◇午後〇時五分 (東) 琵琶
◇同二時 家庭講習
◇同六時 (名) 童話劇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大) 人形淨瑠璃
◇同八時五〇分 (大) 歌謠曲
◇同九時五分 (大) 人情噺

十二日(木曜)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바다여마하라』李命萬
◇同三時一五分 常識講話 韓琢表
『黃道길의봄』
◇同六時 兒童劇『어린音樂隊』全二景 —金泰晳作—
【配役】貞華(길일흔少女)…金貞玉 點石(불상한少年)…康仁守 그의아버지…毛麟九 그의어머니…金龍燮 그의아저씨…崔仁化 金점지…金泰晳 군중(一)…李龜祚 同(二)…金相德
出演 朝鮮兒童藝術硏究協會 解說 尹喜求 伴奏 金文星
◇同六時一五分 復習時間 國語 四川孝雄
◇同七時三〇分 講演『民謠와社會敎化』金合俊
◇同八時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孔明歌 三、寧邊歌 崔貞子 金眞紅
◇同八時二〇分(東) 絃樂合奏 푸로알토絃樂合奏團 指揮 아렉키산다모기렙스키
◇同八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赤壁歌』方應敎
◇同九時一五分 時調와詩書 一、時調 二、出師表 張玉花 鼓手 韓成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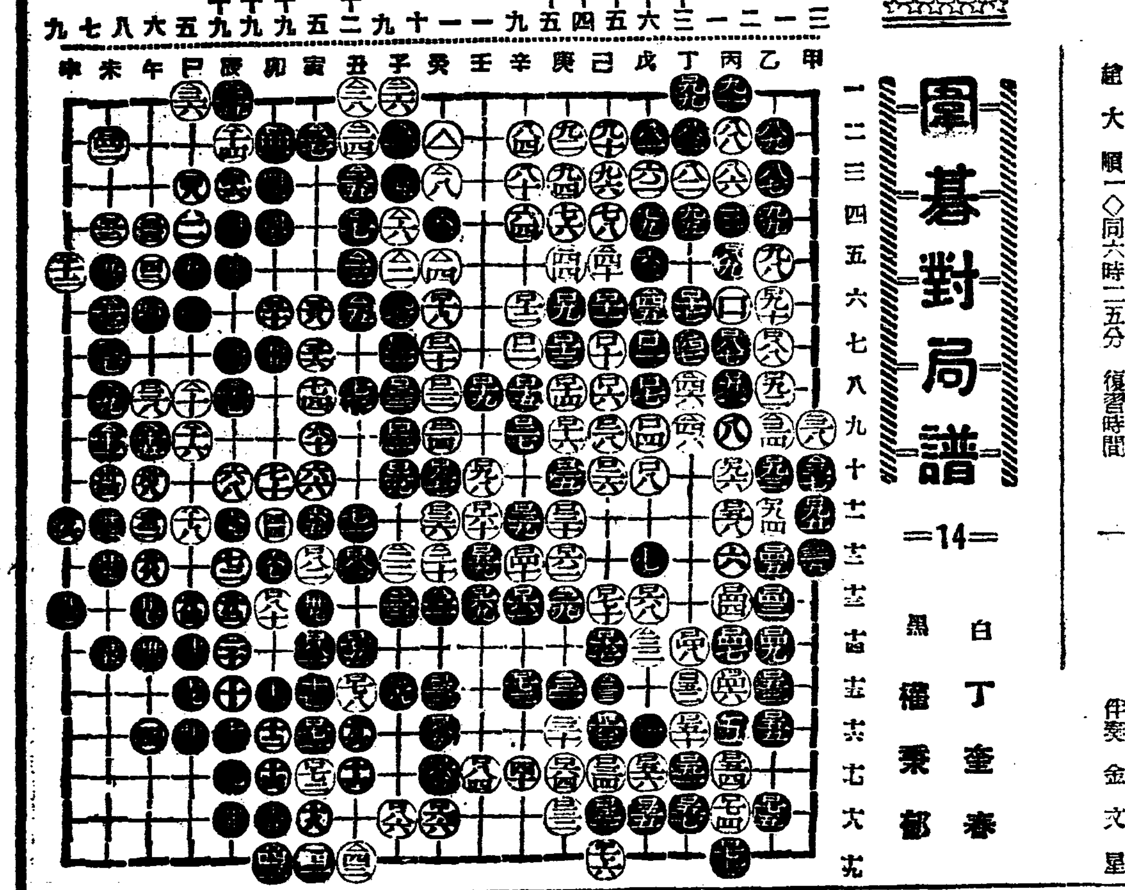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 라듸오드라마
◇二時 家庭講座
◇同六時 (仙) 이야기
◇同六時一五分 趣味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歌謠曲
◇同八時二〇分(東)絃樂合奏
◇同八時五〇分 邦音樂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4=

白 丁奎春
黑 權秉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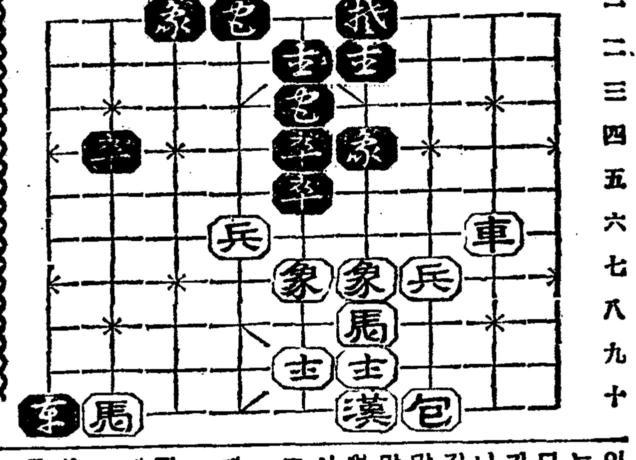
●二三 丑의三
○二六 子의二
●二七 寅의一
○二八 丑의一
●二九 庚의十三
○三〇 庚의十六
●三一 庚의十五
○三二 戊의十四
●三三 己의十五
○三四 乙의九
●三五 辰의一
○三六 巳의一
●三七 甲의十
○三八 甲의九
●三九 庚의十二
○四〇 己의五
●四一 寅의十九
○四二 丑의十九
●四三 卯의十九
○四四 庚의五
●四五 戊의六
○四六 丁의八
●四七 丁의七
○四八 丁의九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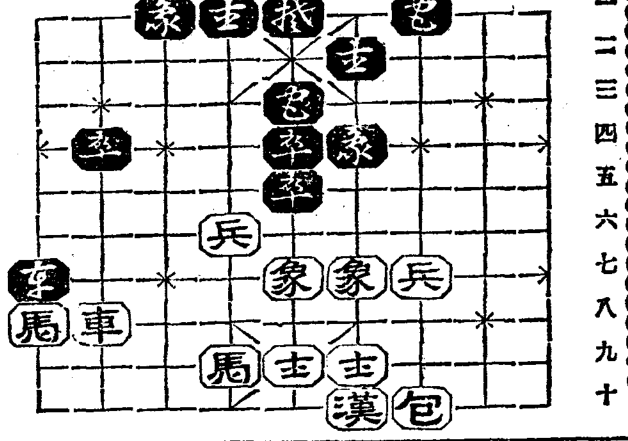
漢先手 兵一減 李在鳳 對 楚 金漢榮

◀六十手圖▶



◀七十手圖▶

丁八馬—己九
丁二(包)—戊一
乙六車—乙八
壬十(卒)—壬四
乙六車—庚八
己二(包)—丙一
辛十馬—壬六
壬四(卒)—壬七
庚八車—辛八
戊二(卒)—己三



黃昏 【32】

韓雪野 作 / 安夕影 畵

새사장 (四)

안사장은 안락의자에 허리를 파뭇고 뒤로 몸을 젝긴채 신문을 보고 잇다。홍차가 뜨는 때의 버릇으로 눈초리ㅅ가에는 세비줄 가는줄음이 잡힌다。

가정면과 오락면에는 잠자리 날개가튼 하르르한 경라(輕羅)를 입은 녀자들의 사진이 잇다。

그는 눈을 들어、제자리에서 글을 쓰고잇는 려순에게로 시선을 보낸다 날창밧그로、새솜가튼 힌구름송이가 유유히 떠도는 파아란 하늘과 초녀름진 한헤미체 비죽인 솔모레딘가튼 압들과、그러고 그우에 그려진 무르녹은 록음이 언뜻 내다보인다。

순간、그는 무언지모르게 짜릿한 미감을 깨달으며 담배한대를 끄내어가지고 재떠리의『라이터―』를 놀른다。

그는 또한번 려순을 흘금 보구는、신문의 사진으로 다시 시선을 떨어트린다。

나히는 어엇서도 녀자를 초아하는 라고난버릇은 늙지안엇다。아니 로욕(老慾)이라고 할지 갈수룩 나ㅅ보람업시 되려 자심해지는듯도 하엿다。

그는 지금도 소실이 몃이나 잇다。하나는 신녀성이요 하나는 기생이다。돈을 모은후 빗다른것이라고、적지안은 돈을 써가며 소위 신녀성을 마저왓스나 그도 한때의 흥미에 지나지 안엇다。어느새 아기자기한 맛이 업는 한개의 인형이되고 말앗다。기생도 번가는 그무릅뿐이지 드려안치고보면 화병에서 시들어가는 한떨기 꼿이되고만다。

이러한 심리는 그로하여금 밧게서 향락을 찾게하엿다。

그리하야 요세는 소위 모던껄에게 구미가 터서、연회가튼데서 취해가지고는 감금 카페―로 드러간다 한번은 영화회사를 만든다는 어떤사람의 연줄로 녀배우 한사람을 알게되엇스나, 그녀자를 짝고도는 젊은사나히들바람에 만날기회조차 어들수업섯다。

그래서 그는 손쉬운 카페―나 빠―로 차자드는일이 종종 잇다―

음악은 업서도 조타。홍등록주(紅燈綠酒)는 아무러트래두조타。빗다른녀자만 잇스면 그만이다。

그는 첫재 녀자의몸을 본다 더욱 그 가는허리와 그아래의 풍부한 곡선을……。그래서 여겨다 초ㅅ점을 두어 가지고、그담으로 얼굴을 치보고 종사리를 내려본다。

『되서!』

하고 그담에는 손으로 녀자의 육체미를 감상하는 버릇이 잇다 자기의체면이고 상대자감정여하를 생각지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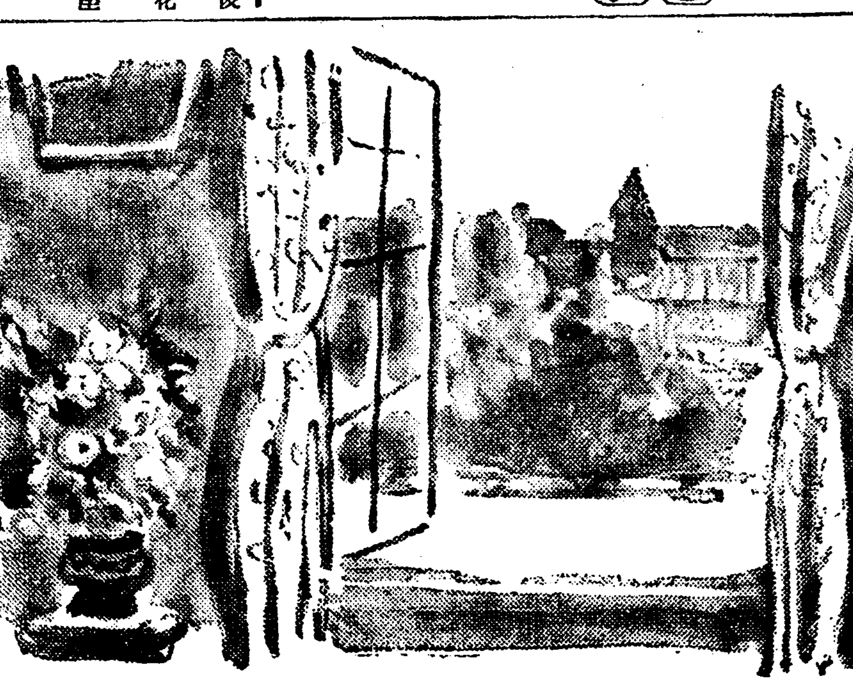
하나 사장의자리에 안저잇는 동안만은 그러캐할수 업다。해서 려순에게는 퍽 점잔은 체를 빼고 말도 삼가한다。

그러나 날이가고 달이바뀌는 사이에 그의배ㅅ속버릇은 려순에게로 옴지기게되엇다。

려순은 말이 적고 행동이무거뤗지만 무슨말을 식혀보든가 일을식혀보면 령리하고 초롱지다。

그리고 또 처음 들어올때보다는 밋근하게 때가 버섯다。맨처에는 모양이 수수하고 체격이 바른 시골내기라고만 생각햇지만、두고 두고 보누라니 첨에 발견하지못하든 여러가지 장점이 새로 드러난다。

사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며 또한번 려순을 내다본다。의자에 걸친 그의측면이 뵈인다。뒤ㅅ맵시의 뚜렷한곡선을 더듬으며 그의시선은 오르내린다 ―살ㅅ 양말에 쌔인 놋놋한 다리、압이마로부터 귀밋가로를 결치는 맷오리 고실머리 하이얀귀、령리하합、되독한코、붉으레한빰、그리고 그보다 턱아래에 애오라지 동옥하게 그려진 곡선은 오늘처음발견하는 미(美)다。



『남남북녀란말이올흔』

하고 그는 입을 다시엇다。

신문의 사진보다는、실물인 려순에게로 시선이 떠돌린다。사진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심리는、곳 려순에게로 갓가와지는 심리인것이다。

그의 물끈만은 공상은 감을자호며 려순의몸에다 공상의、가즌 치장을 베프른다。화려로운 옷을 입히고 눈부시는 성적을 하고 그리고 비루 저계로 울충의스텝을 공상으로 그의몸에 그려본다。

『양장이나 식혀봣스면!』

그는 열망이 고수해젓다。그때다。문이 스르르 열리며 금사가 무슨 물건봉지를 들고들어오며

『회사에 물건청하섯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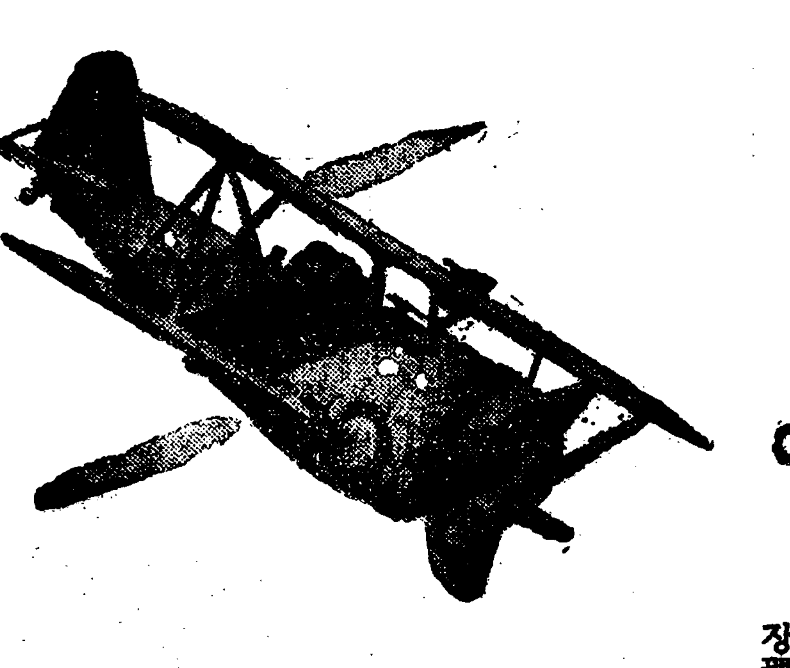
하고 려순에게 뭇는다。

『아니요』

하고 려순이가 대답할때에

『오냐 내가 청햇다』

하고 사장은 급사에게 말하며 려순이더러 바드란는드시눈짓을 한다。



試驗迫る。強力なる頭腦を整備して
勇躍·学業の難嶮を突破せられよ!

學生諸君!

만일 工夫中에 머리가 압흐든가、혹은 머리가 무겁고、멍하든지、지끈지끈하야、다른때가트면 쉬운數學의問題가、오날에限하야、아모리해도 풀니니자안튼지、地歷等의 記物이 아모리 해도 記憶되지안코、英語한페―지가 아모리 쥐여뜨더도 나가지안코、自己로 서도『今日은 普通이아니고나』라고 生覺되는때는 업는가? 特히 受驗日가튼때에는 흔히머리가 압푸던지、氣分이울넝거리곤하는때가만타。이런때야말노 ノーシン의 最活用時이다 試驗삼아ノーシン의一服을! 그리고 一分、二分、五分 그러케 압푸든 頭痛도、그러케 흐릿터분하든 頭腦의 疲勞도、혹은頭重、朦朧等도 除去되야、다시 淸新한頭腦로써 마음껏 工夫에熱中하는깁븜이야말노 多數 先導諸氏가 實驗推奬한 ノーシン의 가장 効果的인活用方法이다。

ノーシン은豊富한 經驗과熟練한 技術과整備된 製造行程에依하야、完成된純正頭腦藥이다、그 자랑할 藥效는 오직『頭痛을醫한다』그뿐아니라、同時에『腦神經의疲勞를恢復』식혀『朦朧한頭腦를 明快케하는』作用을 갓고잇스며、더우히奏效가 極히快適하며、또한胃腸等에는 安全無害하야 常用하면 神經의榮養을 良好케하며 心臟을 强化식히는等、獨特한 綜合的効果는、他種頭痛藥으로서는 追及할수업는所以이다。ノーシン이야말노 항상 頭腦를 酷使하는 學生事務家諸君의 常備藥으로써 가장理想的인것이다。

主効
頭痛 頭內朦重 頭腦疲勞 精神憂鬱 心氣倦怠 眩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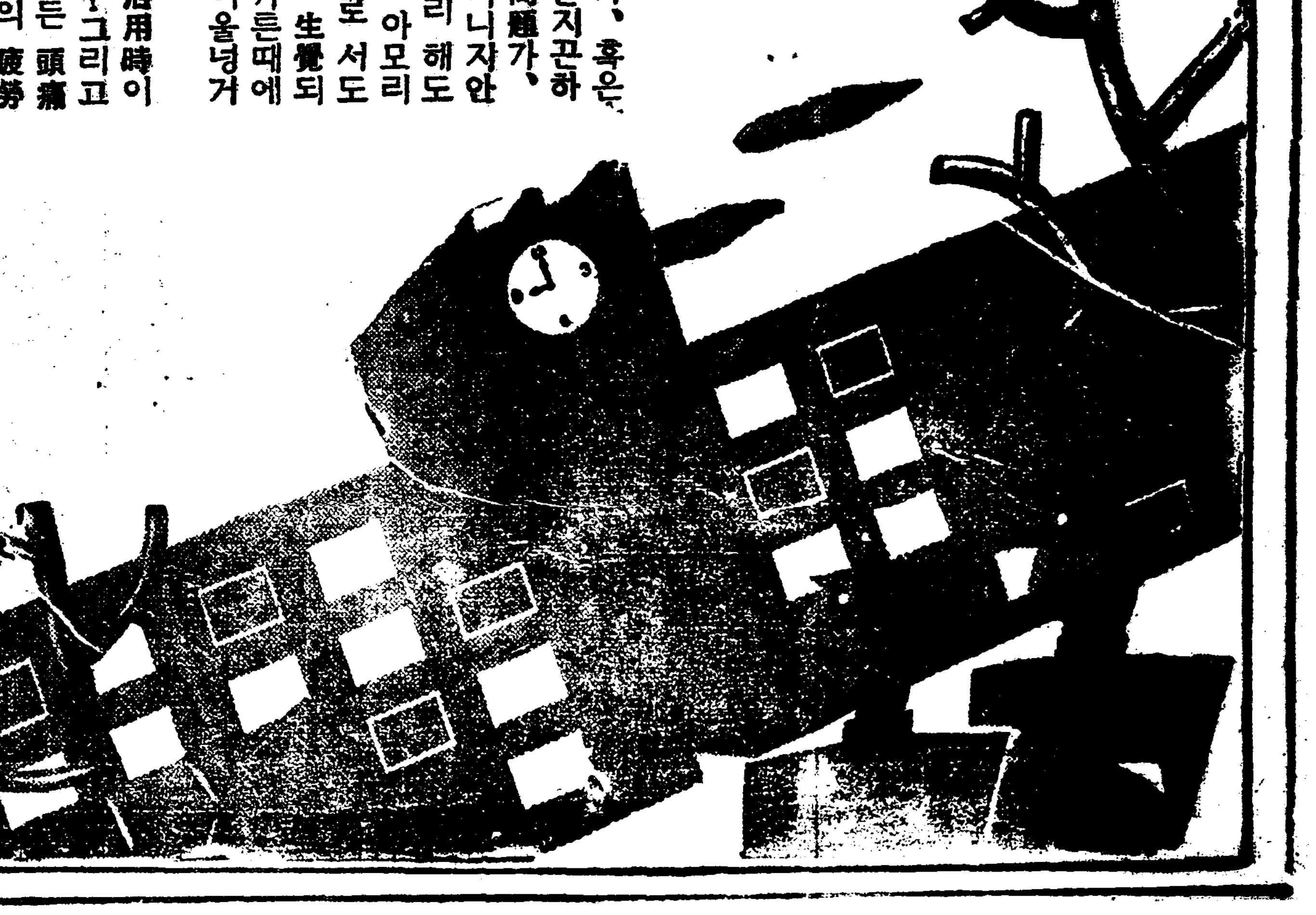
藥價·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全國藥店에서나 데파―트藥品部에잇슴

頭腦의疲勞恢復藥

ノーシン 노―신

受驗生의必携藥



製造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發起四十日未滿에 五十二萬圓突破

南에서 北에서 遝至하는 赤誠의 喜捨金

盛哉! 安岳高普期成會

【安岳】 루보하는것과갓치 배워야산다는 늣의 스로칸으로 배움에주린 그들을위하야 황해도안악에서도 고보긔성의 깃발이 안일개월전에 해서교육계에 날이게되엇다 발긔인회로부터 긔성회조직을것처 금일까지에 이르러서 남으로는 멀니 전북정읍(全北井邑)으로부터 해서지방으로 옹진장연등지와 강건너 진남포(鎭南浦)에서도 우명씨 오백원을 비롯하야 안악군내에서도 적성을 다한바 그중에도 대원면내(大遠面內)에서만도 사만칠천원을 넘것이다 아즉도그외 팔개면이잇스니 압흐로도 성적이 얼마나 진전될는지 저난 팔일까지의 모힌 금액은 오십이만칠천원에 달하얏는데 지금까지의 희사한 독지가의 씨명과 금액은 아래와갓다

金庸鼎十萬圓 金庸震十萬圓 金鴻亮十萬圓 金秉寬一萬圓 柳亨甦五十圓 全武吉一萬圓 崔弼江一百圓 崔燦第五十圓 李承麟三圓 金昌錄一百圓 金泰燮五百圓 金燦洙一圓 金德裕五百圓 宋潭根一百圓 金李根二百圓 郭弘涉三百圓 孔龍岩二十圓 板七里崔載文二圓 羅亨鎬二十圓 金桂澄 金寬鉉各五圓 鄭興錄 崔淳吉各十圓 金永洙一百圓 尹德三二圓 元明淳 張萬泰各五圓 朴貞寶十圓 金鎭淳五圓 朴永寬五圓 金志俊一圓 金宗均二圓 金永根五圓 朴瓚益十圓 鄭京洙五圓 金宗煥十圓 金亨植五圓 朴能周二圓 康宗順十圓 田有伯五圓 羅亨譚 元智順 洪賞億各二圓 金昌鉉五圓 金弘觀二十圓 李紹馥五千圓 馬滑五十圓 金道一十圓 白南鎭二千圓 崔京安五十圓 金基鵬一百圓 金雲錦五圓 金昌範五百圓 李成律五百圓 金元仁二百圓 元成煥二百圓 許淵一千圓 鄭寅桄十圓 柳一百圓 許源二十圓 延學斌五千圓 韓仁淑五十圓 吳桑林五百圓 鉉五百圓 康亨基一萬圓 具子鶴 小川里李應善五十圓 鄭宗植一千圓 韓張源一百圓 元行燮三圓 高敬俊五圓 崔在俊二十圓 車升庸一千圓 韓士凡 金京義各十圓 朴桂善九圓 康濟淑一百圓 朴鍾彬 李東煥各一百五十圓 朴容植一百圓 李炳俊五十圓 金義誠五十圓 閔泳稼一百圓 金在星一圓 李炳夏三圓 姜敦象五十圓 金雲建三圓 宋錫祚五圓 李泰學一千圓 張明球一百圓 金鳳麟十圓 金弘根 朴泰森各二十圓 宋秉粲三千圓 丁一善一百圓 姜敦鎌五十圓 李成實 李良春各十圓 李明球三十圓 李昌殷十五圓 林昌燮 李寬東 宋宗涉各五十圓 李璇球三百圓 金永善五圓 金熙昌三十圓 尹德化十圓 張尙玉二十圓 物登順五十圓 李潤鎬五圓 邊仁永一千圓 林宗源五十圓 申致俊 金斗燮各一百圓 金貞三五圓 崔昌林二萬圓 金在淵一千二百圓 楊昭恒四百圓 許弘燮三百圓 安金三五百圓 林昌洛四百圓 金泰根五十圓 成榮道合名會社五百圓 金應鎬 李順應各二十圓 李福泰五十圓 金亨鎬二十圓 姜周瑞五十圓 朴遠里 柳東祚一百圓 朴宅洙一圓 崔相祐各一圓 金光海三百圓 金元彬 長庚里村青年會 朴貸邦各五十圓 金宗星三十圓 李基均二十圓 李東善一千五百圓 朴達源二千圓 孫昌順一百圓 黃錫老五十圓 全鳳實二百圓 李在衛二百圓 朴成郁十圓 裴錫斗二十圓 朴賁永五十圓 瑞山里 申恒緖二百五十圓 金瑢奎七百圓 金炳洙一百圓 金鎔元二千圓 元正善一百圓 閔光善五十圓 李智洙五十圓 金基善五十圓 金應坤一千五百圓 金炳鴻四百圓 安仲瑞一千圓 鄭顯哲十圓 鄭萬源三圓 崔大淳三千五百圓 金京煥三百圓 方鄕參一百圓 金鎭亨一千三百圓 柳承烈一千圓 金興善一百圓 尹遠永 鄭璿浴各五十圓 韓明洙一百圓 李輔綱五圓 鎭南浦無名氏五百圓 張炳祥 柳東奎各一百圓 金基鳳五十圓 白俊億六十圓 崔明植一百圓 李永坤一千圓 洪炳周一千圓 柳志淳一百五十圓 元積澤三萬圓 金應石三萬圓 玄行默十圓 岡崎翔五十圓 金運成 金仁喆 閔春植各十圓 崔宗玉二百圓 金利淳五十圓 朴基鉉五圓 慶益順三十圓 鄭宗興五十圓 張熙文二十圓 鄭昌錐三百圓 李敬鎬三百圓 李文觀一百圓 崔宗洙一百圓 李寬國二十圓 尹相熙一千圓 李泰華三百圓 李昌瑚二百圓 崔臣夏二十圓 朴宗植三十圓 林基源 劉在華各一百圓 宋寬鎬三十圓 朴承元十圓 林錫淵二十圓 鄭寅俊十五圓 朴昌瑚十圓 申泰元 姜應秀 林義根各十五圓 林允德 金義鎬 金基萬 崔貞煥各十圓 崔昌烈五圓 朴用緖 李在浩 金石仙 宋應燮各十圓 韓泰學五圓 李世奎十圓 魯昌善 高殷直 朴承華各五圓 安承涉十圓 金守甲 金尙鎬各五圓 崔丙賢十圓 林浩俊 崔宗龍各五圓 閔炳善十圓 吳東燮五圓 崔秉賢十圓 朴基永 朴錫律各二十五圓 林延燾八十圓 宋基周六十圓 金濟奎五十圓 李震學二十圓 宋存十五圓 安庸恒 車德甲 朴容洛各二十圓 金永石 孫伊萬各十圓 車萬頭十五圓 高泰景十圓 朴容瑞 李元浩 李海汀 宋成約各十五圓 李九衛 柳忠杰 崔應健 張星斗 宋基化 朴元俊各十圓 李容贊十五圓 宋允三三十圓 宋允八二十圓 宋鎭約十圓 安利謙 宋基憲各二十圓 康永俊十五圓 權承祚 宋基賛各二十圓 朴海鎭十五圓 孫福五 宋基河各二十圓 崔鳳國三十圓 金鳳賢十圓 金鼎淳四十圓 崔龍國 韓奎學各五圓 李炳溢二十圓 曾各十圓 孫萬五十圓 金景欽 朴光十五圓 柳仁淑二十圓 金明辰十五圓 金紀鎬五十圓 張伯鉉十圓 韓忠翠十五圓 閔淳基 梁福成各十圓 張在鶴十五圓 康泰鳳 金丙寬 金丙圭 金亨淳 白麟玉各十圓 趙乘濂十五圓 金貞周各二十圓 崔貞模十五圓 黃七星 金星年 宋承俊各十圓 李熙元二十圓 柳楽和 金顯東 林泰根各十圓 姜元善二十圓 李昌善五十圓 鄭基老十圓 李應俊二十圓 崔昌顯 黃龍坤 金仁源 金應源 尹承燁 吉命浩 任龍浩各十圓 崔永勳 洪宗泳各五圓 李允祥七圓 方泰俊十五圓 韓承禮 李奎璨 宋尙模 洪宗贊 崔亨斗各十圓 韓應敎五圓 朴景敎 張泰善 張泰敎 宋韓楨各十圓 林泰植五十圓 朴善二十圓 宋容洙三十圓 宋思彬 宋光鉉 張德昌 高鳳淳各二十圓 鄭益九十圓 崔永壽十五圓 崔化萬十圓 裵在承二十圓 李希道 李東林各二十圓 金泰俊五圓 崔鎭承十圓 徐正官二十五圓 裵善斗十圓 崔益斗四十圓 金在浩四十圓 張承謙二十圓 方承幹十五圓 鄭基善 朴乃燮各二十圓 尹龍鎬十五圓 崔仁萬四十圓 崔明三十圓 李仁衡 金基俊各二十圓 崔潤俊 吳仁鎬各十圓 林龍喆五圓 金益謨十五圓 金錫松四十圓 張仁聖 柳晋錫各二十圓 金錫祐 金十圓 崔逸萬十五圓 李泰基十五圓 具然七二十圓 朴宗根三十圓 張鉉九 鄭寬洙各五圓 方永俊六十圓 張應元五圓 宋允七五圓 高聖俊七圓 崔培根十五圓 崔眞舜三十圓 宋昌謙 宋基元各五圓 具淳喜二十圓 元學謙十圓 鄭然球一千圓 尹達慶二十圓 金鼎均五圓 黃泰燮十圓 金知準二千圓 金知譚五百七十圓 江陵金氏宗中二百圓 金知謙一百圓 金成期 金知煥各二十圓 金知鳳二十圓 金知勳三十圓 金興朝二十圓 李仁英五十圓 金成福三圓 元龍水五圓 朴成寬十圓 鑄景斗 黃昌路各五百圓 黃京錫二千圓 姜奉泌二千圓 金益權一千圓 林奎壁三千圓 金善極三千圓 金聖郁一千五百圓 李聖瑞一千圓 車先容三千圓 李濟二千圓 金善直五百圓 李泰三 金圭昌各五百圓 黃德淳五十圓 朴財浩二十圓 崔濟鉉十五圓 金孝善十圓 金孝賓七圓 吳炳根 朴亨模 鄭己永 元澤淳 李芝守 李京伯各五圓 朴敬容七十圓 崔益塤六十圓 申淳默四十圓 權潤仁淑二十五圓 金炳國三十五圓 羅敬明福 鄭顯斗 李長善 郭明漢 張亨式 金鍾鎬 金奎贊各二十五圓 金鉉四十圓 崔慶華三十五圓 崔世潤三十圓 田在玉 林仁贊 金鎭瑢各三十五圓 安在衛五十圓 鄭明俊四十五圓 李永善四十圓 洪順根各二十五圓 高斗玉 崔明俊 吳圓 金承元十圓 金官和四十圓 金興周 吳成實 林元淳 金貞權各三十圓 柳東天二十圓 金孝元二十圓 金東周十圓 高斗賢三百圓 朴春瑞 金達淵五十圓 黃昌植十圓 楊仁伯三十圓 黃昌禧五十圓 李東七百圓 趙景雲五十圓 姜文益十圓 趙東瑞二百圓 金達澤五圓 李漢郁十圓 安承化二十圓 金桂鎬五圓 鐵山洞中代表 金時英八十圓 趙景三千圓 朴承彬二百圓 池澤龜三百圓 金義泳 金東淑 張和順各五十圓 金宗鉉 申鍾秀 金知亨 朴炳鎬各十圓 金澤朝十八圓 金習學十五圓 金知塔二十圓 李廷善十圓 李根權 申尙彥 金知淳各十圓 金昌連十八圓 李聖淑十圓 閔漢其二十圓 金基福十七圓 安光烈 金知燮各二十圓 李潤鎬三十圓 元承模二十五圓 姜秉模 金秦健各二十圓 金泰善十五圓 具然權十七圓 金昌成十五圓 魯仁煥十圓 金鎬植十五圓 金鎬烈二十圓 魯昌善十二圓 權德進十圓 金致卜十圓 李秉國二十圓 文長東 千泰善各十五圓 崔亨極 權達植 具然哲各十圓 柳春植十五圓 金習耀一百圓 金東鎬二十圓 金化泳十五圓 金知淵三十圓 金知浩 金昌殷 金綃泳各二十圓 千應珍 金京朝 千道福各三十五圓 李承華二十圓 李京哲三十圓 千應彬二十圓 金基涉十五圓 車斗禧二十圓 鄭興模十五圓 李演昊 申允珏 金德植各十七圓 申斗善十五圓 黃斗炳十五圓 高正奉十七圓 金永熙 千應落 李亨權 崔學成 曹昌壽 千義泰 柳根浩 金得昌 鄭濟東 吳璟益 鄭弼浩 金光洙 金炯植 韓雲瑞各十五圓 金鎭郁十二圓 鄭明福 朴炳燮 魯永根各十圓 鄭承烈十三圓 李奉善十圓 金時萬十三圓 金知斗十五圓 李聖哲十二圓 崔鶴煥 崔鶴俊 白萬奎 千李京各十五圓 金永一十三圓 金滄德十五圓 金鶴乾 柳鉉仲 金在亨三圓 羅漢元十圓 金東烈四十六圓 金鳳泳一百圓 崔京元五圓 金益謨六十圓 安景洙 安光奎 朴昌杰 金永善各十圓 黃學仁二十圓 金準浩五圓 方熙祚十五圓 梁金益秀各十圓 朴昌輝 申仁善 永浩 方義燮各十圓 金寬洙十五圓 林鳳河二十圓 姜根植十圓 安昌浩五圓 羅秉斌 梁萬章各十圓 金文浩五十圓 朴壽鉉十圓 申長三十圓 韓昌謙 朴璇烈 李龍順 涯十五圓 宋致益二十圓 金致默 鄭英模 金龍浩各十圓 朴俊三五圓 梁銀奎 安文浩 安知旭各十五圓 徐鎭玉 鄭煥圖 裵淳道 朴元瑞各十圓 吳京三二十圓 崔濟泊五十圓 朴裕源十圓 楊晋逸五十圓 元龍鎭十五圓 吳俊植二十模二十五圓 林允玹十五圓 田圓 金七星 朴尙淑各十五圓 姜德永基 莊鐵澤各二十圓 張德模二十五圓 李道瑩三十圓 朴龍見二十圓 閔丙南十五圓 朴昌權 嚴斗七 邢永順各十五圓 邢世默十圓 白南澤 李錫亨 元貞洙各二十圓 奇傑植 崔作之各十圓 崔雲瑞二十圓 李奇淑 邢奉仙 金華山 趙東根 申斗憲 盧昌善三十圓 朱武伯十圓 權丙連 光俊各十五圓 金在根二十圓 李韓光守 宋用先各十五圓 李元鎭二十圓 金永涉三十圓 莊益成二十五圓 張丁鈞 李東華各十五圓 吳聖昌 金昌壽各二十圓 李興健 金履哲 金尙郁各十五圓 崔俊龜二十圓 金基涉 鄭世彬各十五圓 金濟涉二十圓 金必福十五圓 尹昌健二十圓 崔濟敏十五圓 朴應模二十圓 趙東賓五十圓 林成煥 林秉浩各十圓 李龍弼五十圓 崔吉煥十五圓 田成凡十圓 孫松植一百圓 池澤龜三百圓 趙東根二十五圓 金奉鶴四十圓 金雪祚二十五圓 鄭致煥十五圓 黃昌連 金鳳亮 金明亮 金雲鶴 黃龍權各十圓 金龍益二十圓 黃俊明 張容賢各十圓 朴允業二十圓 李漢鎬十圓 金斗鉉 李鳳石各十五圓 鄭順模十圓 李明根 李道圓 張京福 金壽福各十五圓 崔鉉雲 黃龍澤各十圓 黃聖瑞二十圓 鄭惠雲 鄭昌善十五圓 林永俊十五圓 朴慶善十五圓 張泰善十五圓 中大成十圓 李昌南 林暾俊各十圓 鐘濟洙 鄭奉理 鄭宗烈 魯吉成各十五圓 鄭學達 丁南允 丁乘鎬 金仁晉各 金浩善十圓 林鳳五五圓 洪在浩二十圓 池亨植 池君燮 柳東林各十圓 高東郁十五圓 李容實十五圓 金成坤七圓 金炳烈十圓 朴慶權 朴慶用各十五圓 文慶祐二十圓 姜順明 林龍祚各十圓 林斗柄十五圓 金永八十五圓 崔致敏十圓 鄭萬益二十圓 李益瑞十五圓 李淳植 鄭守元 金永實 金澤根二十五圓 李仁植 李元仲各十五圓 李元彬二十圓 金永福 吳龍順 梁周根 李道萬各二十圓 高仁泳 鄭煥表 李王祚 林奎璜各十五圓 金錫昌 洪孝信各二十五圓 任允宰 金錫祐 鄭龍權各十五圓 金仁柄 高仁化 高斗七各二十圓 高斗然十五圓 魏昌善三十圓 鄭孝元十五圓 金贊仲二十圓 鄭益秀十五圓 李元天 鄭鎭淑 趙景南 郭元魯各二十圓 孔寬俊二十五圓 林奎琺二十圓 孫龍模五十圓 孫秬植 孫相植各二十五圓 金用浩二十圓 金永三二十五圓 金錫魯 林老恒 梁應淵各十五圓 高應三十五圓 高道彬十五圓 崔桂植 黃貞坤各二十五圓 張致謙 金善敎 丁升烈各十五圓 金炳旭 李道璜 洪在洙 黃泰善各十圓 高應斗二十圓 李漢永二十五圓 魏昌盛四十圓 李聖雲三十圓 李聖浩 李德培各十五圓 李永民二十圓 金汝鐸 林大錫各十圓 金貞弼五圓 李麟培二十五圓 崔甫坤 裵承浩 任龍河 任鳳朔 池永祚各二十圓 崔致祥四十五圓 崔承瑞二十圓 金鉉弼 閔連鎬各十五圓 崔鍇淳二十圓 閔子植五圓 李道永 金乃賢 朴基點 陳根河各十五圓 金鍵坤 姜永道各二十圓 金龍七二十五圓 趙基烈 閔道一 林東根 李仁奎各二十圓 林昌南十圓 鄭致浩 李錫煥各二十圓 李學俊 車永均各十五圓 閔益文十圓 林斗實 林圭南 安景佑各二十圓 閔忠基 閔庚學 朴殷植 羅永俊 金鄭錫各十圓 閔丙哲五圓 金興郁十五圓 閔瑞植 張昌鉉各二十浩十圓 閔丙龍二十圓 林益義五圓 宋永益十五圓 梁京川 金德秀各二十圓 金奎成十五圓 金承傳五圓 金奎煥 金鍾守各二十五圓 崔錫英二十圓 崔濟琮二十五圓 崔承伯 趙南七各二十圓 李基漢二十五圓 朴山善十五圓 李元亨 李丙曦 全帝三 李京先各二十圓 宋潤燮二十五圓 宋漢成 宋龍貴各二十圓 閔福植十五圓 閔潤基二十圓 林秀山三十五圓 林景煥二十五圓 林允植十五圓 安璣俊二十圓 金大鉉二十五圓 洪鍾璧二十五圓 張德俊二十五圓 張昌鎬二十五圓 孫在鍵二十圓 鄭仁昌三十圓 朴應杰十五圓 鄭元敏 朴昌雲各二十圓 朴永煥十五圓 吳相彥三十圓 韓文千十五圓 張鎭夏十五圓 申萬福二十圓 尹觀鎬二十五圓 金尙鳳十圓 李賢淳 閔丙範 丁在文 鄭容員各二十五圓 林俊善 劉丙斗 趙載俊各二十圓 張大旭 車達永 申泰俊三十圓 林明基十五圓 林奎昌三十圓 金在奎二十五圓 金永斗 金鳳鎬各二十圓 金永煥三十圓 金元俊 李芝培各二十五圓 李張宗二十圓 李義宗 李義淳 李昌培各二十五圓 李淳水三十圓 趙元彬夏 李根善各二十圓 趙元夏三十圓 張大坤 張益甫各二十五圓 張丙哲三十圓 宋日逸二十五圓 元俊化三十圓 白泰補 劉應文各二十圓 宋基永二十五圓 柳台業四十圓 板八里元鎭九一百圓 金鎭九五十圓 大遠面堂田里 朴承彬 大牛二頭 元龍里 黃益俊田九百三十六坪 黃應淑田一千四百八十一坪 丁輔謙畓一千九百一坪 閔雲植田六百六十九坪 李淇禾田二千八百十七坪

三月八日까지의 現在가 現金五十萬九千六百八十五圓이고土地와 農牛를合해서 全部를 合하면 五十二萬圓也

慶北道産組事件 被檢者起訴難免

初期의産組運動에打擊이라고 各産組內의空氣惡化

【大邱】 경북도내 산업조합 현간부 십여명은 도회의원 산구현삼(山口賢三)씨 실업문제를 배격하려다가 방금 각지경찰서에서 유치취조중이라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취조가 끗남에 따라 근근 출판법위반 폭력행위의 죄명으로써 긔소한다는데이로말미아마 경북산업조합의 운전은 정지상태에 빠저잇슴으로 산업조합운동에 잇서 만흔 지장이 만타하여 방금산업조합측의 공기가 매우악화함으로 문제는 의외로 확대하리라예측된다하며 일반은 그추이를 주목중이라한다

金産業課長談

나의 입장으로써 아즉 대답할형편이 못됩니다。사건에잇서 그누구가 잘하고 못함이 엽습니다 운운

伊藤警察部長談

나는 경성갓다가 오날왓는데 취조내용이 엇더케 되엿는지 전연히 백지올시다 산구씨가 도회석상에서 말한내용을 차저본즉 산업조합의 근본존재를 부인한것은 아니고 운전경험을 말한것인데 이것을 문제시한것은불당하다아니할수 업습니다다유감이지마는 취조에따라 그중의 몃사람마는 폭력행위와 출판법위반법에 저촉될줄생각합니다 운운

旱炎救濟費로 金二百圓獨擔

徐直淳氏美擧

【茂朱】 전북 무주군안성면 금평리(茂朱郡安城面琴坪里)서직순(徐直淳)(三一)은 작년말 한재격심지인 도내 고창(高敞)부안(扶安)금제(金堤)등 각지의 한재민구제의연금을 모집중이라는 말을듯고 리재민의참상과 면내주민의부담과중을 념려하여 동면배당금 이백원을 독자로 긔부하엿다 씨는원래빈한과 싸워가면서 근검과절약으로 자수성가한 독농가로서 유수한 재산가도안임에 불구하고 이가티 다액금을 히사함에는 일반이 감사하여마지안흐며칭송이자자하다

普校學級增加費로 四千圓自進喜捨

蔚山釀造會社에서

【蔚山】 경남 울산공립보통학교(蔚山公普)에서는 학교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매년 신학긔마다 입학지원아동중 이백여명식이나 입학을 못하고 거리에로 밀려나오게되므로 큰 문제로 되여 오든중 금년에는 위선 입학급을 증가코저 일만원예산으로 그중 륙천원은 학교비에서, 남어지 사천원은 지방민이 부담하기로 긔성회까지 조직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 칠일에는 다시 구체적계획을 협의하기위하야 일반 학부형과 지방유지 오백여명의 회합이 잇섯는데 그자리에서 울산양조회사(蔚山釀造會社)대표자 차용규(車容珪)씨로부터 지방민이 부담할 금사천원의 긔부가 잇서 이 문제는 갑작히 해결되엿다 하며 전긔 양조회사는 삼년전 부터 울산청년동맹회관(青盟館)을 건축하여 오든중이며 또 재작년 울산보통학교에 수업료(授業料)를 밧치지 못하고 퇴학할 백여명아동에 대하야 일년간 월사금을 지당하엿고 또그외에도 지방사업에는 어느것할것업시 다대한 공헌이잇는터임으로 일반은 그의 독지에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日鑛私設〃北鎭線〃 八九月頃開通

【北鎭】 진남포(鎭南浦)일광제련소(日鑛製鍊所)에서북진(北鎭)동양합동광업회사 (東洋合同鑛業會社)의 광미(鑛尾)를 매수하여 이를 운반키위한 경편 철도를 칠년간을 한도로 인가를 어더만포선(滿浦線)북신현역(北新峴驛)을 기점으로 그거리로인 북진까지 부설한다함은 본보에 루차보도한바와 갓거니와 해철로부설공사는 작년팔월에기공하여 동십이월까지 완료예정이엿스나 그동안 설계변경(設計變更)으로 토지 매수가 자연지체되여 다시 오는 륙칠월에나 공사가끗나고 팔구월경에야 개통이 되리라는데 동선은 일광(日鑛)의 전용선(專用線)인만큼 승객은 물론이고 화물도 일광이외의것은 절대로 취급지못할것으로 그리 일반의 긔대될바가 아니라한다

黃州에短刀强盜

現金五十圓强奪코 當日로警察에被逮

【黃州】 지난팔일오전륙시에 황해도황주읍덕월리 내전상점(黃州邑德月里 內田商店)에 단도를 든 장한 한명이 뛰어들어와서 단도로 주인을 위협한후 현금 오십여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 이급보를드른 황주경찰서에서는 즉시 현장을조사한후 범인수사에 착수하엿든바 동일 시반경에 읍내에주소를둔 김장손(二〇)이란 청년을 유력한 혐의자로 체포하야 취조한결과진범인으로 판명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아직 여죄가잇슬줄알고 엄중취조중이라한다

面民大會를開催 學級增設運動

【固城】 고성군하일면(固城郡下一面)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는 학급이 부족한관계로 신입학생이십오명 밧게 수용할수 업는형편인데 지원자는 발서일백륙십여명에 달하야 입학난이 극도에 달한현상이다 지방유지의 발긔로 면민대회를 지난륙일에 본교강당에서 개최하고 삼년간 삼학급 증설을 만장일치가결한후 금년부터 강습과라도 두어 극도에 달한 입학난을 다소완화식힐 계획이라고한다

大邱市場町에火災

損害額二千五百圓

【大邱】 구일오전령시오분경에 대구부시장정(市場町)륙십번지 포목상 한달원(韓達元)(四)의집에서 발화되여 삽시간에 동상점일동을 전소하고 소방대의 활동으로 린접가옥에는 연소되지 안코 동십시삼십분에 진화되엿는데 발화원인은 주인이 외출한후에 화로에서 발화되엿다하며 손해는 약이천오백원가량인데 화재보험에 이천원이 가입되여잇다고한다

"貧民의道路賦役 이는惡德의課稅"

慈城田尙峻議員痛論

【新義州】 평북도회는 지난삼일 오전열시반부터 개최 되얏는데 제이일인 지난사일에는 각지의원들로부터 도로부역에대한 불평한점을 들어속히페지하기를 주장하얏는데 그중 자성(慈城)선출의원 전상준(田尙俊)씨가 맹렬하게 당국의 처사를 공격하얏다 즉 도로부역에대하야 당국자는 이를 량풍미속(良風美俗)이라하여 사실을 엄폐하지만은 실상은 하층세궁민만을 곤란케하는 악덕과세이다 찰아리 등급을작정하여 세금으로써 이부역에 대신케하라고 력설하얏스나 그러나 당국자는 도로규측을 개정하기전에는 엇지할수 업다고하얏다

全喆洪氏特志

【三鄕】 동척삼향주재(東拓三鄕駐在)주임인 전철홍(全喆洪)씨는 부임이래항상 소작인들을 위하야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오든중 지난륙일부터 삼개월동안을 두고제일착으로 위선 소작인중에 희망자마을 다려다가 원료(原料)

로써 가장 시대에 적의한계획이라하야 주민일반은 그의독지를자못 칭송하고잇다한다

東萊第二公普校 增築期成會組織

【東萊】 초등교육에잇서서 입학난(入學難)이 우리조선과가티심한곳은 세계에서 례를볼수업슬것이다 금번 동래제이공립보통학교(東萊第二公普校)의 입학상황을보면 놀나지안흘수업다 즉 모집인원은 칠십명에 불과한데 지원자가 이백삼십명이라는 엄청난수로써 입학되지못한 대부분의 천진란만한 아동들의 동심(童心)에 미치는바 영향은참으로클것이다 이문제를 완화하기위하야 지난 팔일오후한시에 학무위원과 모자회(母姉會)의공동주최로 유지간담회를 동교내에서 개최하고 토의한결과 만장일치로 증축(增築)을 가결하는동시에 증축긔성회 (增築期成會)를조직하야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되엿는데 선거된 간부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會長秋鍾樺 副會長朴逸衡 金秉圭 常任幹事十名幹事二十名

五卅事件後繼黨 間共테로團公判

判事의事情으로無期延期

【淸津】 오삼십(五卅)사건으로세상을소란케하든 간도공산당원이 총검거되든후 이것을통분히여인남어지에 그후계당으로 간도공산당적색『테로』단을 조직하야가지고 암암리에 지하운동을하는동시에 두만지방에서 일반로동자 농민으로하야금 혁명호조회(革命互助會) 농민협회(農民協會)등을 결성시긴후 ××파×× ×××의×× 부호의××××등 의죽첨행동을 감행하다가 간도총령사관에검거되야 취조를마치고 청진지방법원으로 호송되엇다가 지난이월이십이일에야 비로소 살인급소요등의죄명으로 예심종결을 보게되야 리득춘(李得春)외륙명에대한공판결언도는 오는십일로정하엿섯든바 그간담임재판장 인호전판사(戶田判事)의사정으로 인하야 부득이 무긔연긔가되엿다한다

金鑛, 土壁, 崩落으로 人夫二名이 即死

成歡馬場金鑛의慘事

【成歡】 팔일오전 십일시경에충남천안군성환면(天安郡成歡面)마장금광(馬場金鑛)사금채굴장에서 이십척가량이되는토벽이무너지는바람에 인부두명이치여즉사를 하엿다는데 본적을대전에둔 조모(曹某)(二二)와본적을 천안군직산면마정리(天安郡稷山面馬井里) 방모(方某)(七)의 이명이라한다

地方人事

◀徐光植氏 (尙州郡廳勤務)退職 人事次本報尙州支局來訪

異次頓의死 【114】

李光洙 作　金奎澤 畵

『예?』

하고 공주는 깜작 놀라서 잠을 깨는드시 고개를 번쩍들엇다。

『절 역사 끗나기까지만 참으시오』

하고 이차돈은 한번더 말하엿다。

『절 역사 끗나기까지?』

하고 공주는 이차돈의 눈을들여다본다。마치 참말인가 의심하는드시。

『예。절역사 끗나기까지。』

『절 역사 끗난 뒤에는?』

하고 공주의 얼굴 근육이 더욱 긴장해진다。

『절 역사 끗난 뒤에는 이몸이 할 일이 다 끗나오매 공주마마 뜻대로 하오리다。』

『혼인을?』

『예。』

하고는 가만히 한숨을 쉬엿다(?)…

『그러면 이몸 물러가오』

하고 이차돈이 일어서라는것을 공주가 이차돈의 장삼소매을붓들며,

『아 참 절 역사는 언제나끗나오?』

하고 뭇는다。

『인제 열흘 가위스날에는 첫법연을 베풀기로 되엿스니。』

『이제 열흘。압으로 열흘』

『예。압으로 열흘。』

『제발 그 동안에 아모런일도 생기지맙소사』

해와 달이 순순히 제 길을가고 바람과 비도 참으소사。이제 열흘。가위스날까지?』

『예 가위날까지。』

『그날 이몸도 부처님께 꼿공양을 하오리다。』

『태자도 되시고?』

『무엇이나 다 뜻대로, 인연대로。』

『그것이 참말이오?』

『예。』

『어리석은 이몸을 돗기조흔 말슴으로 속이시고 밝는 날에 먼곳으로 달아나시는것이나 아니신가?』

『이몸의 말슴을 미드시옵。』

『밋지마는。거짓말슴을 하시더라도 이몸이 아니밋고 어이리만, 불스도 닥는 이는 장가를 아니든다는데。』

『옛날 보광불(普光佛)시절에선혜선인(善慧仙人)이란이도 부처님께 공양할 꼿 다섯가지를 엇기위하야 선정선녀(善淨仙女)라는 여자와 세세생생에 부부되기를 언약한 일이 잇소。피차에 불도를 위하여서는 서로남편을 위하여서는 안해가 희생이되고 안해를 위하여서는 남편이 희생이 되기로 언약하고。』

『아, 참』

하고 공주는 비로소 이차돈의 무릅에서 나려와 안즈며,

『이몸도 그리되엇스면。이몸도 세세생생에 서방님과 부부되어서 서방님 도를 위하야 이몸을 바치스면。아, 참。이몸도 그랫스면。이몸도 선정선녀와 가티 되엇스면 서방님은 선혜선인일시분명하거니와 이몸이야 어듸, 착하지도못하고 깨끗하지도 못』

『선혜선인은 꼿 다섯가지、선녀는 꼿 두가지。』

『오오 선녀는 두가지。서방님은 다섯가지?』

『예 남편은 다섯가지、안해는 두가지。』

『아아。예。다섯가지와 두가지? 무슨 꼿으로 할까。동산에 가장 아름답고 향긔로운꼿으로, 오오 들스국화로 할까。무슨 꼿으로 할까。서방님은다섯가지 이몸은 두가지。이제열흘。압으로 열흘。가위스날이라면서,』

하고는 이차돈의 소매를 노흐며 다시 쟁반에 물을 붓는드시 제발 그때까지 아모 일도 업하고 다진다。

『참말이오?』

『예。』

하고 이차돈은 무거진 장삼을 보며 한숨을 한번 지고 공주의 방에서 물러나왓다。

이차돈이 나간뒤에 평양공주는 어찌할줄을 모르고 방안으로 오락가락하엿다。

『열흘이랑。열흘이랑。제발 아모일도 업스소사』

하고 공주는 옛날 법대로 손을 짝짝 비비면서 빌어도 보고 불도에서 하는대로 합장도 하여보앗다。공주가 자리에 누어서 눈을 부친것은 훨씬 동이 틀 때엇다。

鼻の惡い方へ

鼻의治療는 바르고잘 듯는『湊式』에限함!

新發明의吸入器와湊家의家傳注射液應用의藥液의組合으로써된湊式吸入療法은合理的鼻病治療法으로써數年간非常한賞讃과感謝로써歡迎되고잇다。

使用簡單、副作用어나習慣性에기우러질念慮가업고、엇던곳에서나自由로治療할수잇다。

鼻汁이나며냄새나는분、항상頭痛頭重이생기는분、풀어도풀어도코가맥히는분、분분、곳잘잇치고、記憶力이낫분분、코가낫부고神經質인분에게特히勸하는바이다。

本療法이 잘듯는病은 蓄膿性、肥厚性鼻炎、鼻茸、鼻가다루、臭鼻症、頭重

試藥(七日分)無代進呈

本治療法을希望하는분은꼭一讀하라無代送冊함!

世間鼻病患者를 爲하야自宅에서 손쉽게 되도록 湊式吸入療法의詳細한 方法을解說한『鼻病과其療法』이라는 題目부친 四六判八十頁의 冊을 進呈합니다。

希望하는분은『朝鮮日報』에서 보앗다고 葉書로 左記營業所에申込하시면 即時無代進呈합니다。

類似藥에注意하라 몬저湊式을七日間만實驗해보시라。

最近모든式모든式鼻病藥이湊式을 본뜬 效果에 疑心나는것과 誇大한文句를가지고 鼻病患者를 미혹케하는 賣藥이續出하고잇스나 湊式과는何等 그內容을 가치한것이아니고 아조달는것임으로 注意하여주시오 湊式은 製法에잇서서 絶對로 본뜬高貴藥을 配劑된것임으로 이點은 特히留意하여주시압。더욱히 湊式이他藥보다 優秀한가를認識하기爲하야 吸入器一圓五十錢送料二十錢加算注文한分에限하야 試藥七日分無代添付하오니 充分히 試驗하시도록願합니다。藥液은二十日分一圓二十五錢二個月三圓四個月五圓외 特殊液이잇스니 希望者는 代金引換爲替振替手代用어느거나 無關합니다。便宜한方法으로申込하시라。

東京市日本橋區呉服橋三ノ七(東京驛八重洲橋際)

湊製藥東京營業所

電話日本橋三二七〇〇番

"新財政經濟政策"
馬場藏相聲明檢討
(1)……申泰翊

廣田內閣의早產을 엇어이는廣田新內閣은 大命降下後 波瀾曲折을 거듭하야 難產, 或은流產說이 傳하고 六日間에 이르도록 組閣의完全成立을 보지못하다가 軍部의諒解를 어더가지고 겨우 九日에야 親任式을擧行하엿다 이를 따러서 지난 廿六日아츰으로부터 休會를 하고 繼續하야 十二日間(그中二日間은 公休日)市場이 못서다가 오늘(十日)에야 東京을 비롯한 各地株式市場이 一齊히 開場을 하엿다 그런데 經濟界의『바로메ー터』인株式市勢는 軍需株와 戰會社, 石油株等의 特殊事業株를 빼여놋고는 投機株와 一般事業株가 一齊히 大暴落을하엿다 所謂擧國一致內閣이란 看板알에 新內閣이 出現되고 또는 그의政綱內閣을아즉 모르는 이때에 株式市場의暴落은 무엇을말하는것인가함이 一般으로하여금 疑問의念을 갓게한다

×

그동안 新內閣의藏相 椅子에, 馬場勸銀總裁가 안게되다는消息을 듯고 一般은 저윽히 安堵의맘을 갓고 딸허서 財政前途에 對한不安의空氣는 얼만큼 緩和가 될것가티 보엿든것이다 이것은 왜ー그랫든가하면 後藤內閣의 出現으로써 짜쇼的財政經濟政策의 새로운 展開를 보게되지안흘가 하는不安 다시말하면 어느程度까지 高橋財政의 全面的撤消를 보게되지안흘가 하는 念慮를 갓는傾向이 相當하엿다 그러나 이번에 첫재로 前內閣의 廣田外相이 新內閣의 首班으로 되며 前內閣의 政策을 全然抹殺하는 事는 안일것으로 밋는點 둘재로 現經濟機構에對한 支持者의 一人으로 馬場勸銀總裁가 藏相으로되는마큼 오늘의財界에 큰變化를 일키는 財政經濟政策은 避할것임으로 結局에 大局的으로 高橋財政의延長일것이라고보게엇는것이다마는 部分的으로는 그에對한修正이 不無할程度에 끄칠것으로 豫想하는바가 만흔때문이다

×

그런데 新內閣의組閣에잇서 難產에 難產을 거듭하는 동안에 一般의期待는 相當히사려진傾向이 잇고 딸허서 一部로부러는 失望의소리가 머리를 들기시작하도록 그形勢는 變한것이 顯著하다 이것은 무슨때문이냐하면 첫재로新內閣이 擧國一致에 依한形式을 取하엿다고 하지만 그동안 組閣에잇서서 軍部其他各方面과 엉크러진關係가 到底히 强力內閣으로 볼수업고 딸허서 그政策의實行上 그徹底를 期待키 어렵다고 하는點 둘재로는 馬場藏相은 藏相으로서의抱負를 헤보지못하엿스나 그동안組閣完成까지 일흐는동안의推移가 너무 馬場藏相에 對한期待를 減殺케한 傾向이잇고또는 組閣完成後 藏相으로서의聲明에對한失望이 생기게된點을 들게되는데 그理由가잇다 이에잇서 順序를 밧구어먼저 馬場藏相의聲明을보고 첫재 馬場藏相談의聲明內容을 吟味하기로한다

×

로 表面에잇서서 軍部側의主張을 어듸까지 追從함을 裝飾하라는傾向이 잇는바가 顯著히 눈에 띄이는點 둘재로는高橋財政과 조금은 새로운 色彩 어것을 다시말하면 지금까지의 高橋財政에 對하야修正을 加味하는點 셋재로는 以上의 두가지 點을 얌정세우지만 裏面에 잇서는 어느程度까지는 高橋財政도 加味하야 나아가라는 눈치가 보히는點等을 차저낼수가 잇다 그럼으로 馬場藏相의 聲明을 좋드려서 말한다고하면 徹然한要點을 捕捉하기가 어려운 不鮮明한 內容이라는 생각을 갓게하는바 이것을 다시 와서 말하면 다음과 갓다 ▲그는『對滿政策의遂行, 國防充實, 農山漁村의經濟更生, 國力의伸張等』을 들어서 이重要國策을 實現하여만 될것이라하고 딸허서『歲出減少豫想은 엽수업는일임으로 旣定의 國費의增加도 容認하여야만될것』을 머리말로 삼엇다 이것은 未知數로 表明치안흔바가 아니며 實로 國防充實에잇서는 內外事情上 不可避라는 認識을 두구나 가지고잇는바이다 그러나 이實現有無의問題는 歲出如何로 左右되어잇다 即 昭和七年以來 膨大한豫算은 赤字公債 增發로서 되어왓스나 이미 그赤字公債增發의限度가 到達된念慮가 생기고 딸허서 財政健全化의必要를 늣기게되야 結局은 激增의傾向하는徵兆가 보엿든만큼 漸的公債漸減主義로 高橋財政은에잇서서 新藏相의 國防充實其他 重要政策의實現이라고 말하는그것 보다도 重大問題는 그것을 實現함에잇서서 必要한 歲出의 財源에잇는것이다(續)

高橋財政解消·馬場財政出現

馬場大藏大臣聲明
公債增發、歲入增加
高橋財政과相異點

【東京電話同盟】馬場新藏相은 閣議散會後 藏相官邸에 드러가서 談話의形式으로 다음과 가티聲明을하얏다

國家非常之秋에當하야 大藏大臣의 大任을 拜하고 責任이 重大함을 痛感하고잇다 아직 就任初인으로 具體的方針에對하야서는 말할수업스나 내가 國家財政經濟에 對하야 생각하고잇는것은 對滿政策遂行、國防充實、農山漁村의經濟更生、其他國力의伸張、國本의培養上幾多重要한 國策의實現을 要하야 將來 歲出의減少를豫想키는不可能할뿐만아니라或은더새로國費의增加도覺悟치안흐면안될實情에잇는때歲出의一部를公債에依하야支辦함도無妨하다 또 今日 公債發行이 梗塞하고잇다고는 생각지안흐나 普通歲入을 그대로하고 언제까지나 非常時的 赤字財政의 形態를繼續하야감은 適當치아니라고 봄으로 速히 將來에잇서서의 歲出을 推察하야 이에對한 財政計劃을 樹立하는同時에 普通歲入을 增加하야 財政의基礎를 鞏固케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對하야서는 日本의經濟情勢及社會情勢의 變遷에 鑑하야 國及 地方을 通하야 租稅制度의 根本的改革을 行하야 負擔均衡과 租稅收入의 增加를 圖하며 다시金融界의 情勢에 則하야 適合한 通貨政策及 低金利政策을 實行하야서 事業界의 健全한繁榮과 國民의 金融上의 負擔均衡을 期하고 併하야 公債政策의 圓滑한 運行을 確保하야 가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以上 내가 생각하고 잇는것은 前內閣의 財政方針과는 相當히 差異가잇다고 認하는바 要컨대 財政의 健否는 單只 歲計의 數字에 依하야 分하는것이 아니라 國民經濟에 對한 均衡如何와 財政施設의 經濟的成案 如何에 잇는것으로 나는 今日의 日本經濟界는 이미 이 方針實施에 견될만한 程度에 達하야잇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實施上 時期方法을 그릇하지안코 또 急激한 變化를 避하야 財政經濟의 調和를 失케하지안흠이 肝要하다고 信한다 그러고 此際 國民에 바라는것은 잘 時勢의 趨向을 通察하야 國策의 重大性을 認識하고 朝野가 힘을 合하야 財政經濟의 强化에 協力하야달라는 것이다 (寫眞은 馬場大藏大臣)

上旬貿易入超 二千六百餘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에 依하면 三月上旬全國對外貿易槪算은 다음과갓다 (單位千圓)

輸出	六一、三六三
輸入	八七、五四五
合計	一四八、九〇八
入超	二六、一八二

公債漸減方針破棄
惡性인플레念慮濃厚

【東京電話電通】廣田內閣은 諸勢力의 壓迫을 受하야 委曲되어 成立되엇슴으로 金融界도全的으로 安心하지는 못하는바 大體 客觀的情勢를 綜合하면 財政政策에잇서서는 從來의 公債漸減主義、自然增收策等을 內容으로하는 高橋健全財政方針에若干의 修正을 방지안흘수업게되리라고보이어 公債의 增發과同時에 自然增收一貫을 버리고 增稅政策의 遂行等이 豫想되어 이結果 高橋健全財政을 謳歌하야온 金融界가 若干의 重壓을 受하야 馬場財政의 具體的 展開上에 變態的警戒의 念을 가질것은 一旦豫想되는바이다 金融市場도 馬場財政政策의 發表를 一日이라도 速히 希望하고잇는 半面에는 公債漸減의 鐵則이 破棄되어 或은 惡性인플레도 從來와如히 念慮하지안는바가아니다 또金利政策에對하야서는 金利는 現狀으로 適當하다하야 急激한 金利의 低下를 忌避하고 잇스나 一面에 產業資本關係로 一層金利의 低下要望의 소리가 相當히 强하야 馬場財政은 金利의 現狀을 구래여 固持하지안흘것으로 多少 適當한 程度로 一旦 低下의方向을 거르리라고 豫想되고잇다 五分利債의 買入이 時代부터 問題視되여왓는데 高橋財政은 財政的見地에서 五分利債借替에依하야 國庫負擔輕減은 約三千萬圓程度의 少額에 不過하야 問題되지 안흐나 低金利의 一層進化와相應하야 借替에 對한 念慮는 一層深化할것이다

產業界影響

統制經濟의進出
◇增稅不可避情勢

【東京電話電通】廣田 新內閣의具體的財政經濟政策이 아직 表明되지안헛슴으로 產業界方面은 新內閣出現에伴한 業界에의 影響 今後業界의 動向에 對하야 아직明確한 推想을 할수 업는肢態에잇스나大體에잇서 業界의 根本的基調에 決定的變化를 招來치안흘것은 明瞭하다 單只 部分的으로 多少의 變化가 잇슬 程度에 不過하리라고 觀測하고잇다 即 予先 第一로 增稅問題인데 內閣으로서도 增稅의 具體的方法에 對하야서는 十分 慎重히 考慮를 拂할것은 勿論이라고보인다 產業界로서는 昭和五、六年頃의 不況時代와 달라 最近은 저윽히 順調로 發展經過를 보이고잇슴으로 只今어느程度의 增稅負擔力은 잇다고 할것이다 新內閣이 產業政策에잇서 今後의 業界進展의 芽를 摘取하는 如한 일이 업는以上 어느程度의 增稅實行에依하야 結果되는 影響은 比較的 輕微하리라는 樂觀 意見이 有力하다 第二로 公債政策에 關하야서는 軍部가 要求하는 國防强化策 그他四國의 諸情勢에 鑑하야 高橋財政下의 公債漸減方針은 修正되어 어느程度의 公債增發은 不可避하리라고 觀測되고 다시 이에 伴하야 低金利政策은 一層 促進될것은 必至라고보고잇다 第三으로는 近年日本產業界의 中心的題目의 一이되어잇는 產業統制問題에 關하야서는 今回의 事件에 依하야 表現된 社會的風潮에 鑑하야서도 從來보다 今後는 一層 促進될것은 否定할수업다 그리고 또 國民生活의 安定이 新內閣의 重要政策의 一로强調되는 以上 今後의產業統制 方向이 消費者의 利益擁護라는 方向으로 特히 一層促進될것은 明白하다는 見解가 產業界一般을 支配하고잇다

硫安市勢
反騰出現
四圓四十五錢

朝鮮內 硫安市場은 東京事件以來 一齊히 軟調를不하고 湖南綿方面에서는 一時 四圓四十五錢가량의 低價도 出現하엿는데 廣田內閣의 成立에依하야 도리혀 反騰하고 湖南線方面은 四圓四十五錢에서 五十錢가량을唱하엿다 그러나 市場에는 五圓前後의 旣契約品이 相當하고 受渡問題가 가장重視된다

商品界影響
比較的冷靜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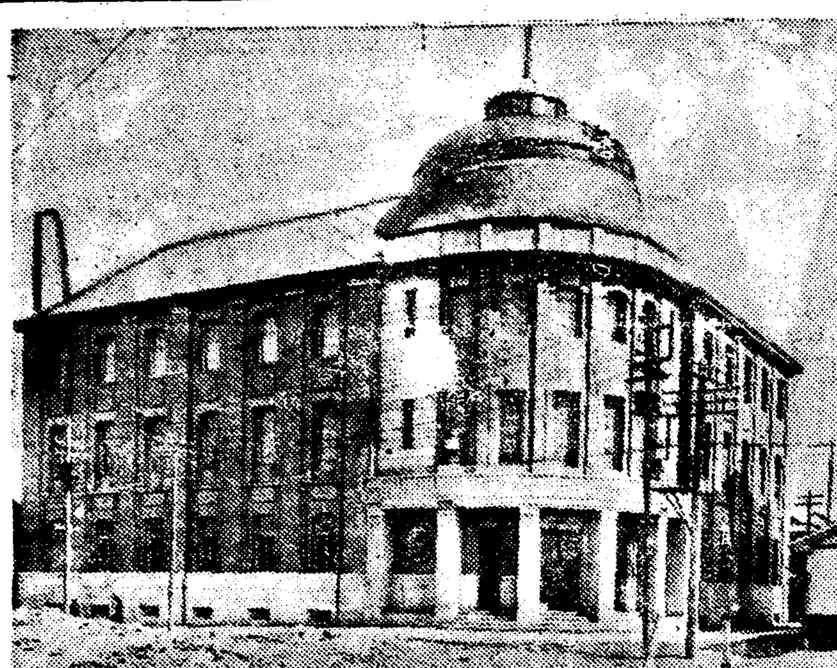
【廣田內閣成立에 依하야 朝鮮內의 一般商品市場도十日부터 一齊取引을 開始하얏는데 各商品共히 十日의 高値品은 次次商談이 엇스나 大口取引은 前途不透明으로 氣迷이오 一般으로 傍觀이다。 또 綿絲布、人絹布、肥料、[illegible]、鐵鋼、砂糖、麥粉、고무等의 重要商品은 大體不變이오 比較的 冷靜히 推移되나 市勢는 一般으로 弱하고 商品에 依하야는 廣田內閣을 歡迎하고反騰되것도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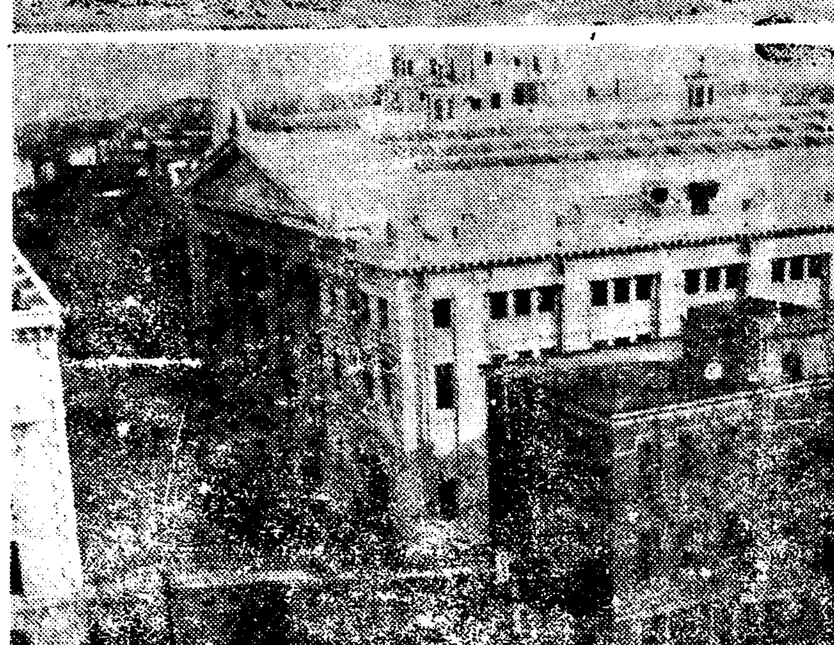
米日爲替少弱

【十日九日發同盟】九日의米日爲替는 前前日에 比較하면 對二十九弗八仙으로 一仙低貫二十九弗五仙으로 三仙低

▲東京爲替(十日) 對米 賣 二十八弗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

▲大阪爲替(十日) 對米 賣 二十九弗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





▲……半歲만에 開場한 株式取引所(下) 朝鮮取引所證券部 (上) 東京取引所

今日財界(十日)

◆米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九、二	二〇低
大阪期米 先限	三一、七	一低
●三等米 一石	二九、〇〇	一五高
京城一三等白米百키로	三一、四	八錢八厘
正租(仁川)一等 一斤價 三等		八錢六厘五

◆市中金銀價

金 一匁	十二圓五十錢	十二圓八十錢
銀	十五錢〇厘	十五錢〇厘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新	二七、四〇	一六〇低
東新	一三七、一〇	二三六〇低
日產	六九、一〇	三五〇低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絲	一九一、二〇	一二〇低
大阪棉花	五九、四〇	一五低
大阪人絹	五三、三〇	一〇低
大阪砂糖	一三、三	一低
고무 現	三三錢五	不變

株式
東新筆頭崩落
前場大混亂、後場休會
市勢와商況(十日)

前場慘落 二、二六事件으로十三日間休會이던 市場은今前場早早 再開되바 寄付前大阪短期大崩落을보고 即時東新四圓大新二圓、鐘新十五圓의 增證을即納식히고 寄付한바 投物殺到이오 利喰物과大混亂이어다 即朝取六十八圓丁(比事件前四圓六十錢低)朝新二十七圓五十錢(一圓六十錢低)鐘新은昨寄未着에 百三十一圓이란 氣소리로 百三十五圓七十錢(二十一圓四十錢低)大新八十一圓(十一圓三十錢低)東新百四十四圓九十錢(十五圓八十錢低)日產七十二圓九十錢(一圓三十錢低)日產新二十二圓十錢、日鐵九十八圓五十錢 拓新十六圓 丁에 慘落寄後 落潮沿沿하야슴으로 또 東新四圓의 增證을徵收하얏는바 結局 東新百三十七圓丁에까지 떠러저 比事件前二十三圓七十錢의 崩落等去益激落이다가 結局朝新二十七圓四十錢、鐘新百四十五圓丁大新七十八圓丁 東新百三十七圓十錢日產六十九圓十錢日產新二十圓十錢 暴六十六圓二十錢에 大引되고午後一時前場을 終하얏스며 後場은振替整理로 臨時休會이엇다。

取引停止 (三月六日)

▲京城府黃金町四丁目一八七番地 安東挽材株式會社專務取締役 武藤守一 代表崎田寅男

地場株人氣集中

淸算株式拜取引에對하야現株界는 一般으로 人氣株는 暴落이나事業株는 比較的穩健한 市勢를示하고잇다 即肥料株는 農村對策强化豫想으로 低落이고 電燈株 砂糖株는 一般으로 低唱이며이에 反하야 軍需株造船、戰會社機械工業、日魯株는 軍需景氣豫想과 特殊事情에依하야 一般으로 頑强한氣配를 示하고잇고東京事件以前에比하야 도리어反落되것은 石油火藥株이다。 地場株는 日本內地株에 比하야 一般으로그影響이적고 最近의 日本內地株보다 朝鮮內株에의 轉換傾向이去益强化된것으로보이어 十日은拓新十六圓五十錢 朝鮮石油十七圓 北鮮製紙十八圓五十錢 朝鮮石油十七圓買唱이오 人氣는 地場株에 集中된다。

實物前場取引

▲殖產銀行七三、一〇▲朝鮮銀行八一、〇〇▲國際港新一四、〇〇▲朝鮮鐵道八〇、一〇▲同一新一〇、一〇▲同四新一〇、一〇▲二新一七、五〇▲同三新一五、一〇▲同 北鮮製紙一八、五〇▲朝鮮石油一七、三〇▲朝鮮米倉新一五、一〇▲朝鮮製錬三、一〇▲鮮滿開拓一七、〇〇▲龍山工作新一三、一〇▲金剛電鐵六五、〇〇▲同新一八、〇〇▲京南鐵道、配當落一七、五〇▲大阪商船三一、五〇▲帝國火藥一六、〇〇 拜引 四百八十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電通】馬場藏相의公債政策을 念慮하야 五分利債借換을 念慮하고 一齊히低하야 各二圓의暴落을演하고 外貨도 米貨六分半四圓五十錢 五分半四圓의各崩落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二、九〇
二回四分利	九六、〇〇
二回四分利	九八、〇〇
佛貨四分利	九六、〇〇

新米期
反落後에
下澁

前場反落 昨後場 阪地三十一圓七十八錢止와 共히二十九圓七十一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六十九錢인 九丁反落을 投하고二十九圓六十三錢인 九丁低로場을始한後阪地八十錢까지 返戾하엿다가 六十七錢으로 反落止場합을 伴하야 七十一錢의 高價를示하고 因 而軟態에 傾하야結

木浦引締

實物薄에다가日本內地의 買注文到來와 必需向의買進으로十錢引締인 丸木三等二十九圓三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直輸入商 白麥、精白米、玄米、中粉米、白、赤豆、胡麻、粟 內地 (東) 合資會社 東一精米所 釜山大倉町四丁目廿五番地 代表社員 尹貞浩 電話一九九〇番